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자 원 교수 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수도권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
특성과 거주지 분리

201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김 혜 진

수도권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
특성과 거주지 분리

이 자 원 교수 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김혜진

인 준 서

김혜진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10월

심사위원장.....(인)

심 사 위 원(인)

심 사 위 원(인)

심 사 위 원(인)

심 사 위 원(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 논문개요

교통 및 정보 통신의 급속한 발달과 세계화의 추세 속에 국가의 경계를 넘어 교류하는 초국가적 네트워크가 출현하고, 이주노동자 및 유학생은 물론 국제결혼과 난민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이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오늘날 국제이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구는 이주노동자로서, 이들은 노동만을 목적으로 자발적, 선택적으로 이주하여 일정 기간 취업 후 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단기체류자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개인단위의 이주자들이 점차 그 수가 증가하면서 동일 출신국가 혹은 인종별로 친족이나 가족단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입국의 경제에 있어 유의미한 생산인구로 기능하게 되면서 외국인 이주자들은 초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주체로 성장해왔다.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1990년대 후반 이후로,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산업구조의 변화, 소득수준의 향상, 고학력 및 저출산 등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에 지난 20년간 이주노동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외국인 이주자의 증가와 거주지역의 확대는 한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5년 전국 등록외국인 수 1,143,087명 중에서 61.4%인 702,291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수도권으로의 집중현상이 심하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 지역의 79개 시·군·구와 1,131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첫째, 외국인 이주자들의 공간적 분포를 이주자들의 특성에 따라 다면적으로 파악하고, 둘째, 외국인 이주자들의 거주지와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으며, 셋째, 외국인 이주자들의 거주지 분리현상을 정량적 지표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수도권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하는 외국인 이주자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인이 수도권 전체 외국인의 61.1%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중국인 다음으로는 베트남(6.3%), 필리핀(3.2%), 캄보디아(2.5%)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저숙련 노동직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여성보다 남성이 많고 경기도 화성, 안산, 시흥, 인천 및 김포를 잇는 남서부 공업벨트에 집중거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체류자격별로는 비전문직 이주자가 349,401명으로 수도권 전체 외국인의 49.8%를 차지하고, 이밖에도 결혼이주자, 유학생, 전문직 이주자 등 크게 4가지 형태의 체류유형이 수도권 전체 등록외국인의 87.6%를 차지한다. 수도권 시·군·구별 등록외국인 수로 보면,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서울 영등포구, 경기 화성시, 서울 구로구, 경기 시흥시 등에 외국인 거주지가 집중되어 있다.

둘째, 외국인 이주자들의 거주지분포에 영향을 미치고 상관성을 갖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시·군·구 회귀분석에서는 외국인 수와 외국인 비율을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을 때 저차서비스업, 제조·건설업은 정(+)의 상관관계를, 도·소매업은 부(-)의 상관관계를 동일하게 나타냈다. 외국인 비율이 종속변수인 경우에는 교육서비스업이 추가적으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읍·면·동 회귀분석에서는 2005년 외국인 비율, 저차서비스업, 외국인 지원기관 수는 종속변수인 외국인 수와 외국인 비율 공통적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공통적으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셋째, 외국인 이주자들의 거주지 분리현상을 메시와 덴톤(Massey & Denton)의 5개 분리지표인, 균일성, 노출성, 집중성, 중심성, 군집성을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 소수집단의 상이성이 높은 지역은 경기 시흥시, 김포시, 군포시, 안산시 단원구 및 서울 구로구이고, 소수집단의 고립지수가 높은 지역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시흥시, 김포시, 서울 구로구, 영등포구 등이며, 집

중성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단원구, 안양시 만안구, 광명시,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인천 중구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중심성은 한국 도시의 형태 및 구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만을 대상으로 한 출신국적별 외국인의 중심화비율지수로 산출한 결과, 외국인의 중심화비율지수가 6.34로 내국인의 중심화비율지수 2.80보다 높게 나타났고, 출신국적별로는 네팔,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의 출신 외국인 도심부에서 집중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군집성 지표인 글로벌 모란 I지수(Global Moran's I)는 1995년 이후로 점점 더 강한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5년 기준 로컬 공간연관성 지표(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 LISA)에서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성시, 시흥시, 평택시,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가 클러스터된 지역(HH)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거주지 분리 지표를 비교 정리하면 중심성을 제외한 4가지 지표 모두 높은 수준의 거주지 분리를 나타내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시흥시, 화성시, 서울 구로구, 영등포구 등은 초격리(hyper-segregation) 상태의 지역으로 판단된다.

비전문직 외국인 이주자는 지역의 인구변동과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향후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외국인 이주자의 증가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거주지 분포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인종, 민족보다는 출신국적과 체류자격이 집중거주지를 형성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거주지 분리는 더 심화되어 가는 추세이며, 따라서 공간적 분리가 사회적·경제적 분리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거주지 분리가 높은 시·군·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제안이 필요하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II. 이주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7
1. 다문화 사회의 개념 정의 및 이론적 논의	17
2. 외국인 관련 정책 검토	25
3. 선행연구 고찰	34
4. 해외 대도시 사례 연구	46
1) 뉴욕	48
2) 런던	55
III. 외국인 거주지의 형성과 거주 현황	64
1. 외국인 거주지의 형성과 발달	64
2. 외국인의 거주 현황 및 추이	67
1) 외국인의 현황 및 추이	67
2) 외국인의 유형별 거주현황	74
3. 외국인 거주지의 공간적 분포	86
1) 수도권 시·군·구별 외국인 거주지 분포	86

2) 수도권 읍·면·동별 외국인 거주지 분포	93
IV. 외국인 거주지의 정량적 분석	99
1. 외국인 거주지와 사회·경제적 특성과의 상관분석	99
2.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지표 분석	109
V. 결론	130
1. 연구결과 요약	130
2. 논의 및 제언	134
참고문헌	137
ABSTRACT	153

표 목 차

표 1. 등록외국인 수와 비율 상위 10개 시·군·구(2015)	5
표 2. 주요 국제이주 이론	20
표 3. 주요 외국인 관련 정책	26
표 4. 등록외국인 중 미등록체류자의 체류자격별 현황(2015)	33
표 5. 외국인 이주자들의 공간적 분포에 관한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	34
표 6. 외국인 이주자들의 거주지 분리에 관한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	40
표 7. 뉴욕시의 인구구성 변화(2000-2010)	50
표 8. 뉴욕시의 자치구별 인구구성(2010)	52
표 9. 런던의 인구구성 변화(2001-2011)	56
표 10. 전국 등록외국인 수와 비율 변화	67
표 11. 전국 시·도별 등록외국인 수 변화(1997-2015)	72
표 12. 서울시의 국적별 외국인의 규모 순위 변화(상위 10개국)	74
표 13. 경기도의 국적별 외국인의 규모 순위 변화(상위 10개국)	75
표 14. 인천시의 국적별 외국인의 규모 순위 변화(상위 10개국)	76
표 15. 수도권 지역의 국적별 외국인의 규모 순위 변화(상위 10개국)	77
표 16. 수도권 시·군·구별 등록외국인 수와 비율 순위(상위 10개)	87
표 17. 수도권 외국인의 주요 국적 순위(상위 10개국)	91
표 18. 수도권 읍·면·동별 등록외국인 수와 비율 순위(상위 10개)	94
표 19. 수도권 시·군·구 회귀분석의 변수선정 및 구성	100

표 20. 수도권 시·군·구 회귀분석의 회귀모형 결과	101
표 21. 수도권 시·군·구별 외국인 공간분포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	102
표 22. 수도권 시·군·구별 외국인 공간분포의 영향요인 결과 요약	103
표 23. 수도권 읍·면·동 회귀분석의 변수선정 및 구성	104
표 24. 수도권 읍·면·동 회귀분석의 회귀모형 결과	105
표 25. 수도권 읍·면·동별 외국인 공간분포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	106
표 26. 수도권 읍·면·동별 외국인 공간분포의 영향요인 결과 요약	107
표 27. 수도권의 상이지수 상·하위 15개 시·군·구(2015)	110
표 28. 높은 상이성을 나타내는 시·군·구의 변화(2000-2015)	112
표 29. 수도권의 고립지수 상·하위 15개 시·군·구(2015)	113
표 30. 높은 고립성을 나타내는 시·군·구의 변화(2000-2015)	113
표 31. 수도권의 델타지수 상·하위 15개 시·군·구(2015)	116
표 32. 높은 집중성을 나타내는 시·군·구의 변화(2000-2015)	117
표 33. 수도권 외국인과 내국인의 중심화비율지수(2015)	119
표 34. 서울시 외국인의 국적별 중심화비율지수(상·하위 15개국, 2015)	119
표 35. 서울시 외국인의 출신대륙별 중심화비율지수(2015)	120
표 36. 수도권 글로벌 모란지수의 변화	121
표 37. 수도권 시·군·구별 로컬 모란지수의 변화	122
표 38. 로컬 모란지수에서 군집성을 나타내는 시·군·구	125
표 39. 초격리 수준의 거주지 분리를 나타내는 시·군·구(2015)	128

그림 목 차

그림 1. 등록외국인 중 미등록체류자 현황(2010-2015)	33
그림 2. 뉴욕시의 인구구성 변화(1900-2010)	50
그림 3. 뉴욕시 백인의 거주지 분포(2010)	53
그림 4. 뉴욕시 히스패닉계의 거주지 분포(2010)	53
그림 5. 뉴욕시 비히스패닉계 흑인의 거주지 분포(2010)	54
그림 6. 뉴욕시 비히스패닉계 아시아인의 거주지 분포(2010)	54
그림 7. 런던의 이민자 출신국적 상위 10개국(2004-2014)	57
그림 8. 런던의 33개 자치구	60
그림 9. 런던의 백인 거주지 분포(2011)	60
그림 10. 런던의 아시아인 거주지 분포(2011)	61
그림 11. 런던의 흑인 거주지 분포(2011)	61
그림 12. 런던의 기타인종 거주지 분포(2011)	62
그림 13.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수 변화(1993-2015)	69
그림 14. 전국 등록외국인 수 변화(1993-2015)	69
그림 15. 수도권 등록외국인 수 변화(1994-2015)	73
그림 16. 수도권 등록외국인의 주요 국적별·연도별 변화	79
그림 17. 수도권 등록외국인의 국적별 구성 현황(2015)	79
그림 18. 전국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구성 현황(2015)	80
그림 19. 전국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의 변화	82
그림 20. 전국 비전문직 이주자 수 변화	82
그림 21. 전국 결혼이주자 수 변화	83

그림 22. 전국 유학생 수 변화	83
그림 23. 전국 전문직 이주자 수 변화	84
그림 24. 수도권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구성 현황(2015)	85
그림 25. 수도권 시·군·구 등록외국인 수(1995-2015)	88
그림 26. 수도권 시·군·구 등록외국인 비율(1995-2015)	89
그림 27. 수도권 읍·면·동 등록외국인 수(2015)	95
그림 28. 수도권 읍·면·동 등록외국인 비율(2015)	95
그림 29. 수도권 시·군·구의 상이지수(2000-2015)	111
그림 30. 수도권 시·군·구의 고립지수(2000-2015)	114
그림 31. 수도권 시·군·구의 델타지수(2000-2015)	118
그림 32. 수도권 시·군·구의 로컬 모란지수(1995-2015)	12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통 및 정보 통신의 급속한 발달과 세계화의 추세 속에 국가의 경계를 넘어 교류하는 초국가적 네트워크가 출현하고, 이주노동자 및 유학생은 물론 국제결혼과 난민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이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러시아,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프랑스 등 북미와 유럽의 선진국이 이주의 주요 목적국이 되고 있으며, 인구의 자연감소를 겪어온 서유럽 국가들은 이민과 난민으로 전체 인구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본, 기술, 물자, 사람의 이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세계화에 따른 도시공간의 변화를 연구한 사스키아 사센(Saskia Sassen)은 자본, 생산 그리고 노동력의 국경을 넘어선 이동이 대도시들의 도시체계와 공간구조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¹⁾. 대도시에서는 전문직 종사자와 비전문직 종사자 간의 국제적 노동 분업이 발생하고, 이들의 사회·경제적 계층과 인종적 배경으로 인해 도시 내부의 공간적 분화가 일어나게 된다.

국제이주를 통해 유입된 소수집단이 수용국에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동일 국가 혹은 동일 인종 출신자들은 특정 공간을 점유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간다. 초기 이주자들의 거주지 선택은 우연적으로 혹은 최대의 효용을 주는 지역으로 결정되는 반면에, 그 이후로는 동일 국가 출신 혹은 인종의 연쇄이주가 발생하여 최초 이주자의 정착지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동일한 특성을 가진 이주자들이 밀집하여 다양한 민족적 경관을 형성하게

1) Sassen, S., 1988, *The mobility of labor and capital: A study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labor flow*,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되면, 문화적 상호작용에 의해 새로운 문화양식을 창출할 수 있지만, 반면 문화적 차이로 인한 긴장과 갈등을 낳을 가능성도 있다.

오늘날 국제이주의 유형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구는 이주노동자이다. 이들은 주로 단기체류자로서 영구 정착할 이민자와는 달리 노동만을 목적으로 자발적, 선택적으로 이주하여 일정 기간 취업 후 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노동자이다. 유입국에서 소수집단으로 출발한 이주노동자들이 점차 집단화되어 커뮤니티를 형성하면 선주민과 구별되는 사회적 존재감이 형성된다. 이들의 노동을 통한 생산력이 유입국의 생산요소로 자리 잡게 되면 경제활동 인구로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함과 동시에 사회적 보편성도 어느 정도 획득하게 된다. 이렇게 처음에는 개인단위의 단기 노동자들이 유입되다가 체류기간이 연장되고 그 인구가 증가하면서 동일 출신국가 혹은 인종별로 친족이나 가족단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간다. 점차 이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외국인 이주자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와 서비스 시설이 형성되고, 점점 더 네트워크가 강화되어 유입국과의 관계가 밀접해지면 영구적 이민자로 발전할 수 있다.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1990년대 후반 이후로,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산업구조의 변화, 소득수준의 향상, 고학력 및 저출산 등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에 지난 20년간 이주노동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994년 등록외국인 수는 84,905명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210,249명, 2015년에는 1,143,087명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급속한 증가를 보여 왔지만 외국인의 이주역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서, 아직 다양한 인종적, 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향후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기술 저숙련 이주자, 결혼이주자, 외국국적 동포, 유학생 등 국내로 유입하는 외

국민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 공간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군·구 및 읍·면·동별 외국인 이주자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파악하고 외국인 이주자들이 집중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탐색하여 이들 지역에 외국인 이주자들의 밀집이 심화되는 환경적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외국인 이주자들의 공간적 분포를 거주지 분리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서 어느 정도 분리패턴을 보이는지 시·군·구 단위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원활한 사회통합과 민족적 다양성이 갖는 긍정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으로는 첫째,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를 포함하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외국인 이주자들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시·군·구 및 읍·면·동별 외국인 이주자들의 공간적 분포를 이주자들의 유형에 따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외국인 이주자들의 집중거주지가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 분포, 심화되어 왔는지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단위에서 각각 분석해 본다. 또한 외국인 이주자들의 국적과 체류유형에 따라 수도권에서 어떠한 공간적 분포를 나타내는지, 외국인 이주자들의 집중거주지의 형태와 특성을 미시적인 행정단위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둘째, 외국인 이주자들의 거주지와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외국인 이주자들의 공간적 집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종속변수로서 행정단위별 등록외국인 수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인구 대비 등록외국인 비율을 적용하여 양자가 서로 상이점을 보이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독립변수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유의미하게 분석된 변수들을 참고할 뿐만 아니라, 구득 가능한 전범위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유의미한 환경변수를 적용해 보고자 한다.

셋째, 외국인 이주자들의 거주지 분리현상을 정량적 지표로 분석하여 수도권에 외국인 거주지 분리가 심화된 지역을 파악하고자 한다. 거주지 분리를 정량적으로 산출하기 위한 5개 지표로 메시와 덴톤(Massey & Denton)²⁾이 제안한 상이지수, 고립지수, 집중지수, 중심화비율지수, 모란지수를 사용하여 수도권 79개 시·군·구의 거주지 분리 정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초격리(hyper-segregation) 수준의 거주지 분리 현상을 나타내는 지역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공간 통계적 연구는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외국인들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마련과 변화하는 도시공간에서 인종적·민족적 다양성의 긍정적 효과를 제고하고, 외국인 집중거주지에 대한 지원 방향을 설계하는 데 있어 기초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외국인 이주자의 증가와 거주지역의 확대는 한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현상이지만 외국인의 수와 비율의 공간분포 상황을 고려할 때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를 포함하는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의 대도시들이 그 중심에 있다. 실제 국가통계포털³⁾에서 발표한 2015년 전국 등록외국인 수를 보면, 전체 1,143,087명 중에서 61.4%인 702,291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전국 시·군·구 단위로 보면 등록외국인 수가 1만 명을 넘는 지역이 28곳인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45,903명), 서울시 영등포구(39,307명)를 비롯해서 등록외국인

2) Massey, D. S., Denton, N. A., 1988, The dimensions of residential segregation, *Social Forces*, 67(2), pp. 281-315.

3)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수 상위 10개 시·군·구 가운데 경상남도 김해시(18,522명)를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외국인 비율 역시 등록외국인 수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14.4%)와 서울시 영등포구(10.4%)의 비율이 단연 높고, 상위 10개 시·군·구 가운데 전남 영암군(9.4%), 충북 음성군(8.2%), 충북 진천군(7.1%)을 제외한 7개 지역이 모두 수도권에 속해있다.

표 1. 등록외국인 수와 비율 상위 10개 시·군·구(2015)

순위	외국인 수(명)		외국인 비율(%)	
	1	경기 안산시 단원구	45,903	경기 안산시 단원구
2	서울 영등포구	39,307	서울 영등포구	10.4
3	경기 화성시	33,408	전남 영암군	9.4
4	서울 구로구	32,512	서울 금천구	8.4
5	경기 시흥시	31,514	충북 음성군	8.2
6	서울 금천구	19,883	경기 시흥시	7.9
7	서울 관악구	19,368	경기 포천시	7.9
8	경기 평택시	18,644	서울 구로구	7.7
9	경남 김해시	18,522	경기 수원시 팔달구	7.4
10	경기 김포시	16,783	충북 진천군	7.1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주: 외국인 비율은 각 시·군·구의 주민등록인구에서 등록외국인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한국 시·군·구 중 수도권 지역으로 외국인 이주자들의 집중이 두드러진 것은 기업체와 대학이 집중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깊고, 외국인 이주자의 증가에 따른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공간적 특성을 형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20세기 초반 유럽과 북미에서 경험했던 바와 같이 외국인의 이주는 대도시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한국 역시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자의 행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지역으로 정의하기로 한다⁴⁾. 본 논문에서 사용한 수도권의 개념은 통계청의 도시권 확정 연구에서 제시한 서울 대도시권과는 구별된다. 대도시권 설정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서울과 경기도로 구성된 수도권 범위 내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있고, 도시권 확정 연구의 기준이 된 2005년 읍·면·동 및 시·군·구의 인구와 통근률이 현재 시점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⁵⁾ 따라서 서울 대도시권보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수도권을 연구의 지역적 범위로 설정하고, 79개 시·군·구와 1,131개 읍·면·동을 분석단위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등록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통칭하였다. 등록외국인은 외국인 중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를 의미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현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집계하는 체류외국인으로 파악하는데, 이는 다시 단기 체류외국인과 장기 체류외국인으로 구분된다. 단기 체류외국인은 체류기간이 90일 이하로 제한되는 단기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외국인을 지칭하고, 장기 체류외국인은 등록외국인 외에 외국 국적 동포 거소 신고자를 일컫는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외국인 주민’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데, 이는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되 한국국적이 아닌 자, 외국인이었으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결혼이주자 및 국적 취득자의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다. 즉, 행정자치부는 등록외국인, 한국 국적취득자, 외국인 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보다 광범위한 외국인 주민 통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반해, 법무부의 등록외국인 통계는 이 중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자로 등록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예컨대, 행정자치부의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http://www.law.go.kr>)

5) 김광익 외, 2007, 도시권 확정, 통계청, p. 95.

외국인 주민 현황 보고에 의한 외국인 주민 수는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1,741,919명으로 집계되었는데, 법무부의 2015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의한 등록외국인 수는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143,087명이라고 보도되었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연 초에 집계한 외국인 주민 수의 약 66%에 해당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의 외국인 주민 통계는 2006년부터 실시되었는데, 시·군·구별 자료만 집계하던 것을 2014년부터는 읍·면·동별 자료로 확대하여, 이후 읍·면·동 행정단위의 시계열적 분석이 가능해졌다. 한편 법무부의 등록외국인 수는 1993년부터 출입국관리국 통계연보에 수록되어 왔으나 국적별, 체류자격별 거주현황에 대해서는 시·도 혹은 시·군·구 단위에만 머물러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지역적 범위인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경우, 각 시·도의 통계연보에서 읍·면·동 단위의 등록외국인 수에 대한 시계열 자료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서울통계, 경기통계, 인천통계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각각 이용하였다⁶⁾. 단, 서울은 구별 외국인 수가 1992년부터, 경기도는 시·군·구별 자료가 1992년부터 발표된 반면, 인천은 군·구별 등록외국인 통계가 1994년부터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시계열 자료 분석에 있어서는 1994년부터 2015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법무부의 체류목적별 비자 구분에 의해 파악할 수 있다. 비전문직 이주자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들이며, 결혼이주자들은 현재 국민배우자(F-2-1, F-5-2)와 결혼이민(F-6)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데, 결혼이민(F-6) 비자는 2011년 12월 15일 신설된 것으로 그 이전까지는 국민배우자(F-2-1, F-1-3) 비자를 발급받아왔다. 유학생의 경우, 2009년 이전까지는 유학(D-2) 비자와 한국어연수(D-4-4) 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였으나, 2010년부터 한

6) 서울통계(<http://stat.seoul.go.kr>), 경기통계(<http://stat.gg.go.kr>), 인천통계(<http://www.incheon.go.kr/articles/180>)

국어연수(D-4-4) 비자는 일반연수(D-4) 비자로 통합 분류되어왔다. 전문직 이주자들은 비자유형에 있어서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이다.

시·군·구 및 읍·면·동별 외국인 분포 추이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IBM SPSS Statistics 22를 사용하였다. 외국인 이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공간적 분포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Arc GIS 9.3을 이용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 단위로 측정된 외국인 수와 외국인 비율 및 5개 거주지 분리의 특성을 지도화하였다.

연구의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수도권 시·군·구 및 읍·면·동별 외국인 이주자들의 집중거주지를 파악하고, 이들의 비자 종류에 따른 체류 유형과 국적별 분포 특성을 도출하였다. 둘째, 수도권의 79개 시·군·구 및 1,131개 읍·면·동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등록외국인 수와 인구 천 명당 등록외국인의 비율을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이에 대해 상관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셋째, 외국인 이주자들이 사회·경제적 요인 및 사회적 환경의 영향으로 거주지 형성에 차별과 배제를 받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이주자들의 거주지 분리에 관해 정량적으로 접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메시와 텐톤이 제안한 5개 거주지 분리 지표⁷⁾를 활용하여 수도권 시·군·구별 거주지 분리에 관해 분석하였다. 거주지 분리 혹은 거주지 분화는 두 개 이상의 거주 집단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상대적인 거리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미국의 도시들 내에서 발생하는 인종별·민족별·공간적 차별과 분리 현상을 설명하는 지표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7) Massey, D. S., Denton, N. A., 1988, op. cit.

메시와 덴톤의 거주지 분리 측정 지표는 균일성(evenness), 노출성(exposure), 집중성(concentration), 중심성(centralization), 그리고 군집성(clustering) 등 5개로 구성되는데, 각 지표들이 거주지 분리의 서로 다른 특징을 설명하기 때문에 거주지 분리 분석에 있어 이들 모두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메시와 덴톤은 소수집단이 이러한 다양한 특성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두드러진 분리 현상을 나타내는 것, 즉 공간적으로 불균등하거나, 고립되거나, 집중되거나, 중심화되거나, 또는 군집되면서 분리 측정 지표 5개 중 4개 이상을 충족하는 것을 ‘초격리(hyper-segregation)’ 현상이라고 명시하였다. 미국의 33개 대도시지역을 대상으로 1980년, 1990년, 2000년의 흑인과 백인의 거주지 분리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1980년에는 16개 대도시, 1990년에는 29개, 2000년에는 23개 대도시 지역이 초격리 현상을 보였다⁸⁾.

이중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균일성 지표인데, 상위 단위 지역 안에 포함된 하위 단위 지역 내에서 서로 다른 집단들 간의 공간적 분포를 비교하는 것이다. 즉, 다수집단과 소수집단이 완전히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면 거주지 분리는 최소값을 갖게 되고, 반면 거주지 분리가 완전히 이루어져 있다면 최대값을 갖는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균일성 측정 지표는 던컨과 던컨(Duncan & Duncan)의 상이지수인데, 값이 최소 0에서부터 최대 1까지 형성되며 1에 가까울수록 거주지 분리 정도가 높다고 판단한다.

$$D = \frac{1}{2} \sum_{i=1}^n |x_i - y_i|$$

x_i : i 지역에 거주하는 x 집단의 인구가 전체 x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

y_i : i 지역에 거주하는 y 집단의 인구가 전체 y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

8) Massey, D. S., Denton, N. A., 1993, *American Apartheid: Segregation and the Making of the Underclass*,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pp. 74-78.

상이지수 D 가 0.3 이하일 경우 거주지 분리 정도가 낮다고 해석하고, 0.6 이상은 높은 수준의 거주지 분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런데 상이지수가 공간적인 특성까지는 고려하지 못한다고 그 한계를 지적하며, 화이트(White)는 “체커보드 문제(checkerboard problem)”를 제기하였다⁹⁾. 각각의 대상 단위 지역만을 고려함으로써, 대상 지역이 포함된 상위 단위 지역의 전체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없고, 결국 군집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이지수의 비공간적(aspacial)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된 지표가 모릴(Morrill)¹⁰⁾의 $D(adj)$ 지수와 웡(Wong)¹¹⁾의 $D(w)$ 지수이다. 이 지수들은 공간적 상호작용을 반영하면서, 하위 지역을 포괄하는 전체 지역에 대한 분리정도를 측정하는 글로벌 지수로서 광역도시권 수준에서의 거주지 분리 측정에 사용되고 있다. 모릴의 $D(adj)$ 지수는 지역들 간의 공유된 경계를 변수로 포함한 것이고, 웡의 $D(w)$ 지수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공유하는 경계의 길이를 고려한 방법인데, 이러한 방법들도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으며 모든 약점을 포괄하여 거주지 분리를 측정하는 단일의 지표는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박윤환은 수도권 지역 7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들의 거주지 분리에 대한 연구에서 D , $D(adj)$, $D(w)$ 세 지수를 모두 측정하여 비교한 바 있는데, 세 지수들 간의 값의 차이는 0-0.03 정도로 측정치의 격차가 크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수도권 시·군·구에서 외국인들의 분포 패턴이 대부분 클러스터화된 양(+)적인 공간적 의존성을 보이기 때문에 $D(adj)$ 와 $D(w)$ 의 공간적 의존성을 추정하는 수식 값이 작아져서 상이지수 값과 유사하게 측정된 것으로 분석되었다¹²⁾. 따라

9) White, M. J. 1983, The Measurement of Spatial Segreg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8(5), p. 1010.

10) Morrill, R. L., 1991, op. cit.

11) Wong, D. W. S., 1993, op. cit.

12) 박윤환, 2010, “수도권 지역 외국인들의 거주지 분리에 대한 연구,” *행정논총*, 48(4), pp. 442-444.

서 세 가지 상이지수가 서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상이지수(D) 값만을 균일성을 측정하는 대표지수로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본 통계자료는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제공하는 주민등록인구통계의 읍·면·동 단위 인구를 기준으로 상위단위인 시·군·구의 상이지수(D)를 측정하였다.

두 번째, 소수집단이 다수집단에 대해 어느 정도의 빈번한 접촉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는 노출성은 노출의 정도를 통해 소수집단이 사회적으로 융합될 수 있는지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즉, 단위 지역 내에서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상호작용 혹은 접촉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고립지수(Isolation Index)가 있다. 고립지수(I)는 다수집단과 소수집단이 거주지역을 공유하면서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최소값 0에서 최대값 1 사이의 범주를 형성한다. 1에 가까울수록 소수집단 내에서만 접촉하여 다수집단으로부터는 고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0에 가까울수록 소수집단과 다수집단이 빈번히 접촉하고 있어서 고립이 없는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다.

$$I = \sum_{i=1}^n [x_i / X][x_i / t_i]$$

x_i : i 지역에 거주하는 x 집단의 인구

t_i : i 지역의 전체 인구

X : i 지역을 포함하는 상위지역의 x 집단 인구

즉, 노출성은 한 지역 내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집단 간의 접촉, 교류의 가능성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내국인 구성원과 외국인 구성원이 거주지역을 공유함으로써 서로 물리적으로 마주치는 정도를 나타낸다. 균일성과 노출성은 서로 상관이 있지만, 노출성은 집단 구성원의 상대적 크기에 영향

을 받는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세 번째, 소수집단의 거주행태가 다수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중하면 거주 면적이 보다 축소되는데, 이러한 소수집단이 차지하는 지역의 지리적 규모는 집중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메시와 텐튼은 집중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델타지수(DEL)를 고안하였는데, 소수집단이 차지하는 물리적 공간의 상대적 크기를 통해 거주 환경의 고밀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DEL = \frac{1}{2} \sum_{i=1}^n | [xi / X - ai / A] |$$

xi : i 지역에 거주하는 x 집단 인구

X : i 지역을 포함하는 상위지역의 x 집단 인구

ai : i 지역의 공간적 크기

A : i 지역을 포함하는 상위지역의 공간적 크기

집중성은 집단 구성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 지수이다. 예를 들어 A도시와 B도시의 외국인 인구 비율과 거주지의 균일성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A도시는 좁은 면적에 적은 수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B도시는 넓은 면적에 다수의 외국인이 거주할 경우, A도시의 거주지 분리 정도가 B도시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거주지 차별로 인해 소수인종들은 작은 근린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네 번째, 중심성은 집중성과 비슷하지만 소수집단이 도시의 중심부 혹은 중심업무지구(CBD)에 얼마나 근접하여 거주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는 소수집단이 도시중심부의 낙후되고 쇠퇴한 지역에 집중하여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되어왔다는 점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중심성을 측정하기 위한 중심화 비율 지수(PCC)는 전체

인구 대비 도심부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을 통해 환산된다.

$$PCC = \frac{X_{cc}}{X}$$

X_{cc} : 도심부 경계 내에 거주하는 소수집단 인구

X : 도시 전체 인구

본 연구에서는 중심성을 측정하기 위해 서울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도심부의 범위를 서울시의 전통적인 중심지역인 종로구와 중구로 정의하였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16조(4대문 안의 범역 확정 등)에 의하면, 4대문 안의 범역은 퇴계로, 다산로, 왕산로, 율곡로, 사직로, 의주로를 경계로 하여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을 도심이라 정의하였다. 김태호·여흥구는 서울시 도심공간의 토지이용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도심부를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도심부로 설정하였고¹³⁾, 서민철은 서울의 도심과 부심을 설정하는 연구에서 종로3가 지역을 중심업무지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분석하였다¹⁴⁾.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거리 기준이 아닌 행정구역의 경계로 종로구와 중구를 도심부로 정의하여 중심화비율지수를 측정하였다.

다섯 번째, 군집성은 앞서 언급된 상이지수가 가진 한계와 관련되어 있는데, ‘체스판 문제’에서처럼 같은 상이지수를 나타내는 지역이라도 소수집단이 분산되어 분포하고 있는 상태를 음(-)의 공간적 의존성, 소수집단이 군집하여 분포하고 있는 상태를 양(+)의 공간적 의존성으로 표현해 군집정도에 따라 분리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군집성은 Moran's I, 즉 공간적 자기상관 지수를 통해 산출될 수 있는데,

13) 김태호, 여흥구, 2012, “서울시 도심공간의 토지이용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를 대상으로,” 국토지리학회지, 46(2), pp. 214-215.

14) 서민철, 2014, “서울의 도심 및 부심 설정과 특화 기능 탐색,” 대한지리학회지, 49(2), pp. 284-285.

글로벌 모란 I지수(Global Moran's I)와 로컬 공간연관성 지표(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 LISA)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모란 I지수(Global Moran's I):

$$I = \frac{N \sum_{i=1}^n \sum_{j=1}^n w_{ij} (Y_i - \bar{Y})(Y_j - \bar{Y})}{\left(\sum_{i=1}^n \sum_{j=1}^n w_{ij} \right) \sum_{i=1}^n (Y_i - \bar{Y})^2}$$

여기에서 N은 지역단위 수, Y_i 는 i 지역의 속성, Y_j 는 j 지역의 속성, \bar{Y} 는 평균값, w_{ij} 는 가중치를 각각 의미한다.

로컬 공간연관성 지표(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 LISA):

$$I_i = \left[\frac{n^2}{\sum_{i=1}^n \sum_{j=1}^n w_{ij}} \right] \frac{(y_i - \bar{Y}) \sum_{j=1}^n w_{ij} (y_j - \bar{Y})}{\sum_{i=1}^n (y_i - \bar{Y})^2}$$

모란(Moran)에 의해 제안된 I지수는 지리적 근접성에 따라 발생하는 상호간의 영향을 나타내는 공간적 자기상관 지수로, 공간적으로 인접해 있을수록 서로 유사한 특성을 지니게 되고 상관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글로벌 통계량과 로컬 통계량으로 나누어지는데, 글로벌 통계량은 연구대상 지역 내에서 유사한 값들의 전반적인 군집경향을 하나의 지표로 요약하여 나타내는 지표이며, 로컬 통계량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에 유사한 값들을 보이는 공간적 군집현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다¹⁵⁾.

글로벌 Moran지수는 최소값 -1에서 최대값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0보다 큰 정(+)의 공간자기상관의 경우 인접한 공간들 간에 유사한 특성을 갖고 군집적으로 분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0보다 작은 부(-)의 공간적 자기상관은 서로 상이한 값을 가지며 분산적으로 분포하는 경우이다.¹⁶⁾ 안셀린과 베라(Anselin & Bera)는 공간적 자기상관을 “공간상에 분포하는 공간 객체들은 위치의 유사성이 높아짐에 따라 객체들이 갖는 값의 유사성도 높아가는 현상”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¹⁷⁾. 이러한 공간적 자기상관성의 원인은 공간 실체들의 상호작용으로, 공간상의 상호작용은 정보 및 기술의 확산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공간 간의 위계구조를 낳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공간과정을 통해 공간 위의 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다른 장소에서의 현상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Moran지수는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측정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큰 값들이 군집된 경우(hot spot)와 작은 값들이 군집되어 있는 경우(cold spot)를 구분하지 못하여서 집단의 인구규모가 큰 지역들의 군집과 인구규모가 작은 지역들의 군집 모두 동일하게 자기상관성이 높게 산출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안셀린(Anselin)의 로컬 공간연관성 지표(LISA)를 산출하여 해당 지역 내에서의 공간적 연관성에 대한 국지적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LISA 지표를 통해 산출된 로컬 공간적 연관성 유형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준이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값 주변에 높은 값이 존재하는 HH유형(high-high), 낮은 값 주변에 낮은 값이 존재하는 LL유형(low-low) 높은 값 주변에 낮은 값이 존재하는 HL(high-low)유형, 그리고 낮은 값 주변에 높은 값이 존재하는 LH유형(low-high)유형이다. 본 논

15) 이희연, 심재현, 2011, GIS 지리정보학, 범문사, pp. 394-397.

16) 이희연, 노승철, 2013, 고급통계분석론, 문우사, pp. 233-234.

17) Anselin L., Bera, A. K., 1998, Spatial Dependence in Linear Regression Models with an Introduction to Spatial Econometrics, *Handbook of Applied Economic Statistics*, Marcel Dekker Inc., New York, p. 240.

문에서는 수도권 시·군·구를 대상으로 로컬 공간연관성 지표를 산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HH유형과 HL유형만을 외국인 거주지 군집성을 보이는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이상의 메시와 덴톤의 5개 거주지 분리 지표를 이용하여 수도권 외국인 이주자들의 거주지 분리 정도를 측정하였다.

II. 이주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 다문화 사회의 개념 정의 및 이론적 논의

한국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유입되는 외국인 수가 급속하게 증가면서 ‘다문화’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¹⁸⁾. ‘다문화사회’라는 용어는 이 시기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이주여성의 유입과 더불어 이질적 문화의 도입과 관련을 맺고 있다. 이용재는 한국의 다문화사회 등장이 이러한 외국인의 유입이라는 표면적인 현상과 외적 요인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여 왔지만, 사실이 시기 이전에 사회적 내적 갈등은 이미 심화되어 정치적, 사회적 분열이 동시에 발생했던 1986년 이후 제도적 민주화 시기와 1998년 IMF 경제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북미에서는 일찍이 1970-80년대 환경, 평화, 여성, 반핵, 녹색당운동 등 신사회운동이 등장하면서 기존 사회의 강한 계급과 계층을 해체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이념적 영역에서 생활적 영역으로 확산시키면서, 전국적·집단적 단위에서 지역적·개인적 단위로 다양성이 증대되는 시기를 맞이하였다. 이와 같은 기존 사회질서의 해체와 새로운 운동으로의 전환은 우리 사회에서도 내적 균열과 다양성의 포섭으로 나타나, 정치적·경제적 구조의 변화와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내적요인으로 작용하였다¹⁹⁾.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전환하게 된 계기를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자,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난민 등 한국인의 시각에서 볼 때 이질적인 집단으로

18) 강휘원, 2006, “한국 다문화사회 형성 요인과 통합 정책,” 국가정책연구, 20(2), p. 7.

19) 이용재, 2012, “다문화사회의 개념에 대한 고찰: 갈등의 양상과 해소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인간, 1(1), pp. 45-47.

인식되는 외국인들이 유입되면서 이로부터 파생된 새로운 민족, 종교, 문화의 도입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전제 아래, 다문화사회, 다문화주의, 다문화가정, 다문화정책, 다원주의 등 다양한 관련 개념이 제시되어져 왔으나, 사실상 ‘다문화’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동의가 부재하고 용어와 현상의 일치에 대한 논의도 없이 사용해 왔다.

일반적으로 ‘다문화’는 문화적 다양성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에서 다문화는 모든 사회에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좁은 의미로는 단일 국가 내에 인종, 언어, 역사, 문화적 동질성에 기반을 둔 공동체가 다수 공존하는 현상으로, 민족국가 성립 이전부터 다양한 인종 및 문화공동체가 존재했던 미국, 호주와 같은 사례도 있고,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이민을 받아들이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갖게 된 영국, 독일과 같은 경우도 있다. 다문화사회가 되기 위한 기준이나 조건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다문화’는 정지된 상태가 아닌 과정적 개념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동의에 기반하여 다같이 지향해야 할 이념을 의미하기도 한다²⁰⁾. 지금도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다문화주의를 여전히 이념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다문화주의를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일 터인데, 이에 대해서는 유보적이고 부정적인 견해가 대부분이다.

한국은 2005-2006년 결혼이주여성인 급증함에 따라 이들을 단기체류자격의 이방인이 아니라, 내국인의 배우자로서 또 다른 한국인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다문화’라는 대중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즉, 한국사회에서 ‘다문화’는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대상화하고 있고, 이들이 한국사회의 전통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동화, 흡수되도록 하는 것이 다문화정책을 수립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문화의 공존’이라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²¹⁾의 일차적인 개념에 비추어보면, 한국에서 결혼이

20) 박세훈 외, 2009,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I):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토연구, pp. 13-16.

주여성과 그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다문화정책은 한계를 지니고 있고, ‘다문화’라는 접두어의 사용도 부적절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의미하는 외국인 정책은 출입국 관리를 위한 정책적 성격이 강하며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전히 순혈주의에 기반한 인권적 차별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라는 용어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을 일반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비전문직 이주자, 결혼이주자, 유학생, 전문직 이주자, 재외국민, 난민, 북한이탈주민 등 이주자 각각의 체류 목적별 특성에 따라 지칭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

현재 한국의 외국인 정책의 기초가 되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하면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가리킨다²²⁾. 즉, 국적과 합법성을 기준으로 외국인을 정의하고 있는데,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인과 결혼 후 2년이 지나면 혼인귀화 신청을 해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체류 2년 후 법적인 한국인이 된 이후에는 외국인으로 구분될 수 없고 그로 인해 사회적·정책적 관심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²³⁾. 따라서 외국인이라는 법적 정의보다 넓은 범주로 외국인을 정의하고 사회적·정책적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 포괄적 견해를 갖기 위해서는, 화교 및 재외동포 등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과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적 배경을 이해하고 이주자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각각 지칭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사회가 결혼이주자의 유입과 더불어 ‘다문화’라는 용어를 본격

21) Harold Troper(1999)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정의에 따르면 다문화주의는 첫째, 인종, 민족, 문화적으로 다원화된 인구학적 현상이고, 둘째,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존중하려고 하는 사회적 이념이며, 셋째, 인종, 민족, 국적에 따른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개인이 공평한 기회에 접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정의한다. (윤인진, 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징: 국가와 시민 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2), p. 74에서 재인용)

22)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3) 박세훈 외, 2009, 앞의 책, pp. 16-19.

적으로 사용한지 약 20여 년 정도 경과되면서, 초기 국제결혼 가정에만 해당되던 다문화 논의는 이주자의 수적인 증가와 더불어 체류목적과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전문직 이주자, 비전문직 이주자, 유학생, 난민, 북한이탈주민 등 모든 유형의 이주가 다문화 논의 속에 포함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한국의 다문화사회로의 변동을 공간적으로 고찰해보기 위해서는 외국인 이주자들이 어디에 정착하여 집중거주지를 형성하는지, 어떠한 사회적·경관적 변화가 발생하며 이런 지역이 도시공간상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주이론에 대한 연구는 지난 20-30년간 이주가 갖는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여러 학문 분야로 분산되어 왔고 학제간의 분석적, 방법론적 공동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²⁴⁾. 국제이주를 설명하는 이주이론들을 매우 다양한데 각각 이론들은 강점과 약점이 존재하며 어떤 접근이든지 한계 또한 존재한다.

표 2. 주요 국제이주 이론

이주이론	주요 이론가	관심주제	공간에 대한 전제
배출/흡입 이론	Ravenstein (1885)	배출/흡입 요인에 바탕을 둔 국내/국제 이동	방법론적 국가주의 ²⁵⁾ , 지역주의
신고전경제학적 접근	Lewis(1954), Sjastaad(1962)	경제적 합리성에 기인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이주	방법론적 국가주의, 지역주의
행태주의	Massey & Denton(1998)	합리적 인식을 토대로 한 만족 행위와 장소효용을 고려한 개인의 이주행태와 국내이주	방법론적 국가주의, 장소중심주의
신이주경제학	Stark & Levhari(1982)	집단적·결합적 의사결정 단위로서	방법론적 다원주의 (국민국가, 지역,

24) Castle, S., 2010, Understanding global migration: A social transformation perspective,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6(10), p. 1569.

		가족 및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이주	마을)
노동시장분질론	Piore(1979)	고용원칙에 따른 노동시장에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수요	방법론적 국가주의
세계체계론	Portes & Walton(1981)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의 변화와 이주에 대한 영향력	방법론적 글로벌주의, 국가주의, 지역주의
구조주의적 접근(글로벌화)	Pieterse(1995)	글로벌 경제 및 재구조화, 교통·통신수단의 혁신	스케일/영역을 관통하는 공간, 전체 국가를 뛰어넘는 공간, 국민국가, 지방, 로컬
구조주의적 접근(글로벌 도시)	Portes(1995)	글로벌 경제, 글로벌 도시	방법론적 글로벌주의, 도시주의
구조주의적 접근(신자유주의)	Portes(1995)	개발도상국에 불이익을 주는 글로벌 정치경제적 변형	방법론적 글로벌주의, 스케일을 관통하는 공간
구조주의적 접근(이주-개발 연계)	Portes(1995)	송출/이입국가(지역) 간 관계, 송금의 영향력	방법론적 국가주의, 다양한 스케일 분석
사회(이주자) 네트워크 이론	Hugo(1981)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주, 지역(마을), 가족, 개인의 행동	방법론적 다양성, 초국가주의, 트랜스로컬리즘, 트랜스 도시주의
초국가주의	Castle & Miller(1998)	다양한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이주자 연계 혹은 디아스포라 연계(글로벌/초국경적 특성)	초국가주의, 트랜스로컬리즘, 로컬간의 관계
젠더를 고려한 접근	Sassen(2002)	여성이주자와 젠더 관계, 가사노동과 가족관계	방법론적 다원주의 (국민국가, 도시, 마을)

구조화이론	Goss & Lindquist(1995)	잠재적으로 가능한 모든 형태의 이주	N/A
-------	------------------------	---------------------	-----

출처: Michael Samers, 2010, *Migration*, Routledge, London. (이영민, 박경환, 이용균, 이현욱, 이종희 역, 2013, 이주, 푸른길, pp. 156-169)의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함.

먼저 19세기 지리학자 어니스트 라벤스타인(Ernest G. Ravenstein)에 의해 제안된 ‘배출/흡입 이론’은 가장 전통적인 국제이주이론으로 이주의 원인이 송출지역의 배출요인(push factor)과 수용지역의 흡입요인(pull factor)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배출요인은 인구증가, 낮은 생활수준, 일자리 부족, 정치적 억압 등이며, 흡입요인은 노동수용성, 가용한 토지, 취업 기회 제공, 정치적 자유 등이다. 따라서 저개발국가에서 선진국 방향으로 이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는데, 실제로는 이와 달리 경제발전 중간 단계의 국가와 선진국 간의 이주가 더 빈번하고, 반드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이주하지도 않는다는 예외적 현상을 설명하지 못했다²⁵⁾.

‘신고전경제학적 접근’은 모든 개인을 합리적, 경제적 주체로 상정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학적 동기와 효용의 극대화가 이주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행태주의적 접근’은 이주자들이 효용의 극대화보다 만족의 추구를 중시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많은 이주자들이 더 이상 인간적인 삶을 지속하기 힘들다는 판단 하에 이주를 단행한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초기의 행태주의적 연구는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 간의 관계나 글로벌 정치경제의 역학 관계는 간과했다는 측면이 지적된다. ‘신경제학적 접근’으로 불리는 결정론적 이론

25) 방법론적 국가주의란 사회, 정치, 역사에 대한 기본적 이해방식이 민족국가(nation-state)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해석을 전제로 하며, 사회는 민족국가의 단위로 조직되어 있고 국가는 사회를 통제함과 동시에 존재를 보장해주는 역할로 해석된다. (신지원, 2014, 앞의 책, p. 79)

26) Ravenstein, E. G., 1885, The laws of migration, *Journal of the Statistical Society of London*, 48(2), pp. 167-235.

은 한 가구가 결속력 있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한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러한 가정은 현실성이 결여된 사고일 수 있다. ‘이중 노동시장 가설 및 노동시장 분절화 접근’은 선진국의 노동수요만을 강조하면서 전 세계 노동시장을 임금 기준으로 두 부문으로만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공간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다.

넓은 범위의 ‘구조주의적 접근’은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의 구조적, 공간적 불평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발생한 국제적 이주는 글로벌 도시라는 하위국가적 공간을 만들어낸다. 이 공간은 고임금 혹은 저임금 이주자 수요를 발생시키면서 불평등과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보이는 공간인데, 이러한 공간에서 인간의 행위주체성, 네트워크, 가족과 사회의 존재 등은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글로벌화’에 대한 논의들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한 이동성 증가의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기술혁신에 따라 이동의 비용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거리 자체는 여전히 존재하며 모든 사람이 이러한 물리적 거리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이주자) 네트워크 이론’은 이주 커뮤니티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네트워크가 이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구조적인 틀에만 의존하는 결정론적 입장을 보일 경우 장애물로서의 국경, 외국인 비자 정책, 인신매매, 밀수입, 항공료, 가족갈등, 인종차별 등의 유·무형의 장애물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초국가주의’는 국제이주를 설명하는 제3세대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통적인 이주이론들이 사람들이 왜 이동하는지, 왜 특정 국가를 향해 이주하는지를 설명하려고 했다면, 초국가주의는 이와 더불어 어떻게 이주자들 혹은 디아스포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수용국에 정착하게 되는지, 즉 공동체와 정착지의 형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디아스포라는 유입국 사회, 고국,

타국에 거주하는 동일 집단 출신 이주자들과 국제적인 유대관계를 이어가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사회정치적 공동체로서, 초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주체가 된다. 그러나 초국가적 공간(transnational spaces), 트랜스 로컬리즘(translocalism), 초국가적 장(transnational fields) 등의 다양한 공간 개념은 아직은 이론으로서 불충분하고 이주체론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견해가 보편적이다²⁷⁾.

한편 최근 페미니즘 및 젠더 중심의 연구가 급격히 증가해왔는데, ‘젠더를 고려한 접근’은 젠더 담론과 내부적으로 형성된 젠더 관계 및 기대치가 이주자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장소에 관계없이 여성의 역할에 대해 고정관념이 존재한다고 보고, 부유층의 주거지역에서 가사 노동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라셀 살라자르 파레냐스(Rhacel Salazar Parrenas)는 『세계화의 하인들』에서 고학력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위해 저개발국가에서 이주해 온 여성들이 가사노동과 육아를 담당하고, 가사서비스 이주여성들의 가족은 또 다른 가족구성원이나 그보다 더 하위계층의 여성이 담당하게 되는 ‘돌봄의 연쇄’를 지적한 바 있다²⁸⁾. 한국의 ‘조선족’, 이탈리아의 ‘루마니아계’, 폴란드의 ‘리투아니아계’, 그리스의 ‘스리랑카계’, 대만의 ‘필리핀계’, ‘인도네시아계’, 미국의 ‘라틴계’ 여성가사노동자들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젠더 중심의 연구는 이주자 네트워크나 젠더 관계를 만들어내는 정치·경제 과정에서 구조적인 힘을 간과한 측면이 있고 여성중심의 연구에만 집중하는 한계도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존 고스(Jon Goss)와 브루스 린퀴스트(Bruce Lindquist)가 제안한 ‘구조화 이론’²⁹⁾은 구조, 제도, 주체를 모두 고려하는 중도적인 이론이

27) 정현주, 2010, “대학로 ‘리틀마닐라’ 읽기: 초국가적 공간의 성격 규명을 위한 탐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3), pp. 296-303.

28) Rhacel Salazar Parrenas, 2001, *Servants of Globalization: Women, Migration, and Domestic Work*, Stanford University Press, Redwood City, CA. (문현아 역, 2009, 세계화의 하인들: 여성, 이주, 가사노동, 여이연, pp. 73-78)

29) Goss, J., Lindquist, B., 1995, Conceptualizing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International*

지만, 사회 네트워크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항상 제도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적 견해도 있다³⁰⁾. 이상의 여러 이주이론은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스케일, 영역성, 구조, 제도, 사회 네트워크, 젠더, 계급, 인종, 거버넌스 등의 상대적인 요소들을 다양한 축으로 교차시켜 이주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로 ‘초국가주의적 공동체의 출현’으로 이주를 설명하고 있는데, 단순히 국경을 뛰어넘는 형태를 넘어 이주의 과정에서 이주자의 의사결정 및 일상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 연결망과 가변적이고 다중적인 집단 정체성에 의해 초국가적 공간이 형성되고, 동시에 그 공간에서 연결망과 정체성이 재생산된다고 보는 견해이다³¹⁾. 즉, 초국가주의는 송출국과 수용국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이동과 변화, 그리고 관계에 초점을 두고 이주와 정착의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오늘날 초국가적 이주과정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 외국인 관련 정책 검토

한국의 초기 외국인 관련 정책은 주로 출입국 관리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경제발전의 가속화,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 저성장 등을 경험하면서 이민 송출국에서 이민 유입국으로 점차 지위가 전환되어 왔다. 1991년 해외투자업체연수제도를 시작으로 산업현장의 저숙련 노동자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 2000년 연수취업제, 2004

Migration Review, 29(2), pp. 317-351.

30) Michael Samers, 2010, *Migration*, Routledge, London. (이영민, 박경환, 이용균, 이현욱, 이종희 역, 2013, 이주, 푸른길, pp. 56-69)

31) 신지원, 2014, “국제이주와 동남아시아지역연구의 초국가적 공간에 대한 고찰,” *현대사회과학연구*, 18, p. 78.

년 고용허가제에 이르기까지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급증하게 된 데에는 정부의 저숙련 고용 중심 정책이 근간이 되어왔다.

표 3. 주요 외국인 관련 정책

연도	주요 정책	내용
1991	해외투자업체연수제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투자기업이 해외 법인의 외국인근로자를 국내로 초청하여 일정 기간 연수
1993	외국인산업연수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이 외국인을 연수생 신분으로 활용
199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보장 및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 등 권리 명시
2000	연수취업체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연수생은 2년 간 연수생 근무 후 근로자 신분으로 전환하여 1년간 취업 가능
2002	연수취업체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취업기간 확대(연수 2년 + 취업 1년 → 연수 1년 + 취업 2년) • 서비스분야 외국국적 동포 취업관리제 시행
200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외국인 고용허가제 추진 • 체류 4년 미만 미등록체류자 합법화 조치(227,000명)
2004	고용허가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4년도 외국인력 수급계획 합계 79,000명 •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개소
200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근로자의 재취업 제한기간 단축 • 1사업장 1제도 원칙 폐지 •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 가입요건 추가 • 고용특례자에 대한 취업 허용업종 확대
2006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력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며 세부 추진 방안 논의 • 취업관리제 허용 업종 확대(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혼혈인 및 이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및 결혼사증 심사

	사회통합 지원방안 및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안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화 정착지원 및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200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한 동포의 취업 관련 절차 정비 외국인력 취업 업종 및 인원 확대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등에 관한 내용 규정 동 법에 의거하여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및 5년 단위의 시행계획 수립
	국적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 지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중개업을 지도·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를 형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2008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족에 특화된 생활정보 제공과 교육지원, 아동 보육 및 교육 지원 등 결혼이민자와 가족구성원의 사회적응 목적 동 법에 의거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전국 200여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 계획 수립(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국가’를 외국인정책의 비전으로 정하고 4대 목표와 13대 중점과제 발표
2009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들에게 교육 및 사회서비스 지원
2010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년까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강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 목표
2011	다문화가족 지원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이주자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혼인귀화자까지 다문화가족에 포함시킴
2012	난민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민인정절차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강화 및 난민 등의 권리 보장에 있어서 난민협약 정신 반영
2013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까지 사회발전 동력으로서

	수립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 목표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력의 5대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5년간 추진
2014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매2년 마다 실시 계획
2016	출입국관리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러 및 불법출입국 방지를 위한 국경보안 관리 강화 등 출입국 규제 강화

정부는 2000년대 이래로 급증한 결혼이주자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2006년 제1차 외국인정책회의가 범정부 차원에서 개최되어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수립하였다.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으로 매 5년 단위의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되었으며,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으로 다문화가족에 특화된 지원체계와 사회적응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다.

2012년에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에 근거한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이민정책의 세계적인 흐름, 정책 관련 국민적 인식을 검토한 토대로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2017년까지 5년간 추진될 예정이다³²⁾. 이와 같이 한국은 외국인 유입 초기에는 단기체류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정책의 중심이 되었고, 이후 결혼이주자의 유입 및 이주의 다양화로 인한 사회통합과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이 정책의 주요내용이 되어왔다.

이러한 외국인 관련 정책에는 국내 여러 부처와 기관이 관여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외국인정책을 총괄하면서 국적과 이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

32) 정기선 외, 2011,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주요 정책의제 연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pp. 1-2.

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이주여성의 사회적응과 다문화가족 생활지원 및 복지와 인권에 관계된 정책에 관여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적 다양성의 이해를 증진하고 이주자들의 문화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예술, 체육, 관광 등의 영역에 관계되어 있다. 그밖에도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자치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외국인 인구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대응책과 계획을 각각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처 간 조정 기능이 미흡하여 통합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어 체계적이고 일관된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 거주 등록외국인들을 체류목적에 따라 살펴보면 비전문직 이주자, 결혼이주자, 유학생, 전문직 이주자 등이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 외에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난민 등이 소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비전문직 이주자는 전체 등록외국인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혼이주자는 13%, 유학생은 9%, 전문직 이주자는 4%를 차지하여 전체의 76%에 달한다. 한편 2000년대 이후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정책과 다문화 관련 법이 실행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다문화정책이라 함은 국내 유입된 모든 외국인들이나 혹은 외국인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전문직 이주자들이 마땅히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정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이들 여성과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한국사회에 동화시킬 것인가를 논의하는 차원에서 수립되어 왔다.

초기 외국인의 국내취업은 해당 직종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특정 직종의 전문기술인력에 한하여 허용되어 왔다. 1991년 실시된 해외투자업체연수 제도는 해외투자기업이 해외 법인의 외국인근로자를 국내에 초청하여 일정 기간 연수를 시키면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한국의 초기 외국인력제도이다. 1993년에는 이보다 도입 규모가 큰 외국인산업연수제도가 실시되었다. 이 둘을 합쳐서 외국인연수생제도라고 하는데, 국내·외에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³³⁾. 즉, 저임금과 강제 노동, 산업재해, 폭언과 폭행 등 노동자 인권 침해와 차별로 인해 이에 대한 폐지가 논의되다가 2003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년 뒤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가 시행되었다.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제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도입한 제도였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정주(定住)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되 1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본국으로 귀환시키고 다시 새로운 노동자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이었다. 단,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도입으로 인한 내국인 노동자들의 취업기회 감소를 방지하고자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 노력을 병행해야 하며,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이 고용허가제의 요지였다³⁴⁾. 외국인들의 정주화와 더불어 가족들의 동반거주를 허용하게 되면 사회간접비용이 증가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정주를 방지하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최초로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2004년 이후로 3년 체류가 만료된 시점인 2007년에 재고용 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으로 출국하여 1개월 후 다시 입국하면 3년 체류기간을 다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9년에는 이러한 재고용 제도를 체류기간 3년에서 확대하여 출국없이 연속으로 4년 10개월로 확대하였는데, 그 배경은 5년을 연속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경우 영주권 신청 및 일반 귀화 신청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2011년에는 성실 근로자 재고용 제도가 도입되어 재고용 계약이 체결된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애초에 의도했던 단기 순환의 제한 기간인 3년

33) 설동훈, 2007, “국제노동력이동과 외국인노동자의 시민권에 대한 연구: 한국, 독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7(2), pp. 387-391.

34) 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허가제, <https://www.eps.go.kr/eo/EmployPerSystem.eo>

보다 무려 3배 이상의 장기 체류가 가능해졌다³⁵⁾.

이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져 내국인 구인 노력 조항이 고용허가제에 추가되었는데, 사업장은 최소 3일간 구인 공고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요체였기 때문에 다소 유명무실한 조치라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고용허가제의 운영 및 고용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인 고용노동부와 산하 고용센터가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 제한을 목적으로 하여 관리·감독한다는 비판도 존재해왔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방문취업제는 구소련 및 중국 동포들에게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취업자격을 부여하였는데, 2015년 기준 체류자격으로 보면 비전문취업자(E-9 비자) 276,042명보다 많은 수인 285,342명의 방문취업자(H-2 비자)들이 사업장 변경의 제한 없이 체류하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들을 제외동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2001년 11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거주국 동포 간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02년 취업관리제와 2007년 방문취업제를 도입하게 된 것인데, 이로 인해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들의 자유왕래와 국내 취업이 확대 허용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만 사업장 변경을 억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한국을 포함해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는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의 유럽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이 자유로운 노동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근로자 중심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³⁶⁾. 또한 비전문직 이주자들이 사회적

35) 노용진, 이규용, 2012,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 실태 조사분석 및 개선방안,” 지식경제부 수탁연구과제, pp. 15-16.

36) 김기돈,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10년, 왜 만신창이가 됐나」, 프레시안, 2014. 8. 17.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어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되기 쉽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세부적인 정책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의 고용허가제는 매년 도입 근로자의 체류자격별, 업종별 인원을 배분하는 쿼터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2016년의 경우 제조업에는 44,200명, 건설업 2,500명, 서비스업 100명, 농축산업 6,600명, 어업 2,600명 수준으로 전체 58,000여명 도입을 계획하였다. 2004년 신규 도입되었던 인원은 41,000여명이었고 매년 직종별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인력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쿼터 인원을 조정해왔는데, 오늘날 국내 노동시장에서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 및 소규모 농업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고용허가제는 3년의 체류 기간을 허용하고 이 기간이 끝난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고용주가 원하는 경우, 재계약을 하고 출국 후 1개월 내에 재입국할 있도록 관련 법령이 수정된 바 있는데, 이것이 실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가에 따라 미등록체류자의 증감이 있다.

미등록체류자는 이와 같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취업자격을 유지하거나, 명시된 체류 자격 이외의 취업활동을 하거나, 밀입국 등 출입국법을 위반하여 강제 퇴거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 노동자를 가리킨다³⁷⁾. 이들을 관용적으로 ‘불법 이주노동자(illegal migrant workers)’라고 불러왔지만, 오늘날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존재 자체를 불법과 합법으로 규정할 수 없고, 단지 출입국상 불법 신분인 이주노동자를 불합리하게 범법화시킨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에서는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지만, 오랜 이민국가로 알려진 미국에서는 불법과 미등록(illegal vs. undocumented) 용어 사용에 대한 논란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고, 국제연합(UN) 및 국제노동기구(ILO)는 ‘불법이주자’라는 용어 대신 ‘비정규 이주(irregular migration) 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undocumented

37) 신지원, 2007, “영국의 이주노동자 정책,” 국제노동브리프, 5(8), p. 30.

migrant worker)라는 표현을 권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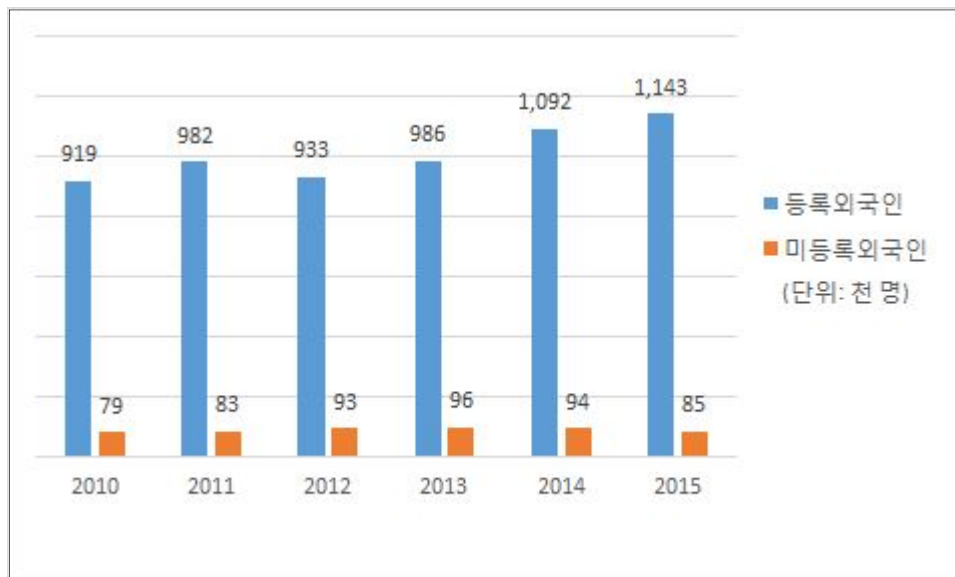


그림 1. 등록외국인 중 미등록체류자 현황(2010-2015)

표 4. 등록외국인 중 미등록체류자의 체류자격별 현황(2015)

(단위: 명)

계	유학 (D-2)	일반연수 (D-4)	비전문취업 (E-9)	방문동거 (F-1)	거주 (F-2)	방문취업 (H-2)	기타
84,969	1,509	3,885	48,157	3,359	5,967	4,873	17,219

출처: 201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p. 78.

본 연구는 이주자의 존재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할 소지가 있는 ‘불법체류자’ 대신 ‘미등록 이주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아서 미등록 체류자로 분류되는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6년간 평균 9%의 미등록체류율을 나타내었다. 체류자격별로는 고용허가제 하에서 입국한 비전문취업(E-9) 자격의 미등록체류자가 48,157명(56.7%)으로 다수를 차지한다³⁸⁾.

3. 선행연구 고찰

한국의 외국인 관련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에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외국인 인구의 급증과 더불어 ‘다문화’라는 주제에 대한 접근에서 연구가 비롯되었지만, 다문화라는 용어의 정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어 사용에 대한 공식적 규정도 존재하지 않았다. 더욱이 공간적, 지역적 관점은 결여된 채, 대부분이 행정적, 사회 문화적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2000년 대 중반 이후 각종 통계자료를 기초로 외국인의 추이와 변화에 대한 현황 파악과 실태 분석이 이루어졌고, 공간 분포에 대한 연구들도 다수 발표되었다.

한국의 외국인의 공간분포 혹은 밀집거주지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전국 혹은 수도권 또는 서울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고, 공간적 범위로는 시·군·구 혹은 읍·면·동의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국적별 연구가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외국인 이주자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서울 및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고 전체 외국인에서 비전문직 이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 존재하였지만, 연구대상 지역에 있어 전국 혹은 서울을 제외한 도시를 대상으로 하거나 체류자격면에 있어서도 결혼이주자, 유학생, 전문직 외국인 등 외국인의 체류유형에 따라 다양화되어 가는 경향도 보여 왔다.

표 5. 외국인 이주자들의 공간적 분포에 관한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대상 및 범위	특징
Frey (1995)	미국 45개 대도시권	인종별 인구 증감, 소득, 교육수준 비교 분석
Newbold	미국 25개 대도시권	1980-90년대 이민자 집단의 대도

38) 201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pp. 77-78.

(1999)		시 정착 패턴 분석
정연주 (2001)	서울, 인천, 부천 거주 외국인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공간분포 분석
강민조 (2003)	서울 거주 외국인	외국인 출신국가별 공간분포 및 경관특성 분석
손승호 (2008)	서울 거주 외국인	외국인 출신국가별 공간분포 변화 및 상관분석을 통한 주거지 분화 분석
박세훈 외 (2009)	전국 시·군·구 거주 외국인	외국인 유형별, 국적별 공간분포 분석 및 밀집지역 사례분석
임석희, 송주연 (2010)	전문직 이주자	전문직 이주자들의 출신국가별 공간분포 분석
김희철, 안건혁 (2011)	수도권 시·군·구 거주 전문직 및 비전문직 이주자	외국인 유형별 공간분포와 거주지 선택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이진영 (2011)	수도권 거주 외국인	외국인 공간분포 및 영향요인 분석
김경민 (2012)	서울 거주 외국인	외국인 밀집지역 입지특성 및 내국인 주민의식 분석
이정아 (2013)	전국 148개 시와 자치구	도시지역 외국인의 공간분포와 거주지 선택 요인 분석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이민국에서는 이민자들의 공간분포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일찍부터 소개되었는데, 프레이(Frey)³⁹⁾는 미국 45개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인종, 소득, 교육수준별로 각 도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이 백인의 교외화 및 대도시권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뉴볼드(Newbold)⁴⁰⁾는 1980-90년대 미국의 25개 대도시로 이주한 이민자 집단의 5% 표본으로 정착 패턴을 분석하였다. 20년간 이주민의 정착 패턴 변화는 크지 않지만, 거주기간 효과, 영어습득수준 효과, 시민권 취득 효과, 고용기회 등이 거주지역 결정에 영향력 있

39) Frey, H. W., 1995, Immigration and internal migration 'flight' from U. S. metropolitan areas: Toward a new demographic Balkanisation, *Urban Studies*, 32(4-5), pp. 733-757.

40) Newbold, K. B., 1999, Spatial distribution and redistribution of immigrants in the metropolitan United States, 1980 and 1990, *Economic Geography*, 75(3), pp. 254-271.

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정연주의 연구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공간분포에 관한 초기 연구로, 서울시, 인천시, 부천시의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유입 시기별로 비전문직 이주자들의 취업 공간의 분포와 전개 과정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1994-1999년 유입된 비전문직 이주자들은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대구시 등의 섬유·의복제품 제조업과 금속제품 제조업이 집중한 공단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공간적으로 인접한 업체들 간의 외국인 출신국적이 단일화되어 이들의 상호교류와 정보교환이 이루어짐을 유추하였다⁴¹⁾.

강민조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거주 특성을 파악하고 체류자격별, 연령별, 교육수준에 따른 출신국가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의 거주지가 공간적으로는 경기도 북부지역과 경기도 외곽으로 점차 확산되어 가는 것을 파악하였고, 관련 시설에 있어서는 외국인학교, 외국인 전문식당, 외국인 대상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출신국가별 밀집거주지를 형성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⁴²⁾. 이 연구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에 유입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간분포의 초기 연구로 이 당시의 외국인들의 유형 및 밀집주거지 상황은 현재와는 많이 다르다.

손승호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거주지 분포패턴을 분석하고 주거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소수집단의 주거지 분화현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의 주거지는 서울 중심부에서 제조업이 확산되는 외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고, 중국 및 대만 출신의 외국인들이 주거지를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주거지 분화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아시아 출신 외국인들이 밀집된 주거지를 형성하면서 서울의

41) 정연주, 2001, “외국인 노동자 취업의 공간적 전개 과정,” 한국도시지리학회지, 4(1), pp. 27-42.

42) 강민조, 2003, “서울시 외국인 거주에 관한 공간 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주거지 분화를 진전시키는 것으로 분석하였다⁴³⁾.

박세훈 등은 전국의 외국인 밀집지역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도시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외국인의 체류유형별, 출신국가별로 공간분포를 파악하였고 심층면접을 통해 외국인 밀집지역의 유형을 공단배후 노동자주거지, 대도시 저렴주택지, 외국관련시설 주변지역, 전문 인력의 고급주거지 네 가지로 분류하여 각각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의 체류유형별 공간분포는 비전문직 이주자는 산업단지 주변에, 결혼이주자는 전국적으로, 유학생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문직이주자는 대도시 중심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가별 공간분포는 매우 상이한데 한국계 중국인은 서울과 수도권 도시지역에, 중국인 중 유학생과 결혼이주자는 전국에 분산되어 분포하며, 베트남인과 필리핀인은 수도권 외곽과 동남권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분포하는데 이는 비전문직 이주자 및 결혼이주자가 다수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미국인은 전문 인력의 비중이 높아서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⁴⁴⁾.

임석희, 송주연은 외국인 중 전문직 종사자의 추이와 공간적 분포를 분석한 결과, 전문직 외국인들이 수도권과 영남권의 교통축을 따라 분포하고 있으며 서울, 경기, 부산, 인천, 울산, 대전, 대구, 광주의 순서로 도시로 이주하는 전문직 외국인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였다⁴⁵⁾.

김희철, 안건혁은 수도권의 시·군·구 단위에서 전문직 외국인과 비전문직 외국인을 구분하여 공간분포와 주거지 선택에 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비전문직 외국인의 경우 주거환경과 주택가격이 주거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⁴⁶⁾.

43) 손승호, 2008, “서울시 외국인 이주자의 분포 변화와 주거지 분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1(1), pp. 19-30.

44) 박세훈, 이영아, 김은란, 정소양, 2009,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I):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45) 임석희, 송주연, 2010, “우리나라의 외국인 전문직 이주자 현황과 지리적 분포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3), pp. 275-294.

이진영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거주분포 패턴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회귀분석 결과 사업체와 기존 외국인 거주지가 외국인 거주지 분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⁴⁷⁾.

김경민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특성을 알아보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내국인의 주민의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인 집단거주지는 도심에 가깝고 주거비용이 저렴한 곳에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은 주류사회로부터 분리의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밀집지역의 입지요인으로는 종교시설, 근린상업시설, 1인당 거주면적, 버스노선 수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⁸⁾.

이정아는 전국의 도시지역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148개 시와 자치구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이들의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용밀도, 제조·건설업체 수, 전문서비스업 수, 주거지역 비율, 아파트 비율, 대학 수, 1999년 외국인 비율, 수도권 여부와 같은 변수들이 외국인의 거주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⁹⁾.

선행연구들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외국인 관련 초기 연구들은 1990년대 후반 외국인 인구의 급증에 따라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이론적, 현상적 연구에 집중되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 초까지 외국인 외국인의 기초통계 확보가 어려웠고, 이주의 세계화가 한국사회에 도입되는

46) 김희철, 안건혁, 2011, “이주회로별 수도권 외국인 거주지역 공간분포와 영향 요인,” 국토계획, 46(5), pp. 233-248.

47) 이진영, 2011, “수도권에서의 외국인 거주지 분포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8) 김경민, 2012, “외국인 밀집지역의 입지특성과 주민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석사학위 논문.

49) 이정아, 2013, “도시지역의 외국인 거주지 분포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석사학위 논문.

과도기적 시기여서 다문화사회, 다문화주의 등의 개념 정의를 기반으로 하여 외국인 이주자의 동화와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한국에 유입되는 외국인을 정주민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기 체류하는 이방인으로 보는 사회적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성적인 연구는 진행되지 못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전체 외국인 집단보다는 결혼이주자, 전문직·비전문직 이주자, 유학생 등 체류자격별로 구분하거나 출신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들을 사회·공간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실증적 연구들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외국인 이주자들의 이주배경과 모국의 사회·경제적 변화, 국내에서의 정착 및 적응과정, 주거지의 실태, 이주자의 유입으로 인한 도시공간의 변화 및 내국인들의 주민의식 등 외국인과 관련된 연구 주제가 다양하게 확대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와 서유럽 국가에서는 19세기부터 일찍이 외국인 이주민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이와 관련된 연구 또한 오랜 기간 진행되어 왔다. 특히, 소수집단의 거주지 분리현상은 일찍부터 이주가 시작된 북미와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온 주제이다. 유럽에서 1889년 찰스 부스(Charles Booth)가 런던의 타워 햄릿(Tower Hamlets)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공간적 분리를 연구한 것이 가장 체계적인 거주지 분리 연구의 시초라 할 수 있다⁵⁰⁾. 미국에서의 거주지 분리에 대한 논의는 시카고 학파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어니스트 버제스(Ernest Burgess)는 중심지모형(Centric Model)을 통해 도시에서는 사회·경제적 격차로 인해 토지이용에 편차가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도심을 중심으로 한 동심원 형태로 지역이 분화되어 계층 간 주거지분화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하였다⁵¹⁾. 로버트 파크

50) Booth, C., 1889, *Life and Labour of the People in London*, Vol. I, Lulu Press, London.

51) Burgess, E. W., 1925, *The Growth of the City: An Introduction to a Research Projec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Robert E. Park) 등은 거주지 분리의 현상적 관찰을 침입과 천이의 생태학적 구조로 분석, 발전시켜 거주지 분리가 모든 도시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진화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았다⁵²⁾.

표 6. 외국인 이주자들의 거주지 분리에 관한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대상 및 범위	특성
Duncan & Duncan (1955)	N/A	거주지 분리지표로 상이지수 개발
Massey & Denton (1988)	미국 60개 대도시통계지구 거주 3개 소수집단	거주지 분리지표로 5개 지표 제시
White (1983)	미국 17개 SMSA 거주 비백인	집단들 간의 근접성을 근거로 거주지 분리 측정
Morrill (1991)	N/A	공간경계정보를 반영한 변형된 상이지수 제시
Wong (1993)	N/A	경계선 비율로 가중치 부여하는 수정된 상이지수 제시
최은영 (2003)	N/A	상이지수 간 비교 및 공간지수 방법론 소개
신인철 (2007)	경기도 시·군 거주 외국인	외국인의 출신국가 및 체류유형에 따른 거주지 분리를 상이지수로 분석
이상일 (2007, 2008)	N/A	공간분리성 측도와 통계적 검정법 개발
박윤환 (2010)	수도권 읍·면·동 거주 외국인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 상이지수로 분석
최은진, 김의준 (2011)	서울시 구 거주 비전문직 외국인	비전문직 외국인의 출신국가에 따른 거주지 분리 5개 지표로 분석
하성규, 마강래, 안아림 (2011)	서울시 구·동 거주 외국인	외국인의 국적별, 체류자격별 군집분석 및 상이지수 분석
임현철, 박윤환 (2014)	전국 읍·면·동 거주 외국인주민	외국인주민의 거주지 분리 3가지 지표로 분석

52) Park R. E., McKenzie, R. D., Burgess, E., 1925, *The City: Suggestions for the Study of Human Nature in the Urban Environmen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거주지 분리의 원인에 있어서는 미국과 유럽이 견해의 차이를 보이는데, 미국 도시들에 대한 연구는 ‘선호(preference)’와 ‘차별(discrimination)’이 거주지 분리현상을 발생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본다⁵³⁾. 여기에서 ‘선호(preference)’라는 것은 두 가지 형태를 가지는데, 첫 번째는 소수집단이 서로 근린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는 자발적 선택에 의해 거주지 분리가 발생한다는 주장이고, 두 번째는 다수집단의 선호가 이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가령 미국 도시들에서 백인 중산층은 일정 임계치(tipping point) 이상으로 인종이 다양화되면 그 지역을 이탈하여 교외로 이주해 나감으로서(white flight) 기존의 백인 근린지역은 흑인 근린지역으로 변천된다는 주장이다. ‘차별(discrimination)’ 관점은 주택시장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대출기관, 부동산 감정사 등에 의해 제도적인 차별이 발생하며 거주지 분리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⁵⁴⁾. 이에 반해, 유럽의 연구는 거주지 분리에 있어 차별보다는 이민자들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과 문화적 차이 및 로컬 주택시장의 구조가 거주지 분리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보았다⁵⁵⁾. 즉, 북미와 유럽

53) Clark, W. A. V., 1991, Residential preferences and neighborhood racial segregation: A test of the schelling segregation model, *Demography*, 28(1), pp. 1-19.

Clark, W. A. V., 1992, Residential preferences and residential choices in a multiethnic context. *Demography*, 29(3), pp. 451-466.

Farley, R., Schuman, H., Bianchi, S., Colasanto, D., & Hatchett, S., 1978, Chocolate city, vanilla suburbs: Will the trend toward racially separate communities continue?, *Social Science Research*, 7, pp. 319-344.

Farley, R., Steeh, C. G., Krysan, M., Reeves, K., & Jackson, T., 1994, Stereotypes and segregation: neighbourhoods in Detroit area,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3), pp. 750-778.

South, S. J., Crowder, K. D., 1997, Escaping distressed neighborhoods: Individual, community, and metropolitan influenc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2(4), pp. 1040-1084.

54) David H. K., Steven R. H., James O. W., 2014, *Urban Geography*, John Wiley & Sons, Inc., New Jersey. (김학훈, 이상울, 김감영, 정희선 역, 2016, 도시지리학, 시그마프레스, pp. 260-261)

55) Musterd, S., 2005, Social and ethnic segregation in Europe: Levels, causes, and effects, *Journal of Urban Affairs*, 27, pp. 331-348.

Musterd, S., de Vos, S., 2007, Residential dynamics in ethnic concentrations, *Housing Studies*, 22(3), pp. 333-353.

Simpson, L., 2004, Statistics of racial segregation: Measures, evidence and policy, *Urban*

도시들에서 보여 지는 거주지 분리현상은 이민자들의 특성, 역사적 배경 및 지역별 상황에 따라 상이함을 짐작할 수 있다. 백인과 흑인의 인종차별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사회는 거주지 분리의 심화가 슬럼(slum)이나 게토(ghetto)를 만들어내고, 사회적 소수집단에게는 일자리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하여 사회적 충돌과 갈등을 양산한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기반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⁵⁶⁾.

거주지 분리를 측정하기 위한 정량적인 방법론은 던컨과 던컨⁵⁷⁾, 메시와 텐톤⁵⁸⁾, 윙⁵⁹⁾ 등에 의해 연구 개발되었다⁶⁰⁾. 던컨과 던컨의 상이지수가 대표적인데, 이들은 ‘유색인 비중지수(Non-White Section Index)’를 통해 미국사회에 나타나는 흑인과 백인의 인종 간 거주지 분리현상을 분석한 바 있다⁶¹⁾. 메시와 텐톤은 상이지수를 포함하는 거주지 분리 지표를 5개로 구분하여 정량화하였는데 이들 역시도 미국 사회에서 인종적 소수자인 흑인들의 거주지 분화 현상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⁶²⁾. 이들의 연구는 미국사회의 인종별 거주지 분리 연구를 최초로 계량화된 방법으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상이지수는 공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공간성(aspatial)의 한계가 지적되었다. 이후, 화이트⁶³⁾, 모릴⁶⁴⁾, 윙⁶⁵⁾을 비롯한 여

Studies, 41(3), pp. 661-681.

Kempen, R., Ozuekren, A. S., 1998, Ethnic segregation in cities: New forms and explanations in a dynamic world, *Urban Studies*, 35(10), pp. 1631-1656.

56) Massey, D. S., Denton, N. A., 1993, *American Apartheid: Segregation and the Making of the Underclass*,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Fortuijin J. D., Musterd, S., Ostendorf, W., 1998, International migration and ethnic segregation: impacts on urban areas, *Urban Studies*, 35(3), pp. 367-370.

57) Duncan, O. D., Duncan, B., 1955, A methodological analysis of segregation index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0(2), pp. 210-217.

58) Massey, D. S., Denton, N. A., 1988, op. cit.

59) Wong, D. W. S., 1993, Comparing traditional and spatial segregation measures: A spatial scale perspective, *Urban Geography*, 25(1), pp. 66-82.

60) Tammaru, T. et al., 2015, A multi-factor approach to understanding socio-economic segregation in Europe capital cities, *Socio-economic Segregation in European Capital Cities: East meets West*, Routledge, London, pp. 3-4.

61) Duncan, O. D., Duncan, B., 1955, op. cit.

62) Massey, D. S., Denton, N. A., 1988, op. cit.

러 연구들은 상이지수에 공간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하였는데, 이 중 화이트는 공간적으로 인접한 두 집단 간의 군집성의 차이를 지표화하여 공간적 군집성을 나타냈다. 모릴은 거주지 분리의 정도가 각 인구집단들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다는 가설 하에, 지역들 간의 공유된 경계를 변수로 설정한 수정된 상이지수(D_{adj})를 개발하였고, 웡은 이에 더하여 지역들이 공유하는 경계의 길이를 변수로 설정한 공간가중행렬(spatial weight matrix)을 이용하여 새롭게 수정된 상이지수(D_w)를 제시하였다. 상이지수 자체는 거주지 분리를 측정하는데 있어 비공간성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발전하면서 하위지역을 포함하는 상위지역의 거주지 분리를 측정하는데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의 외국인 이주자들의 거주지 분리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연구는 다문화사회 담론이 형성된 지난 20여 년간, 급증하는 외국인의 인구에 비해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최은영⁶⁶⁾, 신인철⁶⁷⁾, 이상일⁶⁸⁾ 등은 거주지 분리에 대한 초기연구에 해당하는데, 이 중에서 신인철은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인구통계를 이용하여 거주지 분리지수를 측정한 국내 최초의 연구로 외국인의 출신국적 및 체류유형에 따른 거주지 분리현상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경기도의 시·군을 단위 지역으로 설정해 공간적 분석단위가 광범위하

63) White, M. J. 1983, The measurement of spatial segreg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8(5), pp. 1008-1018.

64) Morrill, R. L., 1991, On the measure of geographic segregation, *Geography Research Forum*, 11, pp. 25-36.

65) Wong, D. W. S., 1993, op. cit.

66) 최은영, 2003, “거주지 분리 연구의 비공간적 전통을 넘어: 공간지수를 중심으로,” *지리교육논집*, 47, pp. 23-35.

67) 신인철, 2007, “외국인의 국적별 거주지 분리: 경기도 및 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회*, 2007년 후기학술대회논문집, pp. 37-62.

68) 이상일, 2007, “거주지 분화에 대한 공간통계학적 접근(I): 공간 분리성 측도의 개발,” *대한지리학회지*, 42(4), pp. 616-641.

———, 2008, “거주지 분화에 대한 공간통계학적 접근(II): 국지적 공간 분리성 측도를 이용한 탐색적 공간데이터 분석,” *대한지리학회지*, 43(1), pp. 134-153.

다는 점에서 로컬 수준의 거주지 분리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상일은 공간적 분리지수들이 지속적으로 공간의 특성을 포함하는 정량화된 지표로 발전해왔지만 모든 한계를 극복한 단일의 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공간 분리성 척도와 통계적 검정법을 개발하여 이를 한국 7대 도시의 학력집단 간 거주지 분리현상에 적용하였다.

이후 박윤환⁶⁹⁾, 최은진, 김의준⁷⁰⁾, 하성규, 마강래, 안아림⁷¹⁾, 임현철, 박윤환⁷²⁾ 등이 전국, 수도권, 서울 등을 대상으로 등록외국인 혹은 외국인주민의 거주지 분리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박윤환은 수도권의 외국인 거주지 분리 연구를 상이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외국인 비율과 거주지 분리지수를 상호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외국인 인구비율과 거주지 분리지수는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박윤환의 연구는 외국인을 동일 집단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외국인 이주자들 간의 특성은 반영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은진, 김의준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외국인의 출신국가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여 거주지 분리현상을 분석하고, 저기술 제조업 종사자 및 사업체의 공간 분포를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의 분포와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가 선진국 출신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하였고, 서울시의 제조업의 분포와 개발도상국 출신 이주자의 거주패턴과는 큰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아서 근무지 외의 다른 변수들이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외국인의 출신국가를 크게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메시와 텐톤이 제시

69) 박윤환, 2010, “수도권 지역 외국인들의 거주지 분리에 대한 연구,” 행정논총, 48(4), pp. 429-453.

70) 최은진, 김의준, 2011, “출신국적에 따른 서울시 외국인 이주자의 거주지 분리,” 도시행정학보, 24(4), pp. 85-107.

71) 하성규, 마강래, 안아림, 2011, “서울시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적 분리패턴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12(3), pp. 91-105.

72) 임현철, 박윤환, 2014, “외국인 주민의 거주지 분리에 대한 공간적 패턴: 탐색적 공간자료 분석의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한 5개 분리지표를 모두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공간적 범위가 서울시로 한정되었고 제조업이 미약한 지역에서 외국인 거주지와 제조업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하성규, 마강래, 안아림은 서울시 외국인의 국적별, 체류자격별 특성을 각 구별로 군집 분석하여 각 구별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 정도를 상이지수를 통해 파악하였다. 임현철, 박윤환은 안전행정부⁷³⁾가 발표하는 전국의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거주지 분리지표를 측정하였다. 메시와 덴튼이 제시한 5개 분리 지표 중에서 균일성, 군집성, 집중성 세 가지를 분석하여 각각 분리의 지표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들을 지도화하였다. 임현철, 박윤환의 연구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외국인주민’의 거주패턴을 전국 수준에서 탐색하여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패턴이 영남권 등 일부 지방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였다.

국제이주가 가속화되면서 오늘날의 거주지 분리는 공간적·사회적·경제적 차별과 매우 강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외국인 이주자들의 거주지 분리는 소수인종 혹은 민족, 국적에 따라 거주 분포가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고 특정 지역에 고립된 현상으로 동화에 실패한 결과로 인식되며 사회적 약자 즉, 소수자들이 공간을 형성해가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단위지역 내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다는 것이 반드시 외국인이 분화 혹은 격리되어 거주함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대상 지역이 국소적일 경우나 해당 지역의 경관이나 산업적, 인구적 특성이 타 지역에 차별성을 가질 경우, 외국인이 어떤 장소에 집중해서 거주하고 있는 현상은 사회적 차별 혹은 고립을 함의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 분리는 사회·경제적 차별과 관련지어 해석된다.

73) 안전행정부는 2015년 9월 22일 행정자치부로 변경됨.

4. 해외 대도시 사례 연구

대서양을 사이에 둔 북미와 유럽은 지난 수십 년간 빈번히 이루어진 국제 이주로 인해 인종적 다양성 및 사회적·공간적 변화를 앞서 경험하였고, 거주지 분리와 외국인 밀집지역(ethnic enclaves)으로부터 양산된 다수집단과 소수집단 간의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⁷⁴⁾는 일찍부터 여러 학문분야에서 논의되어 온 주제이다. 전통적인 이민국가인 미국에서의 다문화주의는 인종적 문제, 특히 백인과 흑인의 분리가 사회적 분화로 같듯이 심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인종의 다양성으로 풀어가려는 노력이 있었고, 미국보다는 분화의 정도가 낮은 영국에서의 다문화주의는 인종문제 해결이나 사회통합을 위한 주택, 교육, 복지 등의 제공보다는 소수집단의 문화적 정체성 특히 무슬림의 문화를 인정해줄 것인지에 대한 맥락에서 정치적 쟁점이 되어 왔다. 이와 비교해, 다문화 현상의 후발주자인 한국은 유입되는 이주자들의 국적별, 체류자격별 분화를 사회통합으로 이끌어가려는 시도를 해왔다고 볼 수 있다⁷⁵⁾.

2015년에 발표된 미연방센서스국의 지역사회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 ACS) 2010-2014 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2만 명 이상인 미국 대도시 52개를 분석한 결과, 인종별 거주지 분리 현상이 뚜렷한 도시는 위스콘신 주 밀워키, 뉴욕시, 일리노이 주 시카고, 미시건주 디트로이트,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뉴욕 주 버펄로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대도

74)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는 1980년대 초반 미국에서 독성 폐기물 처분장 입지를 둘러싸고 유색인종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출현한 풀뿌리 환경운동으로, 처음 제기된 이후 학술적 담론의 대상을 넘어 공공정책의 의제로 다루어져 왔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 미국의 환경정의 운동이 소개되었고, 사회학, 지리학, 행정학, 철학 등의 분야에서 환경문제를 새롭게 조명할 대안적 관점으로 환경정의 이론을 받아들이고 관련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박재복, 2006, “환경정의 개념의 한계와 대안적 개념화,” 환경사회학연구 ECO, 10(2), pp. 76-78.)

75) 금혜성, 임지혜, 2010, “독일, 영국, 한국의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과정 국제비교: 외국인의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와 정책적 배경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3(2), pp. 34-36.

시에서는 도심에 살던 흑인인구가 점차 교외로 이동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이들이 빠져나간 지역에는 백인과 히스패닉계가 유입되고 있다. 또한 백인이 사는 지역에 아시아인들의 유입이 증가한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도심의 흑인거주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집값이 오르고 인종구성의 변화가 온 것일뿐, 인종별 거주지 분리 경향은 여전히 존재하여 특히 흑인의 경우는 밀집거주지를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⁷⁶⁾.

본 논문에서 해외대도시 사례연구 지역으로 선정한 미국의 뉴욕과 영국의 런던은 이민의 역사가 오래된 곳으로, 오늘날 각각의 국가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글로벌 도시이며 인구규모, 밀도, 이민자 수 등이 상호 비슷하다. 반면, 서울은 1990년대 이후에야 비로소 비전문직 이주자와 결혼이주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뉴욕과 런던과 비교할 때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약하다. 한국은 급속하게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지만 인종적, 민족적 소수집단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므로, 한국보다 앞서 인종적 다양성을 경험하고 다문화주의에 대한 담론을 전개해 온 미국과 영국 대도시의 사례는 한국의 이주자들의 공간형성을 이해하는데 함의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76) William H. Frey, 2015, *Census Shows Modest Declines in Black-White Segregation*, Brookings, Washington D. C.

1) 뉴욕

전통적인 이민국가로 알려진 미국은 건국 당시, 영국인, 스코틀랜드인, 아일랜드인 등 영국계 백인이 절대 다수의 인구를 차지하였고 흑인 노예 및 아메리칸 인디언이 그 나머지를 차지하는 이민국가의 형태로 출발하였는데, 오늘날 미국 대도시에서의 흑인과 백인간의 거주지 분리는 인종차별의 역사와 뿌리를 같이 하는 역사적 특수성이 있다. 초기 미국의 이민자 정책은 동화주의에 바탕을 둔 용광로(melting pot)에 비유되었는데, 미국의 동질적 문화에 흡수되도록 이주자들의 암묵적 동의를 요구하였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유럽 이민과 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의 이민은 그 이전 시기와는 달리 사회·문화적으로 더 다양하고 이질적이며 덜 산업화된 이민자들의 대규모 유입으로, 이들은 취업기회가 있는 대도시 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마이애미, 휴스턴, 댈러스, 보스턴, 워싱턴 디씨 등이 대표적인 도시이다. 이민자들의 노동력을 통해 급격한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이루었지만, 사회적 약자인 이들은 다른 인종 집단이나 백인 주류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그들만의 동질적인 커뮤니티, 배타적인 집단거주지를 형성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특히 1965년 이민법 채택 이후 유입된 히스패닉과 아시아계 신이민자들은 미국 주류사회에 적극적으로 동화하려는 기회와 의지를 갖지 못하고 도심부에 문화적, 인종적으로 이질적인 집단 거주지를 형성해왔다. 오늘날 미국 내에서 백인 다음으로 많은 인구는 히스패닉으로 멕시코, 에콰도르, 쿠바, 칠레 등 중남미 출신자를 가리키는데 이들 이민자 집단 간에도 인종별, 민족별로 경제적 격차가 발생하고 거주지 분화 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⁷⁷⁾.

77) 오영인, 2010, “미국 이민연구와 적극적 사회주체로서의 이주자들,” 사림, 36, pp. 354-360.
최재인, 2009, “미국 다문화주의의 역사적 배경,” Homo Migrans, 1, pp. 75-78.

미국에서 수행되는 거주지분화 혹은 분리에 대한 연구는 인종별, 민족별 밀집지역이 환경적으로 정의(environmental justice)롭지 못한 지역에 밀집되면서 사회·경제적인 차별을 유발하고 슬럼화, 게토화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분석한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미국에 처음 유입되는 이주민들은 도심 부근에 밀집지역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지역은 취업기회가 있는 복합용도 구역으로 주택이 비교적 노후하고 서비스 시설이 부족하거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대신 주거비용이 저렴하여 대다수의 초기 이민자들의 정착지가 된다. 반면, 백인들은 다양한 인종의 이주민들이 근린에 거주하지 않고 범죄율이 낮으며 소수집단으로부터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것은 ‘백인 중산층의 교외이주(white flight)’로 설명된다. 이주민들은 유입 시점에는 강한 사회적 네트워크와 저렴한 임대료 기회가 있는 외국인 밀집지역에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되지만, 이후 사회·경제적 상황이 호전되면 자신들의 민족적 집거지를 떠나 좀 더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교외지역으로 이동하는, 백인들과 같은 교외화의 행태를 보이게 된다. 이런 거주지의 교외화 현상은 세대가 지날수록 진전되어서 이민자 2세대, 3세대들은 보다 혼합된 근린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거주지 분화 현상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⁷⁸⁾.

10년마다 행해지는 미국 센서스에 의하면, 2010년 뉴욕시의 전체 인구는 8,175,133명이며, 2015년 7월 기준 추정인구는 8,550,405명으로 약 4.6% 증가를 보였다. 이는 뉴욕시의 특성상, 자연증가보다 해외로부터의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를 상회하면서 전체적으로 뉴욕시의 인구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뉴욕시는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인 인구증가추세를 보였는데 2010년 센서스 기준으로 뉴욕시 인구의 약 56%가 비백인 인구에 해당하여 미국

78) Iceland, J., 2014, Residential Segregation: A Transatlantic Analysis, Migration Policy Institute, pp. 4-7.

최대 규모의 다민족, 다인종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표 7. 뉴욕시의 인구구성 변화(2000-2010)

구분	2000		2010		2000-2010 변화		
	인구(수)	비중(%)	인구(수)	비중(%)	인구(수)	증가율(%)	
합계	8,008,278	100.0	8,175,133	100.0	166,855	2.1	
비 히 스 패 닉	백인	2,801,267	35.0	2,722,904	33.3	-78,363	-2.8
	흑인	1,962,154	24.5	1,861,295	22.8	-100,859	-5.1
	아시아인	780,229	9.7	1,028,119	12.6	247,890	31.8
	인디언	17,321	0.2	17,427	0.2	106	0.6
	하와이인	2,829	0.0	2,795	0.0	-34	-1.2
	기타 인종	58,775	0.7	57,841	0.7	-934	-1.6
	다인종	225,149	2.8	148,676	1.8	-76,473	-34.0
히스패닉	2,160,554	27.0	2,336,076	28.6	175,522	8.1	

출처: NYC 2010 Result from the 2010 Census, Population Growth and Race/Hispanic Composition, NYC Planning

주: 인종 구분은 다음의 정의에 따름 - 백인(White), 흑인(Black/African American), 아시아인(Asian), 인디언(American Indian & Alaska Native), 하와이인(Native Hawaiian & Pacific Islander), 기타 인종(Some Other Race), 다인종(Two or More Ra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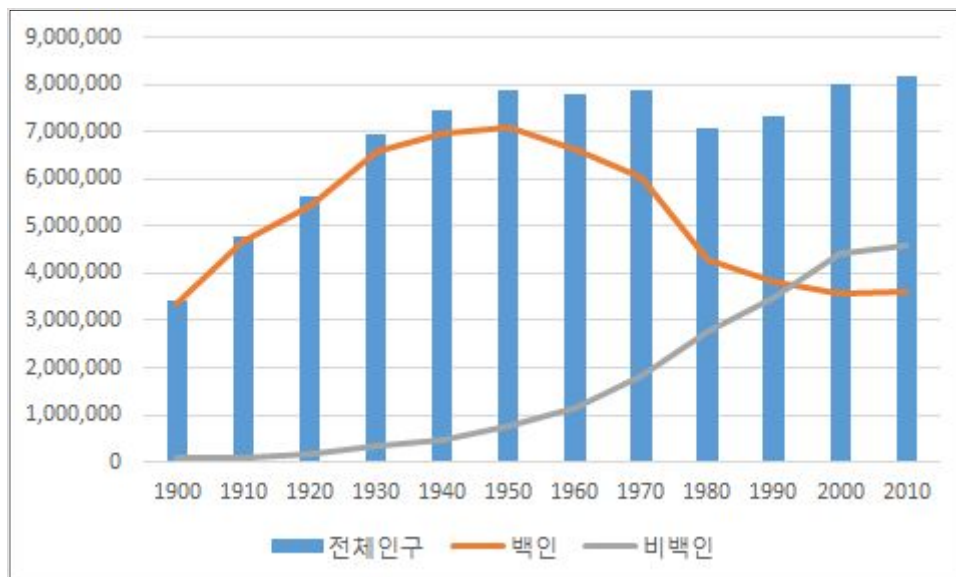


그림 2. 뉴욕시의 인구구성 변화(1900-2010)

출처: U. S. Census Bureau(<https://www.census.gov>)

뉴욕시의 다섯 개의 자치구(borough) 가운데 이주민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브롱스(Bronx)로 이주민이 89.1%를 차지하고 있으며, 퀸즈(Queens, 72.4%), 브룩클린(Brooklyn, 64.3%), 맨해튼(Manhattan, 52%), 스테튼 아일랜드(Staten Island, 36%) 순으로 뒤를 잇고 있다⁷⁹⁾.

브롱스는 제일 북쪽에 있는 구로서, 20세기 초에는 이탈리아계, 유대인계 중산층 이주민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으나 1960년대부터 정부가 할렘과 게토 정화작업을 진행하면서 이 지역에 거주하던 흑인, 히스패닉 이민자들을 브롱스로 이주하게 했고 이후 중남미 이민자들도 모여들면서 치안이 불안하고 범죄가 많은 지역으로 남아있다. 퀸즈는 인종적 다양성이 높은 지역인데, 특히 아시아계의 이민자들의 비중이 높고 한인 타운이 크게 형성되어 있다. 각 구의 인종 구성을 살펴보면, 이민자 중에서 뉴욕시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인종은 히스패닉과 흑인으로 각각 28.6%와 22.8%를 차지한다. 아시아인도 12.6%로 2000년에 비해 10년 사이에 2.8%포인트의 증가를 보였다. 브롱스에는 히스패닉(53.5%)과 흑인(30.1%) 인구가 집중 거주하고 있고, 브룩클린에는 흑인(31.9%)과 히스패닉(19.8%), 맨해튼에는 히스패닉(25.4%), 흑인(12.9%), 아시아인(11.2%), 퀸즈에는 히스패닉(27.5%), 아시아인(22.8%), 스테튼 아일랜드에는 히스패닉(17.3%) 등이 각 자치구에 집중 거주하는 비백인 인종집단에 해당된다.

79) U. S. Census Bureau에서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전국인구조사는 응답자들의 출신(origin)을 크게 인종(race)과 민족(ethnicity)으로 구분한다. 인종(race)에는 다시 6가지 세부 항목이 있는데 즉, 백인(White American), 흑인(Black or African American), 아메리칸 인디언(Native American and Alaska Native), 아시아인(Asian American), 태평양 원주민(Native Hawaiian and Other Pacific Islander), 다인종(people of two or more races)이다. 다음으로 민족(ethnicity) 구분에서 히스패닉계(Hispanic or Latino) 혹은 비히스패닉계(Not Hispanic or Latino)로 나뉘어, 응답자는 1개 이상의 인종 및 민족에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구분 방식은 인종, 민족 등의 용어 정의가 분명하지 않고 논쟁의 소지가 있어서 오랫동안 문제제기가 되어 온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에서의 이주민을 인종적 다수인 백인을 제외한 모든 인종적 소수자로 정의한다.

표 8. 뉴욕시의 자치구별 인구구성(2010)

행정구역	백인		인종적 소수자		합계	
	인구(명)	비중(%)	인구(명)	비중(%)	인구(명)	비중(%)
브롱스	151,209	10.9	1,233,899	89.1	1,385,108	100.0
브룩클린	893,306	35.7	1,611,394	64.3	2,504,700	100.0
맨해튼	761,493	48.0	824,380	52.0	1,585,873	100.0
퀸즈	616,727	27.6	1,613,995	72.4	2,230,722	100.0
스태튼 아일랜드	300,169	64.0	168,561	36.0	468,730	100.0
뉴욕시	2,722,904		5,452,229		8,175,133	

출처: U. S. Census Bureau, 2000 and 2010 Census, NYC Planning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주민으로 구성된 뉴욕시 이주자들은 인종별, 민족별로 각 집단 간의 거주지 분화 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으로 보다 안정된 그룹은 이동에 큰 제한을 받지 않아 밀집 지역을 형성하는 정도가 낮다. 따라서 거주지 분화 현상을 뚜렷이 보이지 않는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소수민족 집단일수록 거주지 분화 정도가 높고 특정 공간에 밀집해서 거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백인들은 소수집단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거주지 분화를 여전히 선호하고 자신들이 선주민으로서 차지하고 있는 계층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⁸⁰⁾. 이민자 가운데에서도 흑인과 히스패닉은 상대적으로 저숙련 직업 종사자가 많고 비교적 낮은 학력수준과 경제수준에 처해있는데 반해, 중국, 한국, 인도 등의 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빠르게 주류사회에 편입되어 백인 중산층과 인접한 곳에 주거지를 형성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이주민 집단 내에서도 인종이나 국적에 따라 거주지의 집중과 분리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80) Iceland, J., 2014, op. c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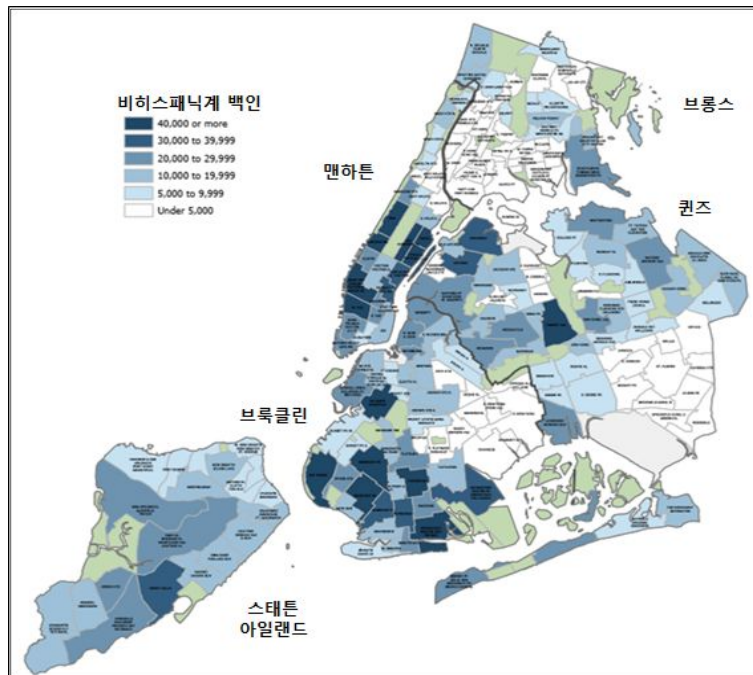


그림 3. 뉴욕시 백인의 거주지 분포(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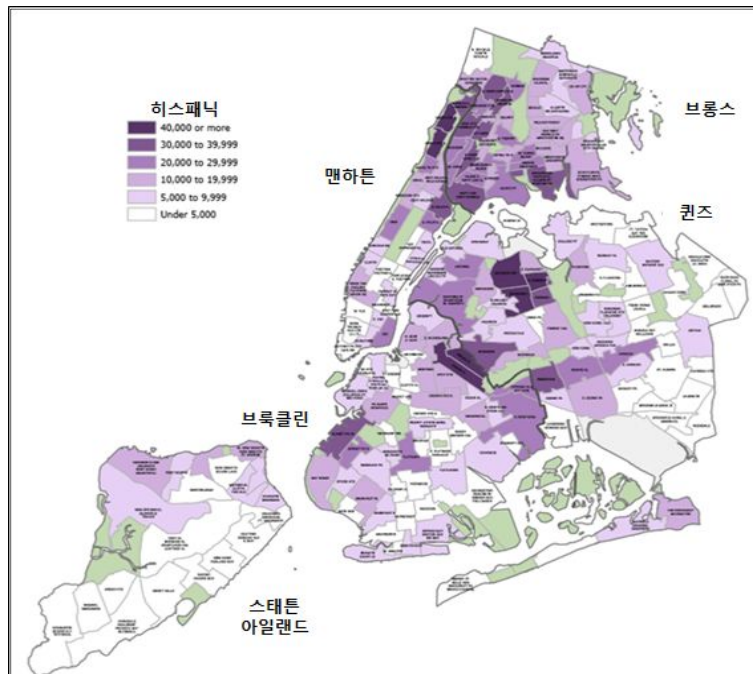


그림 4. 뉴욕시 히스패닉의 거주지 분포(2010)

출처(그림 3-4): U. S. Census Bureau, 2000 and 2010 Census, NYC Plan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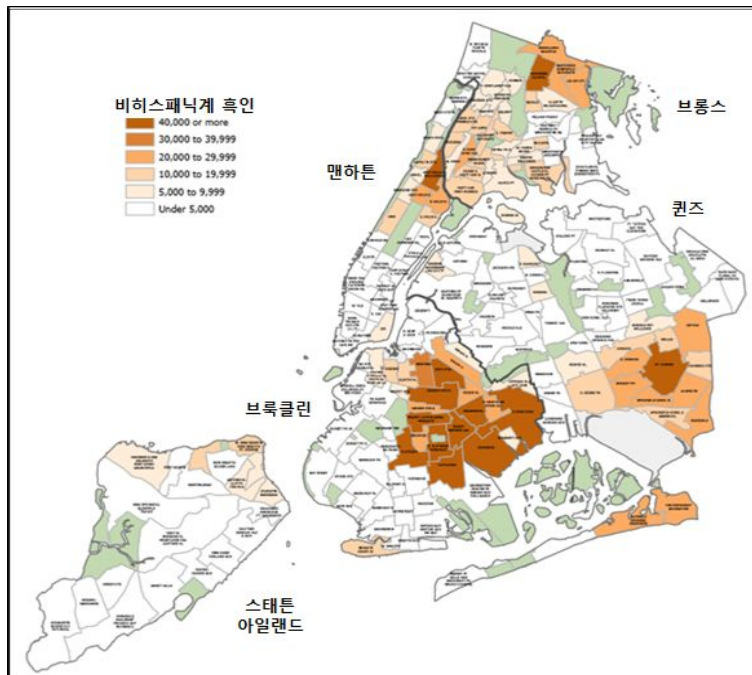


그림 5. 뉴욕시 비히스패닉계 흑인의 거주지 분포(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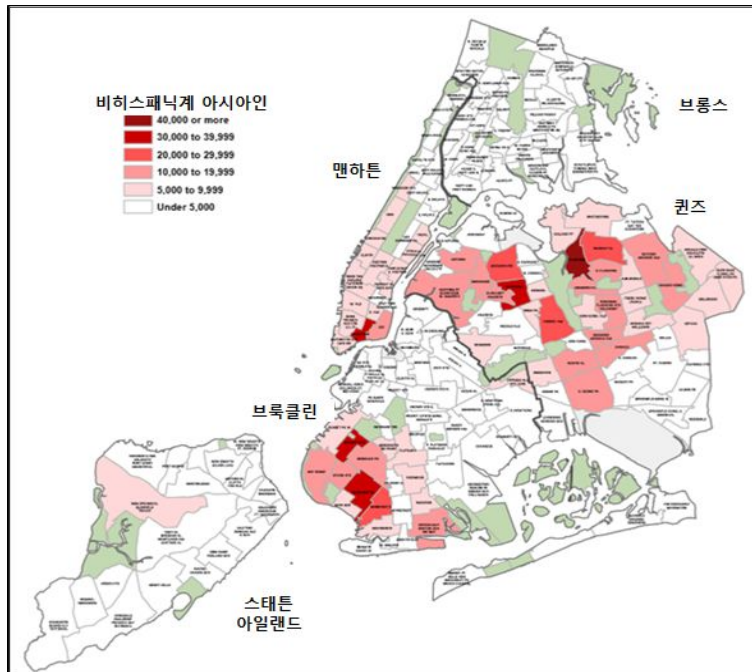


그림 6. 뉴욕시 비히스패닉계 아시아인의 거주지 분포(2010)

출처(그림 5-6): U. S. Census Bureau, 2000 and 2010 Census, NYC Planning

2) 런던

영국⁸¹⁾은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를 가진 전통적인 국민국가로 출발하였으나,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로 인한 노동자의 유입, 그리고 새로운 종교 및 문화의 유입으로 인해 다문화사회로 점차 변모해왔다. 이러한 유형은 건국 초기부터 다양한 인종과 문화로 구성된 이민국가로 출발한 북미와는 구분되는 점이다. 영국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영연방 혹은 구식민지 국가 출신의 이주자들의 거주지가 백인사회와 단절되어 거주지 분리가 뚜렷하게 진행되어 왔다. 런던은 영국 내에서도 가장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특성을 가진 도시로 인구의 유출과 유입이 빈번한 도시이다. 런던 인구의 약 30%는 소수인종(Black, Asian and Minority Ethnic: BAM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의 3분의 1은 해외 출생자이다.

2011년 센서스에 의하면 영국의 전체 인구는 53,012,456명이며, 런던은 8,173,941명으로 전체의 약 15.4%를 차지한다. 영국의 이민자 수는 2011년 센서스 기준, 전체 인구의 약 20.2% 정도이며, 런던은 영국 내에서 해외 출생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해외 출생자는 런던 전체 인구의 37%, 외국 국적자는 24%를 각각 차지한다. 이 중, 백인 이민자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특히 폴란드 출신은 영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이주 노동자들을 대거 받아들이면서 이주가 시작되었다. 이후 문화적, 인종적 동질성을 가진 아일랜드, 폴란드, 불가리아 등지의 유럽인의 이주보다는 예상치 못했던 서인도제도와 인도대륙으로부터의 이주

81) 영국의 공식 명칭은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로 공간적 범위는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등 네 지역으로 구분된다. 이 중 본 논문에서 사용된 영국의 인구통계는 England로 한정한다. 한편 런던은 행정구역 상, City of London과 32개 특별구(borough)를 포함하는 Greater London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도시권역 전체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본 논문에서도 런던의 지리적 범위는 Greater London을 가리킨다.

가 많아서 인종적으로 흑인과 아시아인, 그리고 종교·문화적으로 무슬림, 힌두교도, 시크교도가 공존하는 다양화된 사회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4년 EU의 제5차 확대 이후 중앙 동유럽 8개국으로부터의 이민자들이 급증해왔는데 이들은 주로 건설업, 배관공, 식당 서비스업 등 저숙련 이주노동자에 해당된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런던의 인구는 7,172,091명에서 8,173,941명으로 약 1백만 명(12%)이 증가한 데 반해 백인 인구는 5,103,203명에서 4,887,435명으로 약 4% 정도 감소하였다. 이것은 백인들의 거주교외화(white flight or white avoidance)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런던에 거주하는 백인인구는 59.8%이고 이민자들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⁸²⁾.

표 9. 런던의 인구구성 변화(2001-2011)

구분	2001		2011	
	인구(수)	비중(%)	인구(수)	비중(%)
합계	7,172,091	100.0	8,173,941	100.0
백인	5,103,203	71.2	4,887,435	59.8
아시아인(영국계 포함)	946,894	13.2	1,511,546	18.5
흑인(영국계 포함)	782,849	10.9	1,088,640	13.3
혼혈인	226,111	3.1	405,279	5.0
기타	113,034	1.6	281,041	3.4

출처: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01-2011 Greater London Census

82) Farley, K., 2010, Patterns and trends in ethnic residential segregation in England, 1991-2001: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vestigation, Durham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ology, Ph. D. Thesis, pp. 4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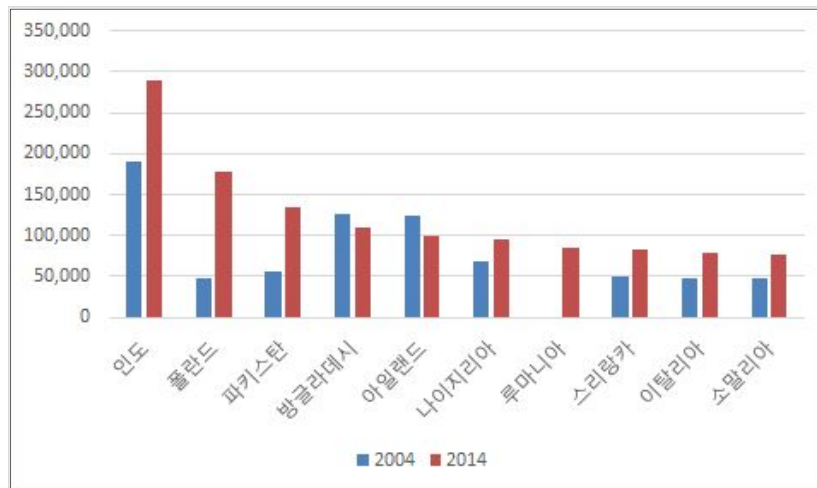


그림 7. 런던의 이민자 출신국적 상위10개국(2004-2014)
출처: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https://www.ons.gov.uk>)

영국의 식민역사로 인해 과거 영연방의 식민지였던 파키스탄인, 방글라데시인들은 카리브 해 출신 이민자들보다 백인 거주지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경향이 있다. 즉, 영국 백인들은 이민자 집단 중에서도 구식 민지 출신 이민자들을 상대적으로 차별하고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뿐만 아니라 이민자에 대한 주택정책과 문화적 전통과 관습이 출신 국가에 따른 거주지 분화에 영향을 주었다. 카리브 해 출신 이민자들은 여성가장 가구의 비율이 높고 공동거주 및 잦은 왕래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집단보다 공영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반대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이민자들은 남성중심의 부계사회로 여성의 사회활동이 비교적 제한되어 있고 동족결혼의 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어서 한부모 가정이나 공동주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주택형태와 거주지 입지를 차별화하는 요인이 되는데, 인도인은 사무직 종사자가 많고 주로 교외지역에 입지하고 있다⁸³⁾.

런던의 무슬림은 뚜렷한 거주지 분리현상을 보이는 인종집단인데, 2011년

83) Farley, K., 2010, op. cit.

센서스에 의하면 파키스탄인은 1,112,282명으로 영국 전체 이주민 인구의 2.1%를 차지하고, 방글라데시인은 436,514명으로 0.8%를 차지한다. 그러나 런던에는 223,797(20.1%)명의 파키스탄인과 222,127(50.9%)명의 방글라데시인이 거주하여 방글라데시인의 런던 거주 집중도가 상대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주로 1960년대 이후의 대이민을 통해 입국한 무슬림 노동자로서 방글라데시인은 주로 식당 근로자로, 파키스탄인은 택시 운전직에 집중해서 종사한다. 파키스탄인이 1960년대 섬유공장 근로자로 노동이민을 오기 시작한 무렵부터 영국의 제조업이 하향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계층에 속하게 된 반면, 1970-80년대 유입된 방글라데시인은 도시 서비스업에 속하는 식당 등에 근로자로 취업하게 되면서 이주자 인구의 절대다수가 런던에 정착하였고 도시임대주택에 거주지를 형성하게 된 것이 서로 상이한 사회·경제적 격차와 거주지 분화를 보이게 된 이유로 볼 수 있다⁸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이민자들의 출신국적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인도 출신이민자가 10만 명가량 증가하였고, 폴란드와 파키스탄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 각각 두 배 이상의 인구증가를 보였다. 반면 방글라데시와 아일랜드 이민자들은 감소하였으며, 루마니아인은 2004년 당시에는 미비한 수준이었으나 급격한 증가를 보여 2014년에는 84,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영국 내 민족 집단의 거주지 분리는 점점 더 복잡한 패턴으로 발전해왔는데, 2011년 런던의 전체 32개 구 가운데 23개 구에서는 이주자의 인구가 백인 인구를 초과하고 있고 백인들은 벅슬리(Bexley)나 브롬리(Bromley) 등 외곽 런던(outer London) 즉, 백인들이 계속 거주해오던 지역에 거주하거나 혹은 시티 오브 런던(City of London)과 해크니(Hackney)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영국에 거주하는 전체 방글라데시인 중에서 약

84) 김성수, 박치완, 2008, “영국의 다문화성향과 다문화주의,” EU연구, 23, pp. 71-75.

51%가 런던에 집중거주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타워 햄릿(Tower Hamlets)에 집중해서 분포하여 여타 민족보다 뚜렷한 거주지 분리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1991년 센서스 이후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유형인데, 파키스탄인, 방글라데시인, 아프리카 및 지중해 출신 흑인 그룹의 거주지 분화는 비교적 분명히 나타나는 반면, 중국인은 거주지 분화 현상을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2001년 대비, 2011년에 중국인 인구 또한 다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은 대학가 주변에서 나타나는 양상으로 이들이 주로 유학생임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런던은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이지만 부의 불균형이 영국 내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극빈층과 저임금가구들이 집중해서 거주하고 있다. 2010년 빈곤지수를 보면 런던 내 33개 자치구 중에서 19개가 영국에서 가장 빈곤한 자치구 50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⁸⁵⁾, 남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타워 햄릿(Tower Hamlets)과 뉴햄(Newham), 흑인들이 집중 거주하는 램베스(Lambeth), 루이스햄(Lewisham), 사우스워크(Southwark), 해크니(Hackney), 해링게이(Haringey), 브렌트(Brent) 등은 이주민의 집중도가 높고 복합빈곤지수 또한 높은 런던의 빈곤지역에 해당되어 이주민의 밀집주거지와 빈곤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85)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Indices of Deprivation 2010,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english-indices-of-deprivation-2010>



그림 8. 런던의 33개 자치구

출처: London Map 360° (<http://londonmap360.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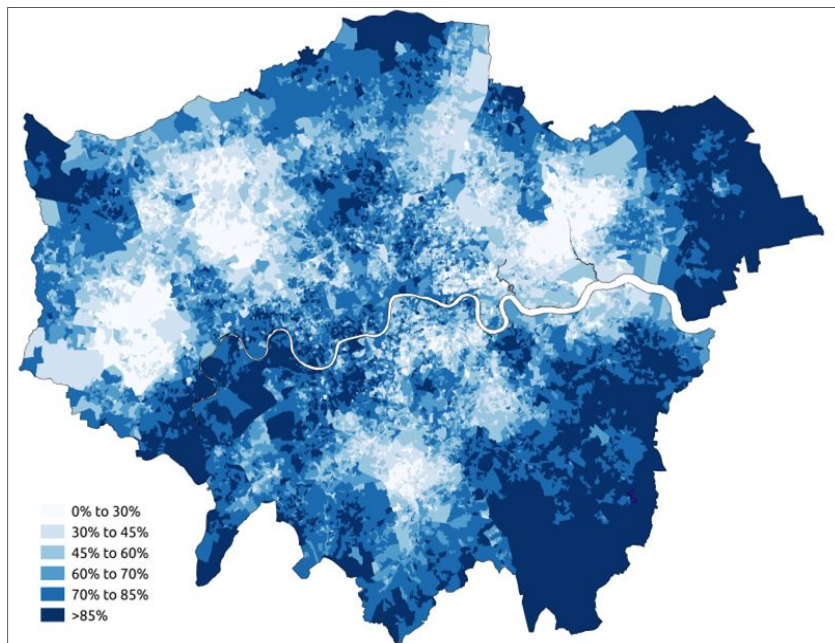


그림 9. 런던의 백인 거주지 분포(2011)

출처: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https://www.ons.gov.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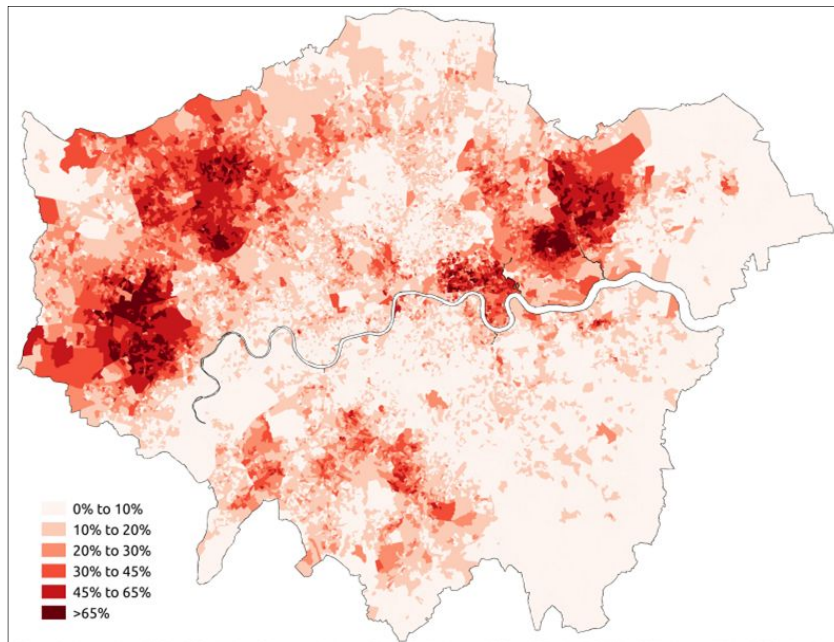


그림 10. 런던의 아시아인 거주지 분포(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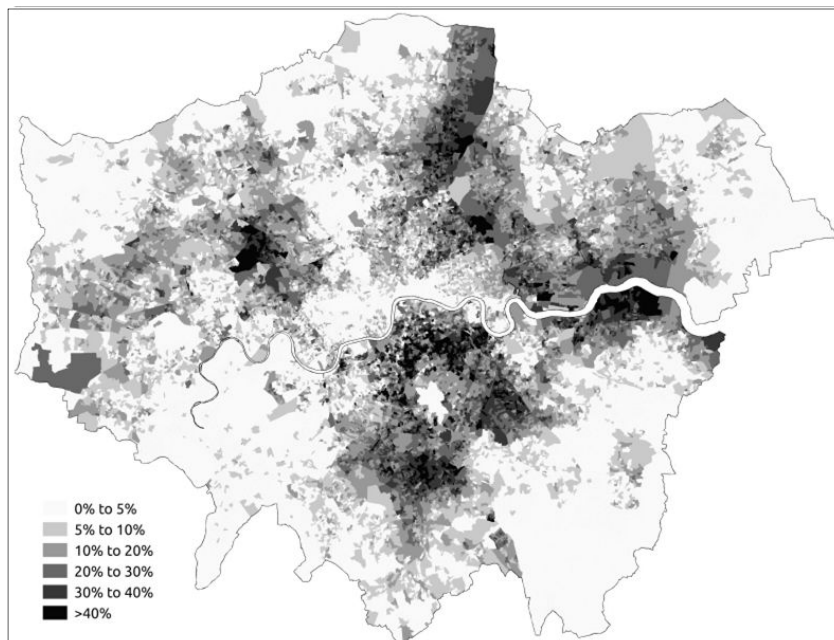


그림 11. 런던의 흑인 거주지 분포(2011)

출처(그림 10-11):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https://www.ons.gov.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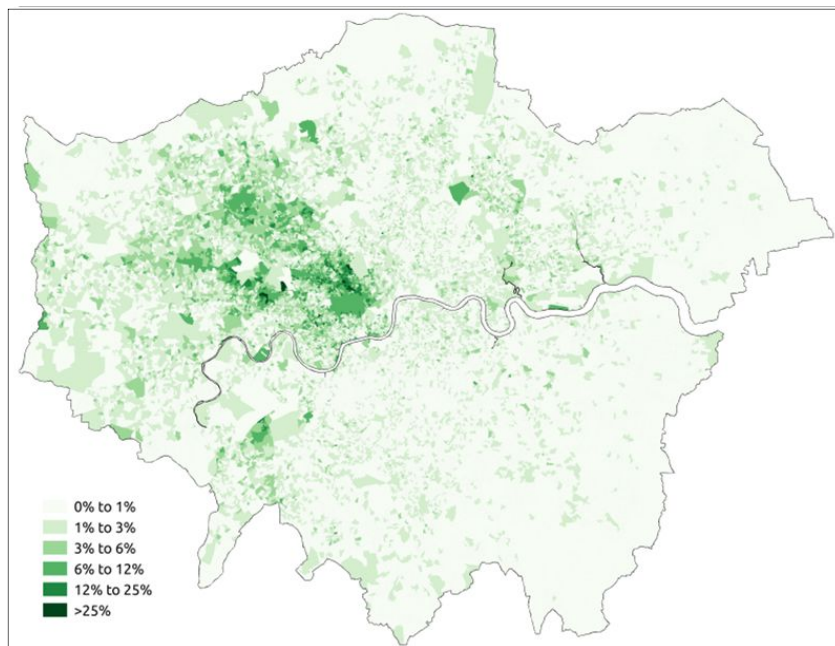


그림 12. 런던의 기타인종 거주지 분포(2011)
출처: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https://www.ons.gov.uk>)

이상 뉴욕과 런던, 두 도시의 이민자들의 공간분포를 비교해보면, 뉴욕과 런던의 이주자들은 제국주의 역사로 인한 식민지 출신 이민자 및 흑인들과 아시아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가 거주지의 분리라는 공간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대도시에서는 외국 문화에 대한 배타적 정체성보다는 자민족 우월적 정체성이 오랜 시간 다져지게 되어, 각각 미국과 영국의 국가정체성 유지를 기반으로 문화다원성이 논의되어 왔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들 글로벌 도시가 가지는 금융, 서비스, 창조산업, 문화산업 등 세계도시로서의 중심적인 지위는 민족과 인종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과정이자 결과이기도 하다. 이민자들의 주요 이주 동기는 노동기회로서 정착 초기단계에서는 동일 국가, 인종 출신의 밀집거주지를 형성한다. 주류사회로부터 배제된 주변인의 위치에 머물며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뉴욕은 아시아인보다 흑인과 히스패닉의 거주지 분리가 더 뚜렷이 나타나는 반면, 런던에서는 흑인보다 아시아인, 특히 남부아시아인의 거주지 분리가 더 분명히 나타난다. 역사적 배경을 근거로 한 이민자의 출신 국가, 민족성, 문화에 대한 선주민의 선호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차별과 배제 등이 거주지 분리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간 뉴욕과 런던의 인종적 다양성은 꾸준히 증대되어 왔고, 인구사회학적 변화가 이들 대도시의 공간적 다양성과 역동성으로 나타났다. 이민자들은 주로 영국과 미국의 대도시 지역으로의 집중되었고, 일자리를 찾아 지대가 좀 더 저렴한 주거지로 이주하는 순환이주가 계속되어져 왔다. 향후 이들 대도시로 향하는 세계 각지의 유색인종 이민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대도시의 인구사회학적 다양성과 도시환경은 큰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III. 외국인 거주지의 형성과 거주 현황

1. 외국인 거주지의 형성과 발달

한국에 외국인 거주지가 밀집되어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는 개항기의 청국인과 일본인의 조계(租界)에 기반한 집거지라고 할 수 있다. 개항 이전 조선에서도 외국인과의 교류는 있었으나, 이들의 국내 거주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고, 외교상의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입국하여 짧게는 4-5일, 장기적으로는 20여일 체류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1876년 일본에 의한 일방적인 한일수호조규(韓日修好條規) 체결로 강제로 문호가 개방되고 일본 공관원들과 가족들이 상주하면서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거주지가 형성되었다.⁸⁶⁾

한국 개항 이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거주한 외국인은 일본인이었는데, 부산, 서울, 평양 등 도시의 개항장(開港場), 개시장(開市場), 개방지(開放地), 잡거지(雜居地) 등을 중심으로 거주지가 점차 발달하여 1910년에 171,543명이었던 일본인의 수가 1915년에는 2배 가까이 증가해서 303,659명에 달했다⁸⁷⁾. 이들은 서울의 충무로와 용산 일대, 부산 중구 광복동 일대, 인천 중구 중앙동 일대, 목포 유달동 일대, 군산 신흥동 일대 등 개항장을 중심으로 시가지를 조성하며 거주지를 형성하였다. 일본인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차지했던 중국인은 1882년 임오군란을 진압하기 위해 파병된 청국의 군대와 군인과 동행했던 군역상인들로 이들은 오늘날 화교의 시초가 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부산, 원산, 인천 등에 거주지를 마련한 이후로 이주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일본의 식민통치가 본격화되면서 그 수는 감소하게 되

86) 서울특별시 서울역사편찬원, 서울600년사, <http://seoul600.seoul.go.kr>

87) 朝鮮總督府調査資料, 第22輯, 朝鮮の人口現象, pp. 103-116.

었다.⁸⁸⁾

광복 이후 국내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은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중국인들은 경제적 기반을 잃게 되면서 화교사회도 크게 위축되었다. 반면, 광복과 함께 들어온 주한미군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미군 부대가 위치한 서울 용산, 경기도 의정부, 동두천, 파주, 평택 등지와 외국공관이 위치한 서울 이태원동, 한남동의 중심으로 미국인 거주지가 형성되었고 이 지역은 현재까지도 대표적인 외국인 밀집거주지로 기능하고 있다.

1970-8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발전이 있었던 해외 여러 국가들과 수교를 맺으면서 상대국의 주재원과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외국인 거주지를 형성하였다. 이들은 주로 서울 곳곳에 국적별로 정착하기 시작하였고, 뒤를 이어 대사관, 종교시설, 직장, 학교 등이 입지하고 서비스·상업 시설들이 자리를 잡게 되어 이주자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오늘날 널리 알려진 서초동 서래마을, 동부이촌동 일본인 마을, 한남동 독일인 마을 등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외국인 주거지들은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들의 주재원을 중심으로 안정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어서 서울에서도 비교적 주거환경이 좋은 곳에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⁸⁹⁾.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을 보이던 1980년대에 이르러, 한국도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고도성장시대를 맞이하였다. 더불어 국내 임금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저임금·저숙련 노동직종에 대한 내국인의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산업화와 도시화가 크게 진전되면서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유출되고 농가의 소득이 감소하는 등, 농촌의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왔다. 이는 동남아시아와

88) 박세훈, 2010, “한국의 외국인 밀집지역: 역사적 형성과정과 사회공간적 변화,”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23(1), pp. 76-77.

89) 박세훈, 위의 책, pp. 78-79.

서남아시아 등 저개발 국가들에게 한국이 새로운 노동시장으로 부각되는 현상과 1990년대 초 외국인 노동자 유입 정책 시행과 맞물리면서, 한국은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991년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입국을 허용하였으나 제도적 미비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⁹⁰⁾. 즉, 산업연수생은 관련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연수기간이 끝나면 미등록체류로 이어지게 되면서 외국인노동자들의 불리한 상황을 이용한 임금체불, 폭력, 착취 등의 비인권적 노동 조건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 이주노동자와 더불어 결혼이주자가 급증하였는데, 결혼이주자는 일본, 대만, 한국을 정착지로 한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들의 국제결혼 현상으로 인해 생겨난 외국인 이주자들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다문화가정’은 1990년대 후반부터 농·어촌 미혼 남성들의 배우자로 결혼이주를 시작하여 점차 도시지역의 저소득층으로까지 확대되어 왔으며, 1999년 결혼중개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국제결혼시장에서 중개업체들이 증가하면서 보다 대중화되었다. 이와 같이 외국인 이주노동자 이외에도,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외국인의 유입으로 한국 사회는 더 다양성을 띄면서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해왔다.

90) 이진영, 2011, “수도권에서의 외국인 거주지 분포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19.

2. 외국인의 거주 현황 및 추이

1) 외국인의 현황 및 추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15년 말 기준, 1,899,519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7%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 중에서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 거소신고자를 포함하는 장기체류외국인은 77%(1,467,873명), 단기체류외국인은 23%(431,646명)인데, 본 논문에서는 장기체류외국인 중에서도 1990년대 초반까지의 시계열 분석 및 읍·면·동 단위의 분석이 가능한 등록외국인 수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10. 전국 등록외국인 수와 비율 변화

(단위: 명, %)

연도	주민등록인구	등록외국인			외국인 비율	전년대비 증가율
		합계	남	여		
1993	45,001,113	66,688	36,634	30,054	0.1	
1994	45,416,339	84,905	48,621	36,284	0.2	27.3
1995	45,858,029	110,028	63,042	49,986	0.2	29.6
1996	46,266,256	148,731	89,007	59,724	0.3	35.2
1997	46,684,069	176,890	108,054	68,836	0.4	18.9
1998	46,991,171	147,914	85,734	62,180	0.3	-16.4
1999	47,335,678	168,950	97,988	70,962	0.4	14.2
2000	47,732,558	210,249	122,749	87,500	0.4	24.4
2001	48,021,543	229,648	130,397	99,251	0.5	9.2
2002	48,229,948	252,457	141,344	111,113	0.5	9.9
2003	48,386,823	437,954	258,987	178,967	0.9	73.5
2004	48,583,805	468,875	278,275	190,600	1.0	7.1
2005	48,782,274	485,144	283,936	201,208	1.0	3.5
2006	48,991,779	631,219	370,320	260,899	1.3	30.1

2007	49,268,928	765,746	438,795	326,951	1.6	21.3
2008	49,540,367	854,007	480,136	373,871	1.7	11.5
2009	49,773,145	870,636	485,806	384,830	1.7	1.9
2010	50,515,666	918,917	514,956	403,961	1.8	5.5
2011	50,734,284	982,461	554,482	427,979	1.9	6.9
2012	50,948,272	932,983	524,420	408,563	1.8	-5.0
2013	51,141,463	985,923	562,695	423,228	1.9	5.7
2014	51,327,916	1,091,531	628,279	463,252	2.1	10.7
2015	51,529,338	1,143,087	656,265	486,822	2.2	4.7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한국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수는 2015년 말 기준 1,143,087명으로 한국 주민등록인구 51,529,338명의 2.2%를 차지한다. 2014년 대비 51,556명, 즉 4.7%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평균 4.6%의 증가율을 보여 왔다. 주민등록인구 대비 등록외국인 비율은 2000년 0.4%에 불과하였는데 2015년에 이르러 2.2%를 차지하면서 지난 15년 사이에 등록외국인 수는 무려 5배 이상의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체류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관광, 방문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고 미등록 체류자로 남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였는데, 2015년 기준 미등록외국인 수는 84,969명으로 2010년 78,545명에서 지난 5년간 8.2% 증가하였고 2010년 이후로 평균 8.8%의 미등록체류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13.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수 변화(1993-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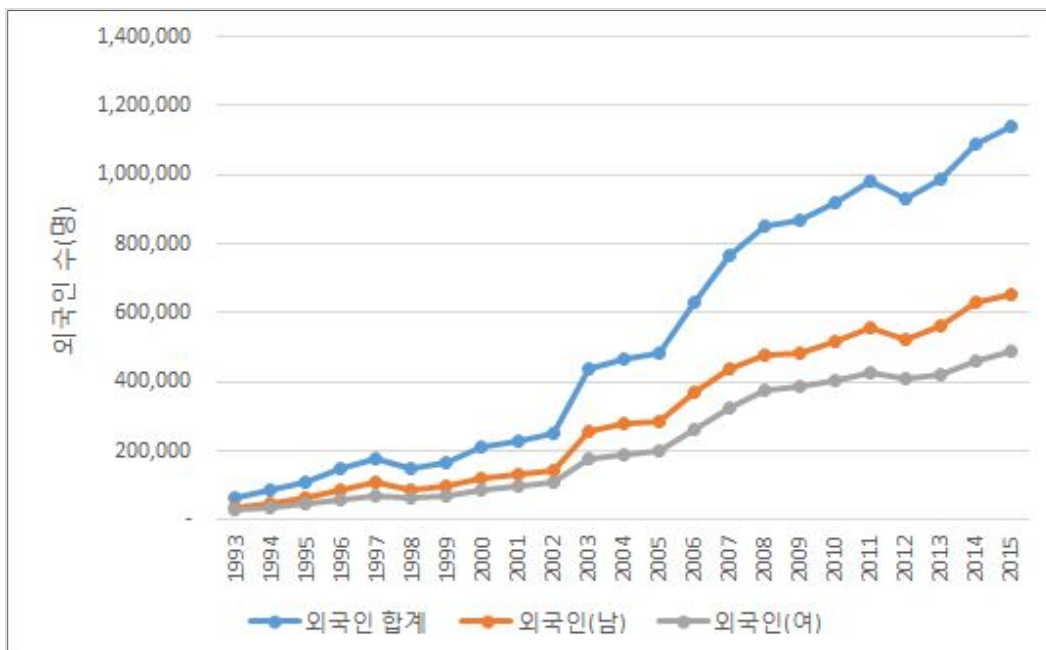


그림 14. 전국 등록외국인 수 변화(1993-2015)

한국 등록외국인 수는 꾸준한 증가를 보여 왔는데, 특히 2003년의 급격한 증가는 정부의 ‘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 조치’로 인해 미등록체류자가 전년도 대비 52.3%(151,183명) 감소한 바 있으며⁹¹⁾, 이에 영향을 받아 등록외국인 수의 증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2004년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로 한국에 입국하는 등록외국인 특히, 비전문직 이주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는데, 2012년에 들어 감소를 보인 것은 2007년 도입된 특례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방문취업자(H-2 비자)들의 5년 고용계약 기간이 경과하여 귀국대상자가 늘어나면서 단순기능인력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국의 시·도별로 등록외국인 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울산광역시의 등록외국인 수가 1997년부터 공표되어 온 관계로 1997년부터 5년 단위로 비교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 등록외국인 수는 2012년부터 조사되기 시작하여 2015년도 등록외국인 수만 나타내었다. 2015년 기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를 포함하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은 702,291명으로 전체 등록외국인 수의 61.4%를 차지한다. 전국 대비 수도권 거주 외국인 비율은 1997년 55.8%였는데 그 비중은 점점 높아져왔고 2005년에는 65.4%, 2010년에는 65.1%로 증가하였다. 외국인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소폭의 등락이 있으나 대체로 심화되어 왔으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부산시를 비롯한 경상남도 와 경상북도 등, 동남권 지역에서 외국인 거주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충청남도에서 외국인 거주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초기 이주자들은 부산, 인천, 대구 등 광역 도시권을 중심으로 초기 정착지를 형성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대도시로의 집중현상은 다소 완화되고 주변지역으로 외국인들의 이주 반경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각 시·도별로 살펴보면, 1997년 서울시의 등록외국인 수는 52,923명이고

91) e나라지표,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http://www.index.go.kr>

경기도의 외국인 수는 44,122명으로 이 두 지역의 외국인 수가 전국 외국인 수의 48.2%를 차지하였는데, 경기도로 유입되는 외국인 수가 점차 증가하여 2003년부터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수가 154,787명으로 서울시의 외국인 수 102,882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 조치’로 인해 등록외국인 수가 급증한 시기와 일치하며, 이미 이 지역에 미등록 체류자로 거주하고 있던 외국인들이 합법적으로 일자리를 찾게 되면서 중소기업의 제조업체가 많이 입지한 경기도의 외국인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표 11. 전국 시·도별 등록외국인 수 변화(1997-2015)

행정구역	1997		2000		2005		2010		2015	
	외국인(명)	구성비(%)	외국인(명)	구성비(%)	외국인(명)	구성비(%)	외국인(명)	구성비(%)	외국인(명)	구성비(%)
전국	201,186	100.0	244,172	100.0	485,477	100.0	918,917	100.0	1,143,087	100.0
수도권소계	112,338	55.8	139,142	57.0	317,285	65.4	598,156	65.1	702,291	61.4
서울시	52,923	26.3	61,920	25.4	129,660	26.7	262,902	28.6	274,957	24.1
경기도	44,122	21.9	60,670	24.8	155,942	32.1	285,262	31.0	369,665	32.3
인천시	15,293	7.6	16,552	6.8	31,683	6.5	49,992	5.4	57,669	5.0
부산시	13,802	6.9	15,886	6.5	19,547	4.0	32,471	3.5	39,991	3.5
대구시	13,582	6.8	13,959	5.7	14,530	3.0	20,401	2.2	26,141	2.3
광주시	2,615	1.3	3,303	1.4	6,361	1.3	13,360	1.5	18,455	1.6
대전시	4,797	2.4	4,904	2.0	7,897	1.6	14,876	1.6	16,416	1.4
울산시	3,418	1.7	3,936	1.6	7,457	1.5	16,043	1.7	26,183	2.3
세종시	N/A	N/A	N/A	N/A	N/A	N/A	N/A	N/A	3,481	0.3
강원도	3,201	1.6	4,354	1.8	7,989	1.6	13,737	1.5	15,108	1.3
충청북도	4,672	2.3	7,209	3.0	12,871	2.7	24,453	2.7	32,637	2.9
충청남도	6,097	3.0	8,630	3.5	19,849	4.1	42,753	4.7	56,583	5.0
전라북도	5,773	2.9	7,245	3.0	10,165	2.1	20,152	2.2	26,194	2.3
전라남도	2,894	1.4	4,015	1.6	9,260	1.9	21,970	2.4	30,566	2.7
경상북도	12,502	6.2	16,373	6.7	23,409	4.8	36,895	4.0	49,765	4.4
경상남도	14,721	7.3	14,261	5.8	26,679	5.5	57,718	6.3	82,316	7.2
제주도	774	0.4	955	0.4	2,178	0.4	5,932	0.6	16,960	1.5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1994년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서울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39,246 명)였는데 2003년 1%(102,882 명)를 넘기 시작한 이후로 꾸준한 증가를 보여 2015년에는 서울시 전체 인구의 2.7%(274,957 명)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2003년부터 외국인 수가 전체 인구의 1%를 넘기 시작하여 2015년 기준으로 경기도는 2.9%(369,665 명), 인천시는 1.9%(57,669 명)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전체로 살펴보면 외국인 비율은 주민등록인구의 2.7%(702,291 명)에 해당되어 전국의 외국인 비율인 2.2%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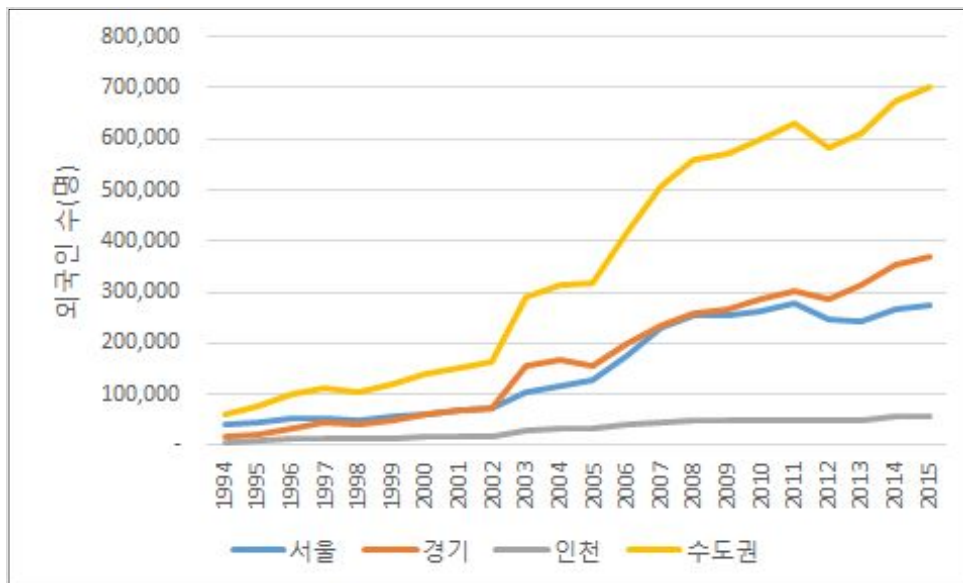


그림 15. 수도권 등록외국인 수 변화(1994-2015)

2) 외국인의 유형별 거주현황

수도권에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을 국적 및 체류유형별로 구분하여 거주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시의 경우 등록외국인의 국적 조사는 1999년부터, 경기도는 1995년부터, 인천시는 1996년부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구별 외국인의 국적 조사는 2006년부터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을 분리하여 집계하기 시작하였고, 이 시기부터 동별 수준의 국적별 등록외국인 거주현황도 파악되었다. 이전까지 12개국으로 조사되던 국적이 2006년부터는 41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2010년부터는 57개국으로 보다 확대되고 세분화되었다. 1999년까지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미국인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으나 2000년부터는 중국계 인구가 17,432명, 미국인이 16,658명으로 중국계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기 시작했다. 2015년 국적별 상위 10위의 국가 중에서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가 발표한 선진국(Advanced Economies)⁹²⁾에 해당하는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타이완, 프랑스 등 4개국인데, 이러한 양상은 경기도나 인천시의 상위 10위권 국적의 대부분이 개발도상국가인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표 12. 서울시의 국적별 외국인 이주자의 규모 순위 변화(상위 10개국)

(단위: 명, %)

	1999년		2006년		2015년	
	국적	체류자	국적	체류자	국적	체류자
1	미국	18,763(32.8)	중국	119,300(68.2)	중국	198,773(72.3)
2	중국	12,283(21.5)	미국	11,890(6.8)	미국	9,224(3.4)
3	기타	9,638(16.9)	타이완	8,974(5.1)	타이완	8,753(3.2)

92) IMF가 2005년 10월에 발표한 Advanced Economies(선진경제국)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홍콩,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산마리노,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타이완, 중국, 영국, 미국 등 38개국이다. (<https://www.imf.org>)

4	일본	6,332(11.1)	일본	6,864(3.9)	베트남	8,545(3.1)
5	타이완	3,011(5.3)	필리핀	4,038(2.3)	일본	8,386(3.0)
6	필리핀	2,005(3.5)	베트남	3,011(1.7)	몽골	4,747(1.7)
7	캐나다	1,809(3.2)	몽골	2,711(1.5)	필리핀	3,677(1.3)
8	프랑스	1,180(2.1)	캐나다	2,300(1.3)	우즈베키스탄	1,923(0.7)
9	베트남	841(1.5)	인도	1,259(0.7)	프랑스	1,904(0.7)
10	영국	836(1.5)	타이	1,136(0.6)	인도	1,863(0.7)
	합	57,189	합	175,036	합	274,957

출처: 서울통계(<http://stat.seoul.go.kr>)

주: 1. 중국 인구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함.

2. 괄호()안의 비율은 해당 연도 서울시 전체 외국인 수에서 각 국적 외국인 차지하는 비율임.

3. '합'은 표에는 명시되지 않은 각 해당 연도 기타 국적 외국인 이주자를 포함함.

경기도는 1995년부터 8개국의 외국인 국적 조사를 시·군 단위로 집계해왔고, 1999년부터는 29개국으로 확대, 2002년에는 80개국으로까지 확대 조사해왔다. 2014년부터는 등록외국인들의 출신 국가가 94개로 늘어나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국적이 보다 다양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2015년 외국인들의 국적 상위 10개국 중에서 IMF가 발표한 선진경제국에 해당하는 국가는 중국뿐이며, 이를 제외한 국가는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이다.

표 13. 경기도의 국적별 외국인 이주자의 규모 순위 변화(상위 10개국)

(단위: 명, %)

	1995년		2005년		2015년	
	국적	체류자	국적	체류자	국적	체류자
1	중국	7,119(32.3)	중국	52,083(33.4)	중국	204,486(55.3)
2	미국	3,943(17.9)	필리핀	12,988(8.3)	베트남	28,947(7.8)
3	필리핀	2,915(13.2)	베트남	12,956(8.3)	필리핀	16,073(4.3)
4	일본	1,829(8.3)	태국	10,403(6.7)	캄보디아	15,456(4.2)
5	베트남	950(4.3)	인도네시아	8,209(5.3)	타이	14,343(3.9)
6	영국	45(0.2)	몽골	6,427(4.1)	우즈베키스탄	11,483(3.1)
7	독일	41(0.2)	미국	6,302(4.0)	네팔	11,105(3.0)
8	프랑스	29(0.1)	방글라데시	5,797(3.7)	인도네시아	8,961(2.4)
9			스리랑카	4,118(2.6)	미얀마	7,720(2.1)

10			파키스탄	3,859(2.5)	스리랑카	6,911(1.9)
	합	22,044	합	155,942	합	369,665

출처: 경기통계(<http://stat.gg.go.kr>)

- 주: 1. 중국인 인구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함.
 2. 괄호()안의 비율은 해당 연도 경기도 전체 외국인 수에서 각 국적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임.
 3. '합'은 표에는 명시되지 않은 각 해당 연도 기타 국적 외국인 이주자를 포함함.

인천은 1996년부터 외국인의 국적 조사가 구·군 단위에서 이루어졌다. 서울시와 경기도에 비해 외국인 수가 적은 인천은 1996년 외국인 국적 조사를 시작할 당시 9개국을 대상으로 하였고, 2003년에는 30개국으로 확대되었다가 2009년부터 58개국의 외국인 국적을 조사해왔다.

표 14. 인천시의 국적별 외국인 이주자의 규모 순위 변화(상위 10개국)

(단위: 명, %)

	1996년		2005년		2015년	
	국적	체류자	국적	체류자	국적	체류자
1	중국	3,931(31.4)	중국	9,641(30.4)	중국	25,733(44.6)
2	대만	1,959(15.9)	베트남	2,837(9.0)	베트남	6,499(11.3)
3	필리핀	1,135(9.1)	대만	2,779(8.8)	필리핀	2,795(4.8)
4	미국	933(7.4)	필리핀	2,263(7.1)	타이완	2,643(4.6)
5	베트남	788(6.3)	인도네시아	2,021(6.4)	인도네시아	2,230(3.9)
6	일본	514(4.1)	태국	1,708(5.4)	우즈베키스탄	1,991(3.5)
7	태국	150(1.2)	몽골	1,107(3.5)	타이	1,964(3.4)
8	미얀마	100(0.8)	파키스탄	1,084(3.4)	미얀마	1,575(2.7)
9	네팔	88(0.7)	방글라데시	1,054(3.3)	캄보디아	1,268(2.2)
10			우즈베키스탄	772(2.4)	몽골	1,249(2.2)
	합	12,534	합	31,683	합	57,669

출처: 인천통계(<http://www.incheon.go.kr/articles/180>)

- 주: 1. 중국인 인구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함.
 2. 괄호()안의 비율은 해당 연도 인천시 전체 외국인 수에서 각 국적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임.
 3. '합'은 표에는 명시되지 않은 각 해당 연도 기타 국적 외국인 이주자를 포함함.

이상의 수도권 전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국적에 따라 다시 분류하여 보면 다음의 <표 15>와 같다.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인 인구가 가장 많은데 1999년도에는 수도권 전체 외국인 국적에서 24.8%(29,875명)를 차지하였던 데에서 약 15년 만에 14배 이상 증가하여 2015년에는 61.1% (428,992명)를 차지하였다. 중국인과 한국계 중국인은 수도권 외국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수도권에 밀집거주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들은 다른 외국인에 비해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우수하고 한국문화에도 친화적이어서, 단순 서비스업, 사무직,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거나 이러한 직종에 종사하는 한국인 남편과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어서 집값이 저렴하면서도 교통이 편리한 서울 도심부에 주로 밀집거주하고 있다. 중국계 외국인 다음으로 베트남(6.3%), 필리핀(3.2%), 캄보디아(2.5%)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저숙련 노동직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대부분이고, 한국계 중국인을 제외한 중국인의 경우는 유학생이 비중이 크며, 베트남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결혼이주자의 비중이 타국 출신의 외국인보다 높다.

표 15. 수도권의 국적별 외국인 이주자의 규모 순위 변화(상위 10개국)

(단위: 명, %)

	1999년		2007년		2015년	
	국적	체류자	국적	체류자	국적	체류자
1	중국	29,875(24.8)	중국	293,339(57.7)	중국	428,992(61.1)
2	미국	26,583(22.0)	베트남	29,310(5.8)	베트남	43,991(6.3)
3	일본	9,614(12.0)	필리핀	25,366(5.0)	필리핀	22,545(3.2)
4	필리핀	7,918(8.0)	미국	19,414(4.5)	캄보디아	17,741(2.5)
5	타이완	6,564(6.6)	태국	19,182(3.8)	타이	17,583(2.5)
6	베트남	5,109(5.4)	대만	14,129(3.8)	미국	15,539(2.2)
7	인도네시아	4,989(4.2)	몽골	13,886(2.8)	우즈베키스탄	15,397(2.2)
8	방글라데시	3,525(4.1)	일본	11,052(2.7)	일본	14,510(2.1)
9	캐나다	1,809(2.9)	인도네시아	10,342(2.2)	타이완	13,807(2.0)
10	프랑스	1,180(1.5)	스리랑카	6,467(2.0)	네팔	13,325(1.9)
	합	120,620	합	508,566	합	702,291

출처: 서울통계(<http://stat.seoul.go.kr>), 경기통계(<http://stat.gg.go.kr>), 인천통계(<http://www.incheon.go.kr/articles/180>)

- 주: 1. 중국인 인구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함.
 2. 괄호()안의 비율은 해당 연도 수도권 전체 외국인 수에서 각 국적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임.
 3. ‘합’은 표에는 명시되지 않은 각 해당 연도 기타 국적 외국인 이주자를 포함함.

위의 <표 15> 수도권의 국적별 외국인의 규모 순위를 보면 2015년 기준, 상위 10개국 중에서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들인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인이 규모 있는 밀집거주지를 형성해 이주자의 공간을 주도해 나가고 있으며, 일본과 타이완을 제외한 아시아 이주자들은 비전문직 이주자들이며, 남성이 대부분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경기도의 화성, 안산, 시흥, 김포와 인천을 잇는 공장지대벨트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특히 타이완 출신의 이주자들은 중화민국 통치시기에 한국으로 이주하여 중화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정착한 화교(華僑)들이 다수인데, 이들은 유학이나 취업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한족이나 한국계 중국인(조선족)과는 구별된다. 세대가 지나면서 화교 2세, 3세 등은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대한민국 국적법이 속인주의(屬人主義)인 관계로 중화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세대가 지날수록 한국으로의 귀화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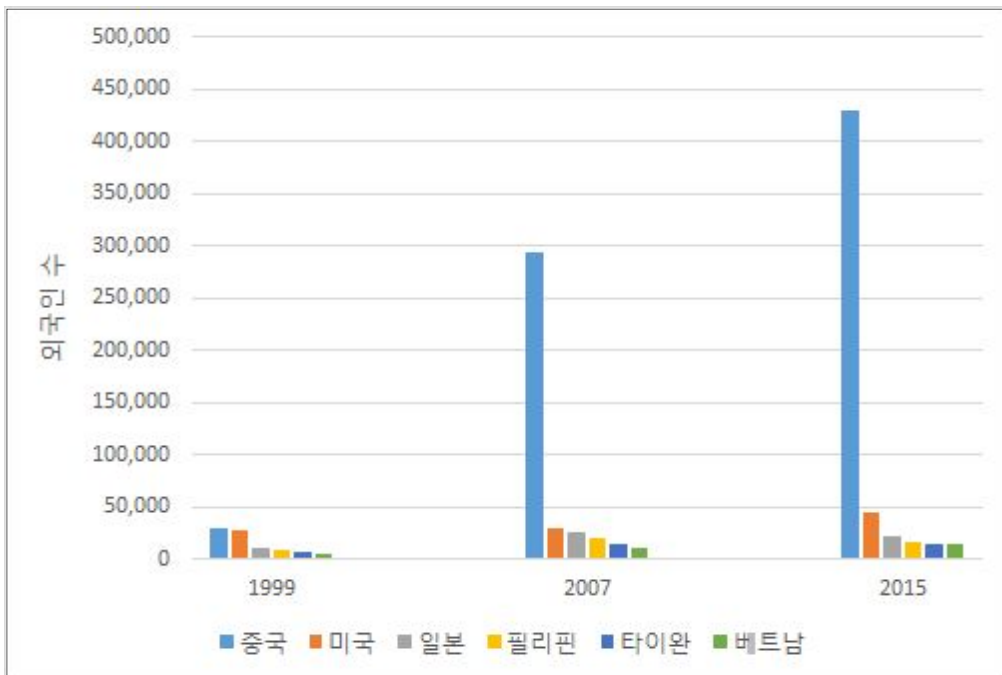


그림 16. 수도권 등록외국인의 주요 국적별·연도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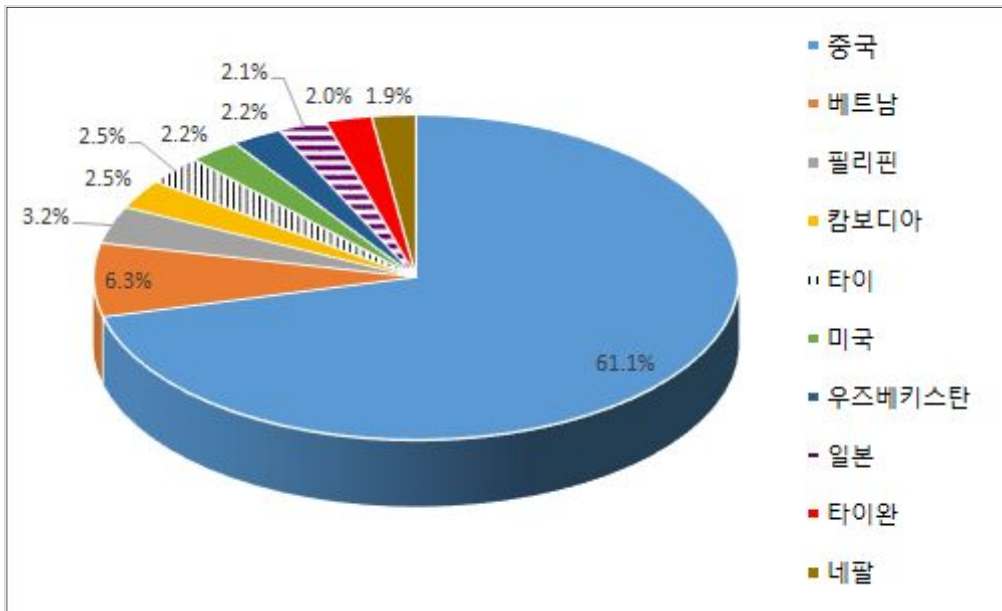


그림 17. 수도권 등록외국인의 국적별 구성 현황(2015)

다음으로 체류자격별 외국인 이주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1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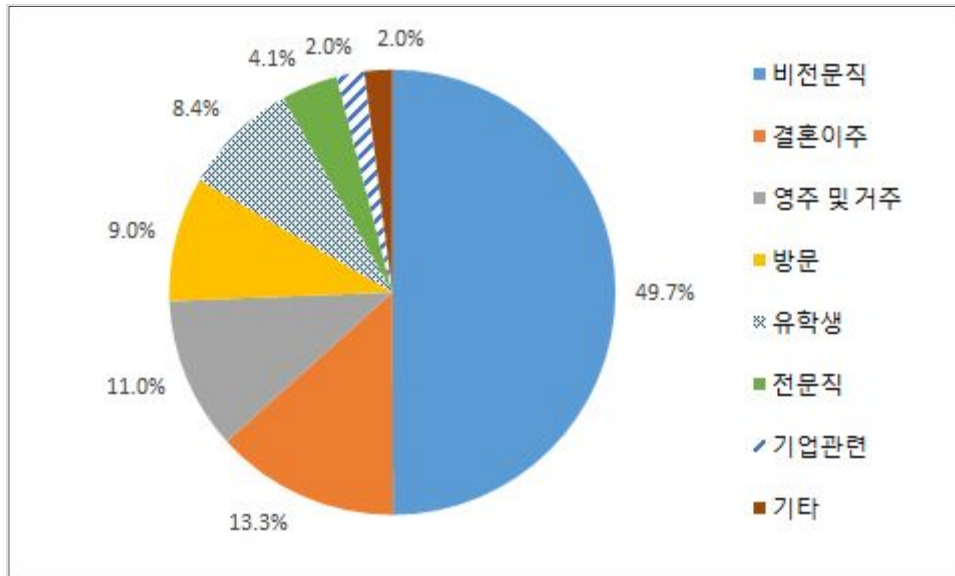


그림 18. 전국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구성 현황(2015)

크게 비전문직 이주자, 결혼이주자, 유학생, 전문직 이주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15년도 한국 전체 등록외국인 수 1,143,087명 중에서 비전문직 이주자는 568,615명(49.7%), 결혼이주자는 151,608명(13.3%), 유학생 96,132명(8.4%), 전문직 이주자 46,729명(4.1%)으로 이들이 전체 등록외국인의 75.5%를 차지하고 있다.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법무부의 체류목적별 비자 구분에 의해 파악할 수 있다. 우선 비전문직 이주자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들로, 이 중에서 방문취업(E-2) 비자는 구소련 및 중국 동포들을 대상으로 발급되는데 처음 시행되었던 2007년에 228,686명의 동포가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한 이후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 결혼이주자들은 현재 국민배우자(F-2-1, F-5-2)와 결혼이민(F-6)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고, 유학생은 한국어연수(D-4-4) 비자와 일반연수(D-4) 비자로 거주하고 있다. 전문직 이주자들은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외국인들로, 정부의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정책의 지속적인 시행에 따라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아래 <그림 19>에서 보듯이, 결혼이주자, 유학생, 전문직 이주자는 꾸준하고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비전문직 이주자는 2005년 이후 급증하였다가 2008년 이후 증가가 둔화되는 경향도 있었지만 2012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비전문직 이주자의 증감 배경에는, 외국인 노동력 도입 초기에 시행되었던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004년 8월 고용허가제로의 이행을 결정하고, 2007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면서 2005-2006년에는 비전문직 이주자의 급격한 감소를 보였고 2007-2008년에는 다시 급격한 증가를 경험하였다. 또한 2007년에는 외국국적 동포들의 방문취업제 도입으로 인해 비전문직 이주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결혼이주자는 2001년 이후로 꾸준한 증가를 보이지만 그 증가율은 다소 둔화된 상태로, 오늘날에는 농촌에 거주하는 남성들 중심의 국제결혼보다는 도시의 저차 서비스업이나 중소기업 제조업에 종사하는 남성들의 국제결혼으로 변모해서 경기 안산시, 수원시, 부천시 등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에서 결혼이주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학생의 경우, 2006년 이후로 그 인구가 뚜렷한 증가를 보이기 시작했고 2015년에는 그 수가 10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이밖에 한국에 등록된 외국인인 무역경영(D-9 비자, 7,167명, 0.6%), 기업투자(D-8 비자, 5,866명, 0.5%), 구직(D-10 비자, 5,251명, 0.5%), 예술홍행(E-6 비자, 4,469명, 0.4%), 기술연수(D-3 비자, 2,516명, 0.2%) 등의 다양한 체류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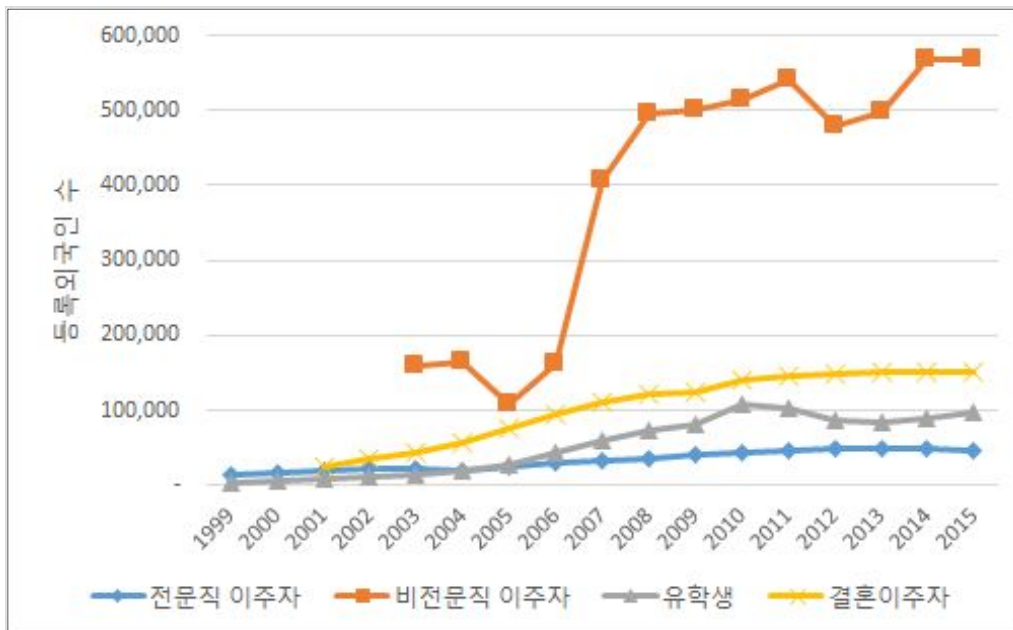


그림 19. 전국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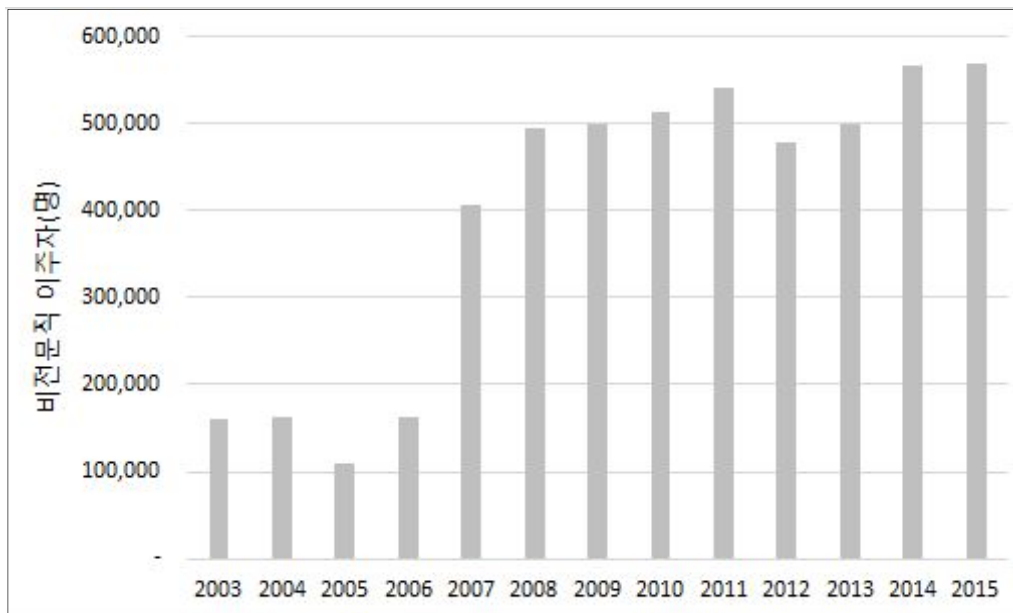


그림 20. 전국 비전문직 이주자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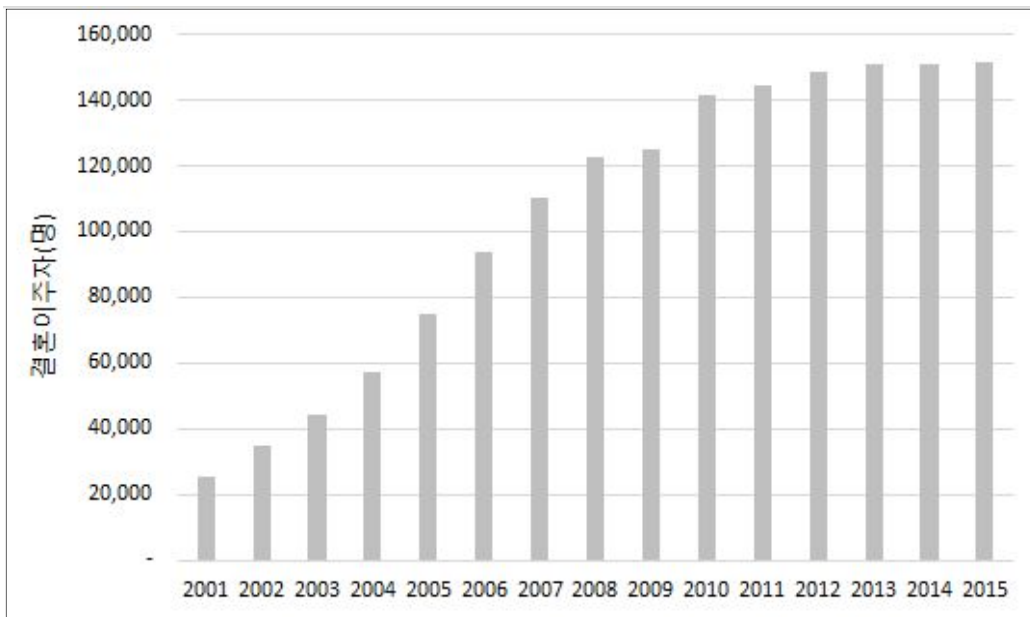


그림 21. 전국 결혼이주자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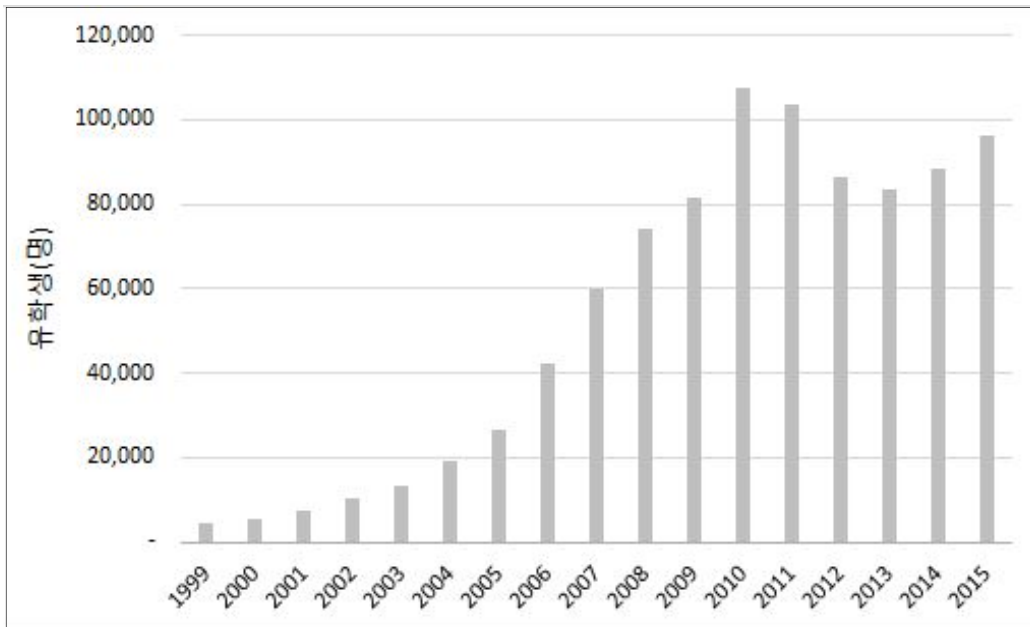


그림 22. 전국 유학생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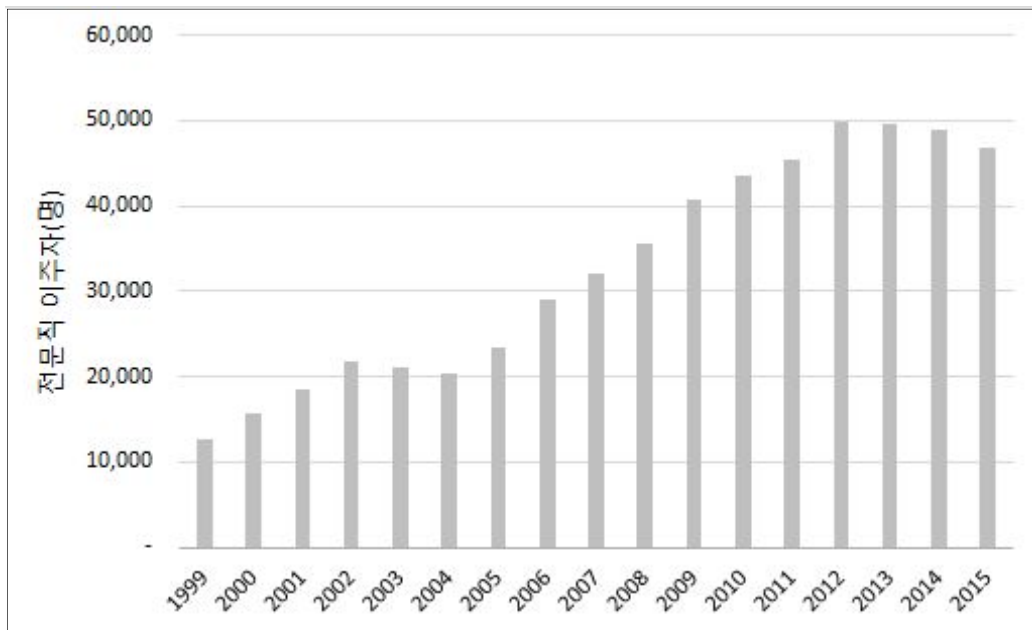


그림 23. 전국 전문직 이주자 수 변화

이 중에서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을 체류자격별로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수 702,291명 중에서 비전문직 이주자는 349,401명(49.8%), 결혼이주자는 185,043명(26.3%), 유학생은 53,097명(7.6%), 전문직 이주자는 27,232명(3.9%)으로 체류자격으로 볼 때 이들 네 집단이 전체 등록외국인의 87.6%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의 구성현황과 비교하여 대부분 비슷한 수준이지만, 결혼이주자 비율이 전국 기준 13.3% 보다 많은 26.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의 체류자격별, 지역별(시·군·구) 결혼이주자 통계가 국민배우자(F-2-1, F-5-2) 비자의 상위 분류기준인 F-2(거주), F-5(영주) 비자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 구성현황과 수도권의 체류자격별 구성현황은 대체로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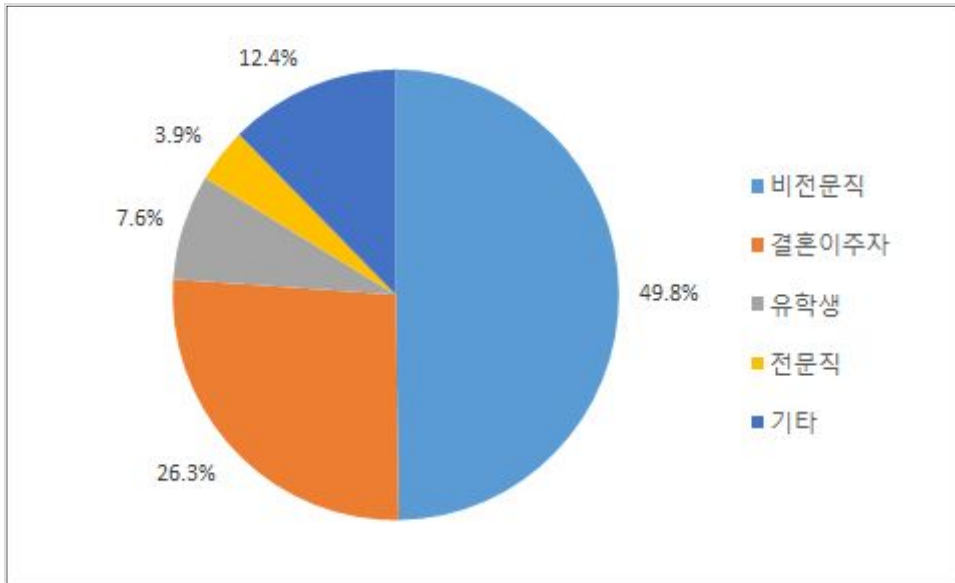


그림 24. 수도권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구성 현황(2015)

이상에서 살펴보면, 한국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 거주자의 절반이 비전문직 이주자, 즉 이주노동자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중에서 비전문직 이주자는 349,401명으로 전국에 거주하는 비전문직 이주자의 61%에 이른다. 이 비율은 합법적으로 등록한 외국인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2015년 등록외국인의 미등록체류율이 7.4%인데 이 중에서 비전문취업(E-9) 비자의 미등록체류자가 절반 이상인 56.7%(48,157명)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전문직 이주자의 수는 집계된 수 이상일 것으로 파악된다.

비전문직 이주자 다음으로 그 수가 많은 결혼이주자는 1990년대 이후 농촌지역의 남성들의 결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결혼이 추진되면서 증가하였는데, 그 숫자가 점점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농촌에만 국한되지 않고 서울과 경기의 도시 등 수도권 지역에도 결혼이주자가 증가하고 있다. 일찍이 1980년대 종교단체를 통해 일본 여성이 다수 입국한 바 있고, 2000년대 초

반은 중국 및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주자가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타이 등 배우자의 국적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한국 결혼이주자는 2002년 이후 매년 28%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왔는데, 2014년 4월부터 시행된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결혼이민(F-6) 사증발급심사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조치로 인해 최근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2015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의하면, 2015년 결혼이주자의 수는 151,608명으로 전년대비 0.4% 증가하는데 그쳐 증가율의 둔화세를 파악할 수 있다.

3. 외국인 거주지의 공간적 분포

1) 수도권 시·군·구별 외국인 거주지 분포

2015년 수도권의 외국인 거주지를 시·군·구별로 비교해보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은 전체 등록외국인의 61.4%로, 이 가운데 서울이 24.1%, 경기도가 32.3%, 인천이 5.0%를 차지한다. 수도권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 국토의 11.8%이다. 시·군·구 수준에서 외국인 수가 많은 곳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45,903명), 서울 영등포구(39,307명), 경기 화성시(33,409명), 서울 구로구(32,512명), 경기 시흥시(31,514명) 등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외국인 밀집거주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중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는 외국인 비율이 전체 주민등록인구 대비 10%를 넘는 수준이다. 외국인 비율이 높은 시·군·구의 특징은 공통적으로 제조업 공장이 밀집해있고, 거주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후주택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안산시(남성 56.6%, 여성 43.4%),

화성시(남성 74.2%, 여성 25.8%), 시흥시(남성 59.1%, 여성 40.9%), 평택시(남성 60.5%, 여성 39.5%), 김포시(남성 78.9%, 여성 21.1%) 등 제조업 공장 지대가 넓게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여성보다 남성이주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공통적으로 보인다.

표 16. 수도권 시·군·구별 등록외국인 수와 비율 순위(상위 10개)

순위	외국인 수(명)		외국인 비율(%)	
1	경기 안산시 단원구	45,903	경기 안산시 단원구	12.6
2	서울 영등포구	39,307	서울시 영등포구	9.4
3	경기 화성시	33,409	서울시 금천구	7.8
4	서울 구로구	32,512	경기 시흥시	7.3
5	경기 시흥시	31,514	경기 포천시	7.3
6	서울 금천구	19,883	서울 구로구	7.2
7	서울 관악구	19,368	경기 수원시 팔달구	6.9
8	경기 평택시	18,644	서울 중구	6.4
9	경기 김포시	16,783	서울 용산구	5.9
10	서울 광진구	14,811	서울 종로구	5.4

출처: 2015년 서울통계, 경기통계, 인천통계

- 주: 1. 음영된 부분은 외국인 수와 외국인 비율이 공통적으로 상위 10위권에 속하는 시·군·구에 해당됨.
 2. 외국인 비율은 각 시·군·구의 주민등록인구 대비 등록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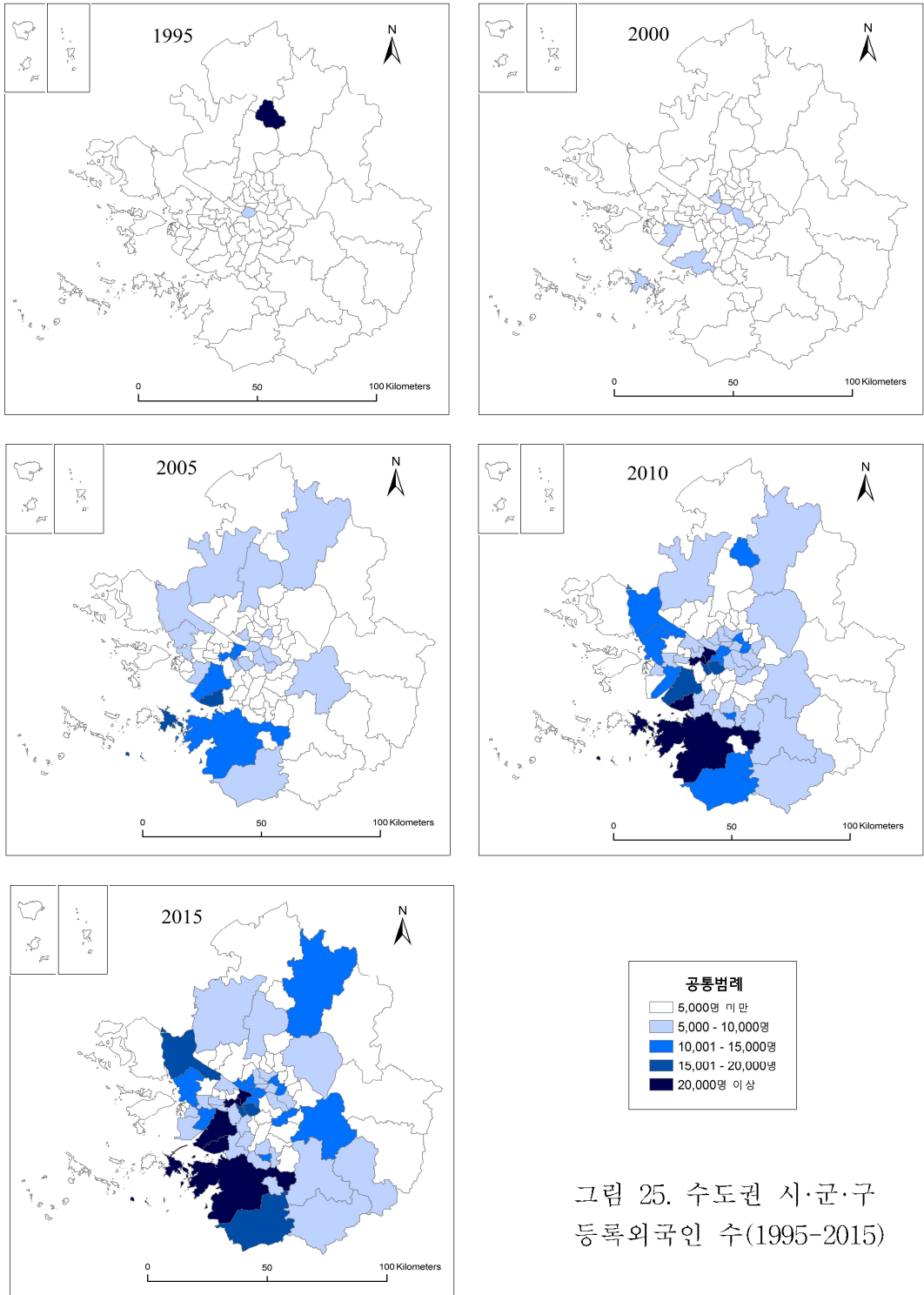


그림 25. 수도권 시·군·구
등록외국인 수(199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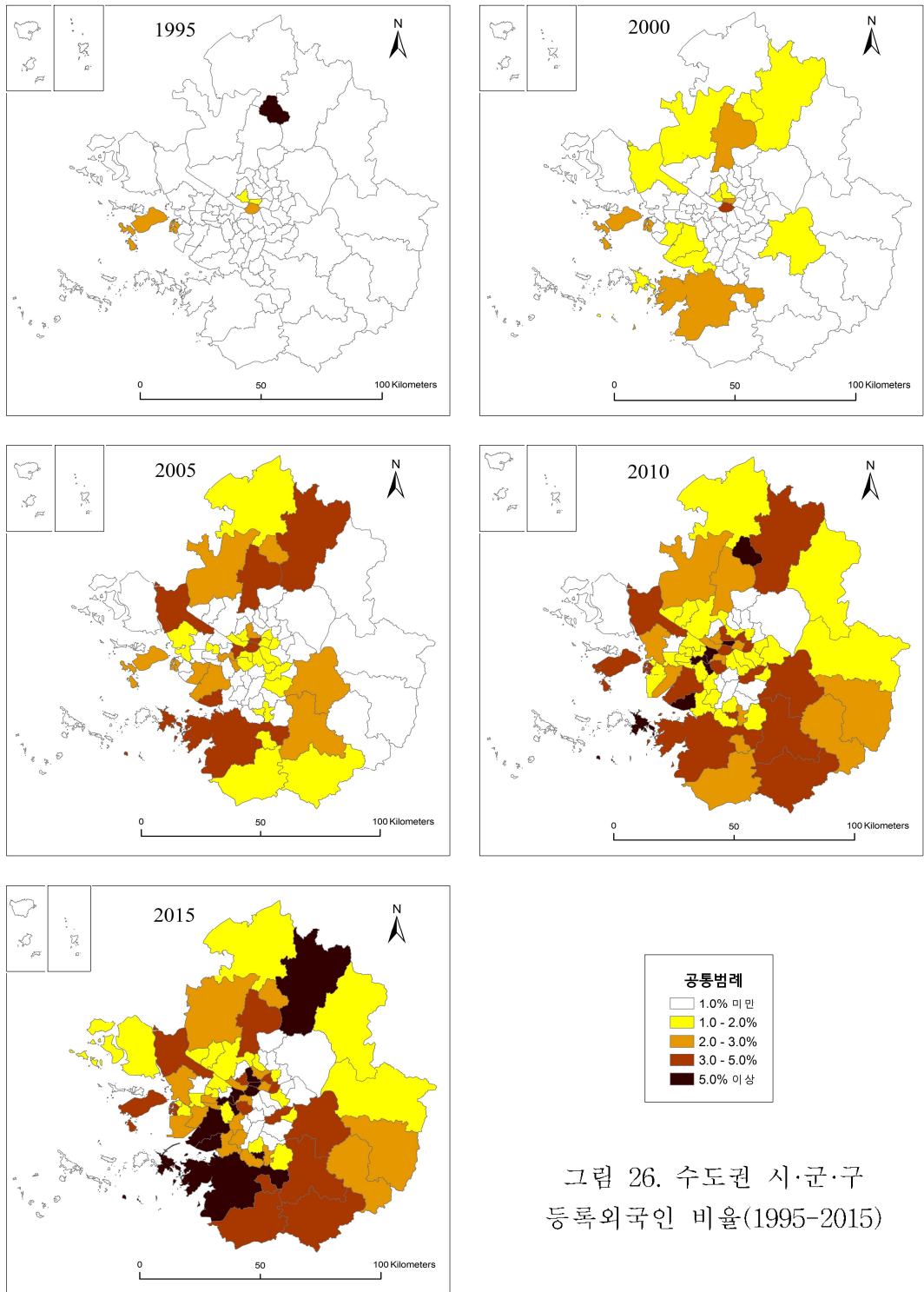


그림 26. 수도권 시·군·구
등록외국인 비율(1995-2015)

외국인의 국적에 따른 분포를 보면, 한국계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인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두드러지고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로부터 많은 이주자들이 유입되고 있다. 아시아로부터 유입되는 이주자들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외국인 수 순위 상위 10개국에서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들이다. 경기도는 미얀마를 제외하고는 전국 등록외국인 수 상위 10개 국적과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인천도 타이완과 미얀마를 제외하고는 전국 10위 순위권 내 국적과 동일한데, 경기와 인천에 거주하는 미얀마 출신 이주자들은 전체 미얀마 출신 이주자의 51.3%로 전체 미얀마 출신 이주자의 절반 이상이 경기도와 인천시에 밀집거주하고 있다. 반면 서울은 전국 10위 순위권 내 국적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미국(9,224명, 38.3%), 타이완(8,753명, 42.7%), 일본(8,386명, 36.4%), 몽골(4,747명, 25.7%), 프랑스(1,904명, 51.4%) 출신 이주자들은 서울에 다수 거주하면서 밀집거주지를 형성하고 있다.

표 17. 수도권 외국인의 주요 국적 순위(상위 10개국)

(단위: 명, %)

순위	전국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국적	외국인	국적	외국인	비중	국적	외국인	비중	국적	외국인	비중
1	한국계중국	380,091	한국계중국	157,083	41.3	한국계중국	142,168	37.4	한국계중국	16,200	4.3
2	중국	187,934	중국	47,403	25.2	중국	56,605	30.1	중국	9,533	5.1
3	베트남	128,042	베트남	28,947	22.6	미국	9,224	38.3	베트남	6,499	5.1
4	필리핀	45,282	필리핀	16,073	35.5	타이완	8,753	42.7	필리핀	2,795	6.2
5	캄보디아	41,991	캄보디아	15,456	36.8	베트남	8,545	6.7	타이완	2,643	12.9
6	인도네시아	40,045	타이	14,343	51.4	일본	8,386	36.4	인도네시아	2,230	5.6
7	우즈베키스탄	36,945	우즈베키스탄	11,483	31.1	몽골	4,747	25.7	우즈베키스탄	1,991	5.4
8	네팔	29,189	네팔	11,105	38.0	필리핀	3,677	8.1	타이	1,964	7.0
9	타이	27,927	인도네시아	8,961	22.4	우즈베키스탄	1,923	5.2	미얀마	1,575	8.7
10	스리랑카	25,171	미얀마	7,720	42.6	프랑스	1,904	51.4	캄보디아	1,268	3.0
	합	1,143,087	합	369,665	32.3	합	279,957	24.1	합계	57,669	5.0

출처: 2015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주: 1. 비중은 전국대비 각 국가 출신 외국인의 비중을 의미함.

2.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의 음영된 부분은 전국 국적별 외국인 수 상위 10위 국가들과 비교해 각각 상이하게 나타나는 국적임.

3. 한국계중국인은 중국 국적 소지자이나 인구와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구분하여 나타냄.

서울에 거주하는 미국출신의 이주자들은 주로 전문직 이주자들로서 용산구, 마포구, 강남구, 서대문구, 서초구 등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타이완의 경우, 남성이주자보다 여성이주자가 많은 것이 특징인데(남성 4,190명, 여성 4,563명), 결혼이주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서대문구, 마포구, 중구, 은평구 및 영등포구 일대에 거주하고 있다. 서대문구와 마포구 일대는 리틀 타이완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대만 출신 중국인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한 지역으로 대만인 밀집거주지를 형성해왔고 특히 중국음식점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일본출신 이주자 역시 여성이주자 수가 남성이주자 수를 상회하는데(남성 2,860명, 여성 5,526명), 이들은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등에 집중거주하고 있다. 용산구 동부이촌동은 오래전부터 일본인마을이 형성되어 왔으며, 2015년 기준 용산구에 이촌1동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수(901명)는 마포구 전체 거주하는 일본인의 수(878명)를 상회할 정도로 많다. 이촌동에 일본인이 집중거주하게 된 이유는 을사조약이 체결된 후 일본은 장기적인 목적 하에 군사주둔기지를 이 일대에 조성하게 되었고, 이후 일본인 관리의 관사와 상가가 집중되면서 이곳이 일제강점기부터 일본인의 주된 거주지역으로 기능했기 때문이다.

몽골인이 서울 내 집중 거주하는 지역은 동대문구, 성북, 중랑구 등으로 특히 동대문구 광희1동에는 뉴금호타워라는 10층 건물을 중심으로 몽골타운을 형성하여 몽골 이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 서비스업이 집중 분포되어 있다. 동대문구 광희동 일대는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 소매상인들이 동대문 시장을 찾기 시작하면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비전문직 이주자들이 단기, 장기로 체류하던 지역이다. 이후 러시아 상인들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구매수요를 옮겨가면서 그 공간이 유사한 문화를 가진 몽골인으로 대체가 된 것인데, 이곳은 여전히 중앙아시아 출신의

이주자들의 초기정착을 위한 정착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 내 프랑스인들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은 서초구 반포4동과 방배4동 일대로, 1985년 용산구 한남동에 있던 프랑스학교가 서래마을로 이사오면서부터 프랑스인 밀집거주지가 형성되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전체 프랑스인 3,703명의 51.4%인 1,904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그 중 약 27%인 518명이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다.

서울시만을 대상으로 보면, 외국인 이주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영등포구(39,307명, 9.4%), 금천구(19,883명, 7.8%), 구로구(32,512명, 7.2%), 중구(8,596명, 6.4%), 용산구(14,567명, 5.9%), 종로구(8,836명, 5.4%) 등이며, 낮은 지역은 도봉구(1,999명, 0.6%)와 노원구(3,638명, 0.6%)이다. 즉, 서울의 동북부 지역에 비해 남서부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외국인 이주자들이 분포하는 형태를 보인다.

2) 수도권 읍·면·동별 외국인 거주지 분포

아래 <표 18>은 2015년 수도권의 읍·면·동별 등록외국인 수 상위 10개 지역의 외국인 수와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원곡1동과 원곡본동의 외국인 수는 동 전체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 서울은 영등포구 대림2동과 구로구 가리봉동의 외국인 수가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구로공단이 디지털단지로 변모하면서 과거 여기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이 거주지역을 대림2동으로 점차 옮기면서 영등포구 대림2동의 외국인 이주자가 급증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편의시설과 서비스 시설이 발달했고 따라서 초기 정착 이주자들에게 유리한 입지가 되어 연쇄이주가 일어나면서 대림2동을 중심으로 거주환경을

점점 더 넓혀나가게 되었다.

같은 영등포구 내의 대림1동(19.0%), 신길5동(16.5%), 대림3동(15.4%), 도림동(15.1%) 등 영등포구 18개 동 가운데 10개 동의 외국인 비중이 8%를 상회하였다. 인접한 금천구(7.8%)와 구로구(7.2%) 역시 높은 외국인 거주 비율을 보였다. 서울 중구와 종로구는 거주인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적은 업무중심지구인데, 전체인구대비 외국인의 비율은 비교적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구, 종로구의 업무중심지 인근 고급주택지에 거주하는 전문직 이주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종로구 일부 임대료가 낮은 주택에 중국출신의 비전문직 이주자와 유학생 상당수가 거주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18. 수도권 읍·면·동별 등록외국인 수와 비율 순위(상위 10개)

순위	외국인 수(명)		외국인 비율(%)	
	1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본동	23,394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1동
2	경기 시흥시 정왕본동	13,936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본동	41.3
3	경기 시흥시 정왕1동	9,969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40.7
4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9,952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40.3
5	서울 구로구 구로2동	9,108	경기 시흥시 정왕본동	35.3
6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7,625	서울 중구 소공동	33.2
7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809	경기 김포시 대곶면	32.8
8	경기 화성시 향남읍	6,242	경기 화성시 양감면	30.9
9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	5,671	경기 화성시 팔탄면	29.3
10	서울시 구로구 구로4동	5,362	경기 포천시 가산면	29.2

출처: 2015년 서울통계, 경기통계, 인천통계

주: 외국인 비율은 각 읍·면·동의 주민등록인구 대비 등록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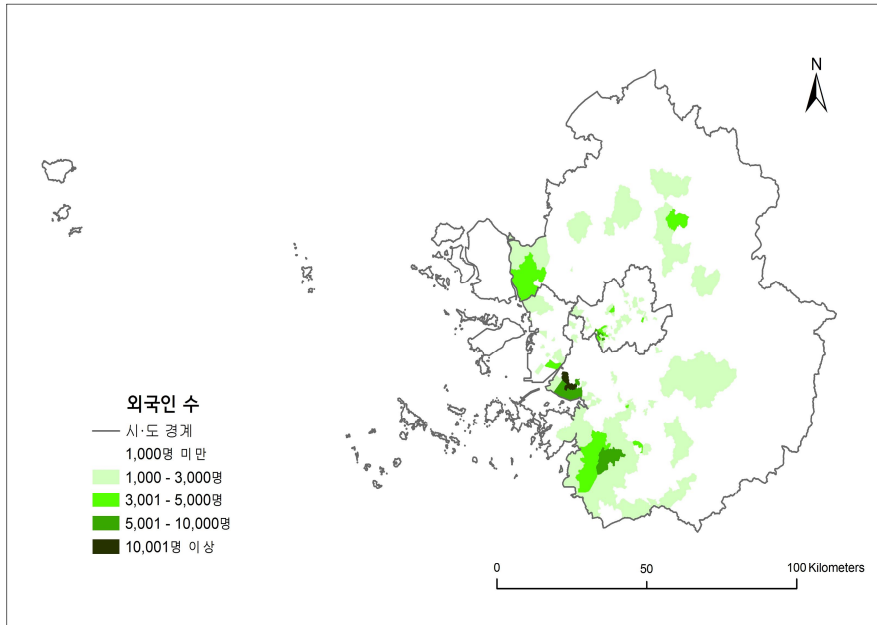


그림 27. 수도권 읍·면·동 등록외국인 수(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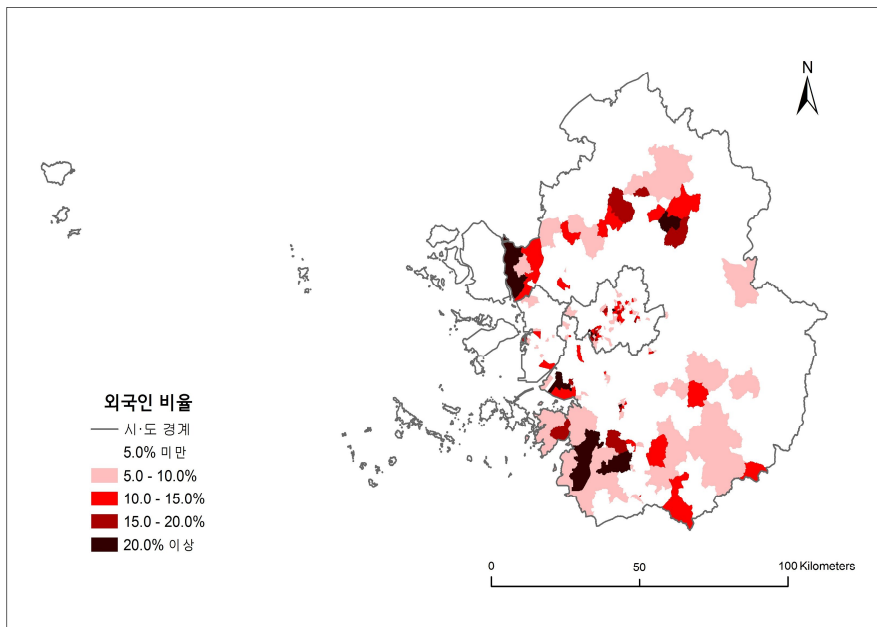


그림 28. 수도권 읍·면·동 등록외국인 비율(2015)

서울시의 행정동 수준에서 외국인 이주자의 공간분포를 살펴보면 외국인의 거주비율이 높은 곳은 영등포구 대림2동(9,952명, 40.7%), 구로구 가리봉동(7,625명, 40.3%), 중구 소공동(621명, 33.2%), 구로구 구로2동(9,108명, 23.9%), 영등포구 대림1동(3,607명, 19%), 구로구 구로4동(5,362명, 18.2%), 금천구 가산동(4,298명, 18%), 광진구 자양4동(4,986명, 17.8%), 서대문구 신촌동(4,000명, 17.7%), 용산구 이태원1동(1,557명, 17.2%)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등은 과거 중소기업의 제조업이 발달했던 곳으로 초기 비전문직 이주자의 유입이 많았던 곳이며 주변에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이 밀집된 특징을 보여준다. 초기 이주자들이 유입한 이후로 취업, 주거, 생활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공간으로 활용되어 이주자들의 사회적 관계가 발전되어 왔다.

경기도는 안산시 단원구 원곡1동(5,340명, 42.4%), 원곡본동(23,394명, 41.3%), 시흥시 정왕본동(13,936명, 35.3%), 김포시 대곶면(4,857명, 32.8%), 화성시 양감면(1,910명, 30.9%), 팔탄면(4,314명, 29.3%), 포천시 가산면(3,420명, 29.2%), 시흥시 정왕1동(9,969명, 26.4%),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3,211명, 22.5%), 화성시 장안면(3,136명, 22.3%) 등의 지역에서 외국인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김포시, 포천시는 모두 수도권 내 공장지대로, 화성-안산-시흥-인천-김포를 잇는 지역은 수도권의 남서부 공업벨트로 기능하면서 비전문직 이주자들의 지속적인 유입을 받아들여 왔다. 이들 대부분은 공장의 기숙사 혹은 주변지역의 저렴한 주택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⁹³⁾. 외국인들이 유입국가에서 주거지역을 선택할 때는 저렴한 임대료와 직장과의 근접성, 접근성을 고려한 편리한 교통편 등이 주요한 요인이 되는 한편, 동일 출신 국가 및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동료의식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경기도 공장지대에 먼저 정착한 이주자가 정박

93) 이용균, 이현욱, 2012, “이주자 공간의 지도화와 공간분포의 특성: 국적과 체류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지도학회지, 12(2), p. 69.

지의 기능을 함으로서 동일 국가 출신의 이주자들이 연쇄이주를 이루어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천의 경우, 중구 북성동(666명, 16%), 서구 가좌1동(1,846명, 12.8%), 남동구 논현고잔동(4,765명, 10.6%) 등이 외국인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이 중에서 중구 북성동과 선린동 일대는 인천 차이나타운으로 1883년 개항 후 청국 조계지로 출발하여 광복 이후 화교(華僑)들의 집단거주지로 발달한 곳이다. 중국음식점, 무역업, 중국물품 관련 잡화점이 집중적으로 입지하고 있어서 화교의 경제활동 및 사회생활의 중심지이지만 주거지는 다소 노후한 상태이고 거주지의 성격이 강한 밀집지역은 아니다. 따라서 화교들은 인근 주택지에 거주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화교들은 인천 시내 주거환경이 더 나은 지역에 거주하기도 한다⁹⁴⁾. 인천시 중구 북성동, 송월동, 신포동, 신흥동에는 대만인이 상대적으로 밀집해 있고, 서구 가좌1동과 남동구 논현고잔동에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출신의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인천의 남동국가산업단지와 서부일대의 공업지대의 비전문직 이주자들이 집중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⁹⁵⁾.

한편 외국인들의 국적을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에는 중국인과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하는 중국인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서울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한국계 중국인의 밀집거주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한국계 중국인의 경우는 영등포구(32,057명, 22.5%), 구로구(26,135명, 18.4%), 금천구(16,207명, 11.4%), 관악구(12,647명, 8.9%) 등이 대표적인 밀집거주지인 반면, 중국인은 동대문구(5,328명, 9.4%), 영등포구(5,323명, 9.4%), 구로구(4,768명, 8.4%), 광진구(4,490명, 7.9%), 성북구(4,288명, 7.6%)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행정동 수준에서 보면, 한국계 중국인은 영등포구 대림2동(8,506명, 6.0%), 구로

94) 박세훈, 2010, “한국의 외국인 밀집지역: 역사적 형성과정과 사회공간적 변화,” 도시행정학보, 23(1), p. 89.

95) 윤현위, 2013, 「지도로 보는 인천」, 인천인닷컴, 2013. 5. 8.

구 구로2동(7,585명, 5.3%), 구로구 가리봉동(6,773명, 4.8%), 구로구 구로4동(4,498명, 3.2%), 금천구 독산3동(4,436명, 3.1%) 등에 집중 거주하고 있고, 중국인은 광진구 화양동(1,842명, 3.3%), 종로구 혜화동(1,674명, 3.0%), 서대문구 신촌동(1,495명, 2.6%), 동대문구 이문1동(1,455명, 2.6%), 동작구 흑석동(1,410명, 2.5%) 등으로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이 거주하는 곳은 공통지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서울에 거주하는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이 체류 목적과 직종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한국계 중국인은 과거 중소규모의 제조업이 밀집한 공장 주변의 저렴하고 노후한 주택에 주로 거주하면서 비전문직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반면, 중국인은 최근 증가한 유학생들이 대학가 주변에 집중거주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음식점과 서비스업도 그 지역에 함께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IV. 외국인 거주지의 정량적 분석

1. 외국인 거주지와 사회·경제적 특성과의 상관분석

본 장에서는 외국인의 거주지 분포에 영향을 미치고 상관성을 갖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수도권외 79개 시·군·구 및 1,131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은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들과 하나의 종속변수의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등록외국인 수(이하 외국인 수)와 인구 천명당 등록외국인 비율(이하 외국인 비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이에 대해 상호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내용으로는 우선, 수도권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공간적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유의미한 독립변수를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는 행정단위별 외국인 수와 외국인 비율 두 가지로 설정하였는데, 따라서 두 종속변수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종속변수인 외국인 수와 외국인 비율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2015년 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하였고, 독립변수는 2015년 말에 발표된 2014년 전국사업체 조사 결과가 가장 최근 자료인 관계로 2014년 시·군·구별 산업대분류 및 산업세세분류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5년 전국사업체 조사결과는 2016년 12월 발표예정이었으나, 매 5년 주기로 실시되는 2016년 경제총조사로 인해 발표가 지연되어 2017년 초에 공표될 예정인 이유로 2015년 자료의 활용이 어렵다. 전국사업체조사의 산업대분류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은 '농·임·어

업'으로 표시하였으며, '제조업'과 '건설업'은 합쳐서 '제조·건설업'으로, '도매 및 소매업'은 '도·소매업'으로,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이상 6 가지 산업대분류는 모두 '저차서비스업'으로 분류하였다. 이것은 특례고용허가제에 따라 고용허용 업종으로 분류된 업종 중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분류 코드에 따른 것이다. 또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은 동일하게 각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산업변수로 설정하였다.

자료수집에 있어서 읍·면·동 단위로 구득 가능한 통계자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군·구 회귀분석과 읍·면·동 회귀분석을 각각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하였는데, 외국인의 거주지 분포와 가장 큰 상관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변수는 시·군·구 분석과 읍·면·동 분석에 각각 모두 적용하였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7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수집 가능한 데이터이자 외국인의 공간 분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변수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다음의 <표 19>와 같이 선정하였다.

표 19. 수도권 시·군·구 회귀분석의 변수선정 및 구성

구분		구성	내용	출처
종속변수		외국인 수	시·군·구별 등록외국인 수	각 시·도 통계연보 (2015)
		외국인 비율	시·군·구별 등록외국인 수 / 주민등록인구*1,000	
독립 변수	주거 환경	종교시설	시·군·구별 종교시설 수	국가통계포털 사업체 조사 (2014)
		유통업체	시·군·구별 대형종합소매업체 수	
		금융기관	시·군·구별 일반은행 수	
		의료시설	시·군·구별 병·의원 수	
		보육시설	시·군·구별 보육시설 수	

		고등교육기관	시·군·구별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수
	산업	농·임·어업	시·군·구별 사업체수
		제조·건설업	시·군·구별 사업체수
		도·소매업	시·군·구별 사업체수
		저차서비스업	시·군·구별 사업체수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시·군·구별 사업체수
		교육서비스업	시·군·구별 사업체수

수도권 지역의 7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외국인 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뒤, 대상 행정단위와 독립변수는 동일하게 설정하고 종속변수를 외국인 비율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두 차례 실시하였다.

표 20. 수도권 시·군·구 회귀분석의 회귀모형 결과

종속변수	R	R ²	Adjusted R ²	p	Durbin-Watson
외국인 수	.764	.583	.507	.000	1.354
외국인 비율	.723	.523	.437	.000	1.308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은 0.000으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 R²값은 각각 0.583과 0.523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12개의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대해 58.3%와 52.3%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이는 수도권 등록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2.68%(702,294 명)로 아직은 주민등록인구 대비 비교적 적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 및 비율과 사회·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변수간의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심리학, 인류학, 사회학, 지리학 등에서 행해지는 인간의 행태 관련 연구는 연구의 성격에

따라 여타 학문 분야에서의 결정계수의 해석과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⁹⁶⁾. 더빈-왓슨(Durbin-Watson)값은 1에서 3 사이의 값을 보이면 잔차의 독립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모형에서는 각각 1.354와 1.308로 잔차의 독립성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시·군·구별 외국인 수와 외국인 비율의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21>과 같다.

표 21. 수도권 시·군·구별 외국인 공간분포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독립변수	외국인 수			외국인 비율		
	β	t	p	β	t	p
상수		.106	.916		3.684	.000
종교시설	-.222	-1.118	.268	-.216	-1.019	.312
유통업체	.246	1.658	.102	.271	1.709	.092
금융기관	.670	1.403	.165	.917	1.796	.077
의료시설	-.606	-1.428	.158	-.739	-1.629	.108
보육시설	.072	.404	.688	.005	.025	.980
고등교육기관	.106	1.141	.258	.083	.837	.406
농·임·어업	.037	.420	.676	.145	1.517	.134
제조·건설업	.586	4.706	.000	.436	3.276	.002
도·소매업	-.712	-2.892	.005	-.540	-2.050	.044
저차서비스업	.963	3.425	.001	.810	2.694	.00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055	.202	.840	.064	.222	.825
교육서비스업	-.498	-1.558	.124	-.765	-2.240	.028

주: 음영된 부분은 $p < 0.05$

외국인 수와 외국인 비율을 종속변수로 한 시·군·구 회귀분석 결과, 표준화 베타(β)지수를 비교하면 저차서비스업, 제조·건설업은 정(+)의 상관관계를, 도·소매업은 부(-)의 상관관계를 동일하게 나타냈다. 외국인 비율이 종속변수인 경우에는 교육서비스업이 추가적으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

96) Jacob Cohen은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s(1988)에서 결정계수를 small, middle, large 세 가지 지표로 구분하였는데, 각각 small: $0.02 \leq R^2$, middle: $0.13 \leq R^2$, large: $0.26 \leq R^2$ 이다.

다. 즉 수도권 시·군·구 단위의 거주지역에서 저차서비스업과 제조·건설업이 모여 있는 지역에 외국인 수가 많고 외국인 비율도 높은 반면, 도·소매업이 집중된 지역에는 외국인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서비스업이 많은 지역은 외국인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수도권 거주 외국인들은 저차서비스업과 제조·건설업에 집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제로 비전문 외국인력의 업종 분포 상 제조업과 건설업에 외국인력이 가장 많이 취업해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⁹⁷⁾.

표 22. 수도권 시·군·구별 외국인 공간분포의 영향요인 결과 요약

외국인 수		외국인 비율	
정(+) 의 관계	저차서비스업	정(+) 의 관계	저차서비스업
	제조·건설업		제조·건설업
부(-) 의 관계	도·소매업	부(-) 의 관계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다음으로 수도권 읍·면·동을 대상으로 종속변수를 외국인 수와 외국인 비율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시·군·구 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종속변수인 외국인 수와 외국인 비율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2015년 통계연보를 활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시·군·구 회귀분석과 동일한 이유로 2014년 전국사업체조사에 발표된 읍·면·동별 산업대분류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매 5년 주기로 실시되는 2015년 주택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아파트 비율과 다세대주택 및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 비율을 각각 산출하였다. 주택총조사에서 정의한 아파트는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5층 이상의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그리고 다세대주택은 한 건물 내에 여러 가

97) 이규용, 박성재, 2008, “외국인력 고용구조와 영향,” 노동리뷰, pp. 32-33.

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하며 세대(가구) 별로 분리하여 각각 등기가 가능하며, 매매 또는 소유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영업용(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이란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 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주택의 요건을 갖추면서 외국인의 주거 형태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다세대주택과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을 합쳐서 주택 변수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이상의 정의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설정한 변수는 다음의 <표 23>과 같다.

표 23. 수도권 읍·면·동 회귀분석의 변수선정 및 구성

구분	구성	내용	출처	
종속 변수	외국인 수	읍·면·동별 등록외국인 수	각 시·도 통계연보 (2015)	
	외국인 비율	읍·면·동별 등록외국인 수/ 주민등록인구*1,000		
독립 변수	산업	농·임·어업	읍·면·동별 사업체 수	국가통계포털 사업체 조사 (2014)
		제조·건설업	읍·면·동별 사업체 수	
		도·소매업	읍·면·동별 사업체 수	
		저차서비스업	읍·면·동별 사업체 수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읍·면·동별 사업체 수	
		교육서비스업	읍·면·동별 사업체 수	
	주택	아파트 비율	읍·면·동별 아파트 수/ 전체 주택 수*100	국가통계포털 주택총조사(2015)
		다세대주택 및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비율	읍·면·동별 해당 주택 수/ 전체 주택 수*100	
외국인	외국인 학교	수도권 외국인 학교 수	Hi Korea	

관련	외국인 지원기관	수도권 외국인 지원기관 수	(http://www.hikorea.go.kr)
	2005년 외국인비율	읍·면·동별 외국인 수/ 읍·면·동별 인구*100	각 시·도 통계연보

시·군·구 분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우선,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수도권 지역의 1,131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외국인 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음으로 대상 행정단위와 독립변수는 동일하게 설정하고 종속변수를 외국인 비율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회귀모형의 요약은 다음의 <표 24>와 같다.

표 24. 수도권 읍·면·동 회귀분석의 회귀모형 결과

종속변수	R	R ²	Adjusted R ²	p	Durbin-Watson
외국인 수	.580	.337	.330	.000	1.612
외국인 비율	.747	.557	.553	.000	1.619

회귀분석 결과, 외국인 수에 대한 회귀모형은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 R²값은 0.330으로 나타나 33%의 설명력을 가진다. 외국인 비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분석에서도 유의확률은 0.000으로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으며, 결정계수 R²값은 0.553으로서 55.3%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이 외국인 비율을 더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잔차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더빈-왓슨값은 1.612와 1.619으로 각각 2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어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수와 외국인 비율을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 25>와 같다.

표 25. 수도권 읍·면·동별 외국인 공간분포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독립변수	외국인 수			외국인 비율		
	β	t	p	β	t	p
상수		-1.162	0.245		8.997	.000
농·임·어업	-0.015	-0.567	0.571	-.004	-.201	.841
제조·건설업	0.126	4.102	0.000	-.015	-.577	.564
도·소매업	-0.048	-1.542	0.123	.040	1.579	.115
저차서비스업	0.298	7.606	0.000	.076	2.384	.01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0.153	-5.086	0.000	-.052	-2.106	.035
교육서비스업	-0.048	-1.385	0.166	-.073	-2.586	.010
아파트 비율	-0.030	-0.785	0.433	-.243	-7.857	.000
다세대주택 및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비율	0.034	0.959	0.338	-.073	-2.551	.011
외국인 학교	0.012	0.489	0.625	-.001	-.033	.974
외국인 지원기관	0.098	3.838	0.000	.105	5.062	.000
2005년 외국인 비율	0.401	13.650	0.000	.637	26.551	.000

주: 음영된 부분은 $p < 0.05$

분석 결과, 두 가지 종속변수에 공통적으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설명 변수로는 저차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005년 외국인 비율, 외국인 지원기관 네 가지로 나타났다. 수도권 외국인의 공간적 집중현상은 2005년에도 밀집되었던 지역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산업에 있어서는 저차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외국인 지원기관의 근린에서 밀집된 외국인 이주자들의 거주지를 찾아볼 수 있다. 반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서울의 경우에만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주자가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로 보면 전문직 이주자는 낮게 나타난다. 표준화 베타(β)값은 어떤 독립변수가 더 영향력이 큰지 비교할 수 있는 척도인데 위의 <표 2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외국인 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경우 2005년 외국인 비율, 저차서비스업, 제조·건설업, 외국인 지원기관 수의 순서로 정(+)의 영향

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종속변수가 외국인 비율일 경우 표준화 베타(β)값을 살펴보면, 2005년 외국인 비율, 외국인 지원기관 수, 저차서비스업의 순서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아파트 비율, 교육서비스업, 다세대주택 및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비율,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순으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어 종속변수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상에서 공통적으로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변수는 저차서비스업, 외국인 지원기관 수, 2005년 외국인 비율인데, 수도권 전체로 볼 때 비전문직 이주자들이 저차서비스업에 다수 종사하고 있고, 외국인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아 정착하여 커뮤니티를 확대시켜 나가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된다.

표 26. 수도권 읍·면·동별 외국인 공간분포의 영향요인 결과 요약

외국인 수		외국인 비율	
정(+) 의 관계	2005년 외국인 비율	정(+) 의 관계	2005년 외국인 비율
	저차서비스업		외국인 지원기관 수
	제조·건설업		저차서비스업
부(-) 의 관계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부(-) 의 관계	아파트 비율
			교육서비스업
			다세대주택 및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비율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지금까지 수도권 시·군·구 및 읍·면·동별 회귀분석을 통해 외국인의 공간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결과, 저차서비스업과 제조·건설업은 공통적으로 수도권 외국인의 공간적 집중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 요인임을 파악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분류된 고용허용 업종과 전국사업체조사 산업대분류를 비교하여 본 논문에서 재구성한 업종 가운데, 특히 저차

서비스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산동물 및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 무점포 소매업, 육상여객 운송업, 호텔업, 여관업, 일반음식점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육탕업, 산업용 세탁업, 개인 간병인, 가구 내 고용활동,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냉동 창고업 등이 고용허용 업종에서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항목들이다.

최병두는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있어서, 첫째로는 국내 노동력의 대체성과 보완성, 둘째로는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지적하였다⁹⁸⁾. 그런데 2000년대 이후 한국은 1997년 경제위기를 벗어나면서 꾸준한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가운데, 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제성장, 산업의 고도화, 생활수준의 향상, 교육수준의 향상 등은 수도권의 노동집약적인 업종들이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는 직·간접적인 조건이 되었다. 따라서 노동기회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대도시를 목적지로 선택한 외국인 이주자들은 노동집약적인 업종에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노동기회를 얻고, 인력부족현상을 겪는 중소기업체들의 노동력 공급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력부족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체들은 설비의 자동화와 더불어 외국 및 국내(여성, 노인, 병역대체 등) 인력 충원으로 인력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은 저렴한 노동력의 도입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⁹⁹⁾.

98) 최병두, 2009,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3), pp. 375-378.

99) 최병두, 위의 책, pp. 380-384.

2.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지표 분석

메시와 텐튼이 제시한 5개의 거주지 분리 지표는 거주지 분리를 측정하기 위한 정량적 지표로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꾸준히 검증되고 활용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메시와 텐튼의 5개 거주지 분리 지표인 균일성(evenness), 노출성(exposure), 집중성(concentration), 중심성(centralization), 군집성(clustering)으로 수도권 시·군·구별 거주지 분리 측정을 시도하였다.

첫 번째 지표인 균일성은 상이지수로 측정할 수 있는데, 2015년 기준 수도권 읍·면·동별 내국인 수와 외국인 수 데이터를 이용해서 산출한 각 시·군·구별 상이지수 결과는 다음의 <표 27>과 같다. 상이지수 값이 클수록 내국인 집단과 외국인 집단 간의 공간적 분리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당 지역에 외국인 이주자가 많이 밀집해 있고 내국인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아래 <표 27>에서 보듯이, 상이지수가 0.6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거주지 분리가 이루어진 지역은 경기도 시흥시이다. 경기도 김포시와 군포시의 상이지수도 0.6에 가까워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공간적 분리 정도는 높은 편이다. 서울에서는 구로구, 광진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중구의 상이지수가 높은 편이다. 반면, 서울의 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동구, 서울 서초구, 인천 옹진군, 경기 연천군, 서울 도봉구 등은 상이지수가 0.2 이하로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가 매우 낮은 지역인데, 이들 지역은 각 시·도에서 외국인 거주 인구가 비교적 적은 군·구에 해당한다.

2015년 기준 수도권 79개 시·군·구의 상이지수 평균은 0.3292로, 평균 이상이자 0.3 이상의 보통 수준의 거주지 분리를 보여주는 시·군·구는 35개이다. 2000년 이후 5년 단위로 산출한 상이지수 평균은 0.3058~0.3559이고, 이러한 평균 이상의 상이지수는 나타내는 시·군·구는 33~37개 지역으로 비교적

비슷한 양상을 보여 왔다. 2015년의 경우, 높은 수준의 상이지수가 측정되는 지역은 수도권 79개 시·군·구의 약 1.3%, 보통 수준의 상이지수는 57.0%, 낮은 수준은 41.8%로, 보통 수준의 상이지수가 측정되는 시·군·구가 제일 많지만 낮은 수준의 상이지수를 보이는 시·군·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아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일부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상의 한국 수도권의 상이지수를 미국 주요 대도시들에 거주하는 흑인의 상이지수와 비교해보면, 뉴욕의 경우 0.769, 시카고는 0.752, 로스앤젤레스는 0.652 등 대도시 통계지역(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MSA) 평균은 0.571로¹⁰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상이지수가 아직 미국 대도시의 수준만큼 높지는 않으나, 비교적 단기간 내에 보통 수준의 거주지 분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7. 수도권의 상이지수 상·하위 15개 시·군·구(2015)

순위	상위 15개 시·군·구	상이지수	하위 15개 시·군·구	상이지수
1	경기 시흥시	0.6285	서울 은평구	0.1168
2	경기 김포시	0.5940	인천 계양구	0.1375
3	경기 군포시	0.5936	인천 동구	0.1536
4	서울 구로구	0.5680	서울 서초구	0.1678
5	경기 안산시 단원구	0.5562	인천 옹진군	0.1738
6	경기 화성시	0.4915	경기 연천군	0.1824
7	경기 양주시	0.4821	서울 도봉구	0.1987
8	서울 광진구	0.4814	서울 중랑구	0.2120
9	서울 서대문구	0.4470	경기 의왕시	0.2170
10	서울 영등포구	0.4326	경기 구리시	0.2274
11	인천 남동구	0.4230	경기 과천시	0.2300
12	경기 동두천시	0.4229	경기 성남시 중원구	0.2353
13	서울 중구	0.4220	경기 남양주시	0.2421
14	경기 부천시 원미구	0.4206	경기 양평군	0.2431
15	경기 부천시 오정구	0.4192	경기 여주시	0.2453

100) US2010 Project, Spatial Structures in the Social Sciences, Brown University, <http://www.s4.brown.edu/us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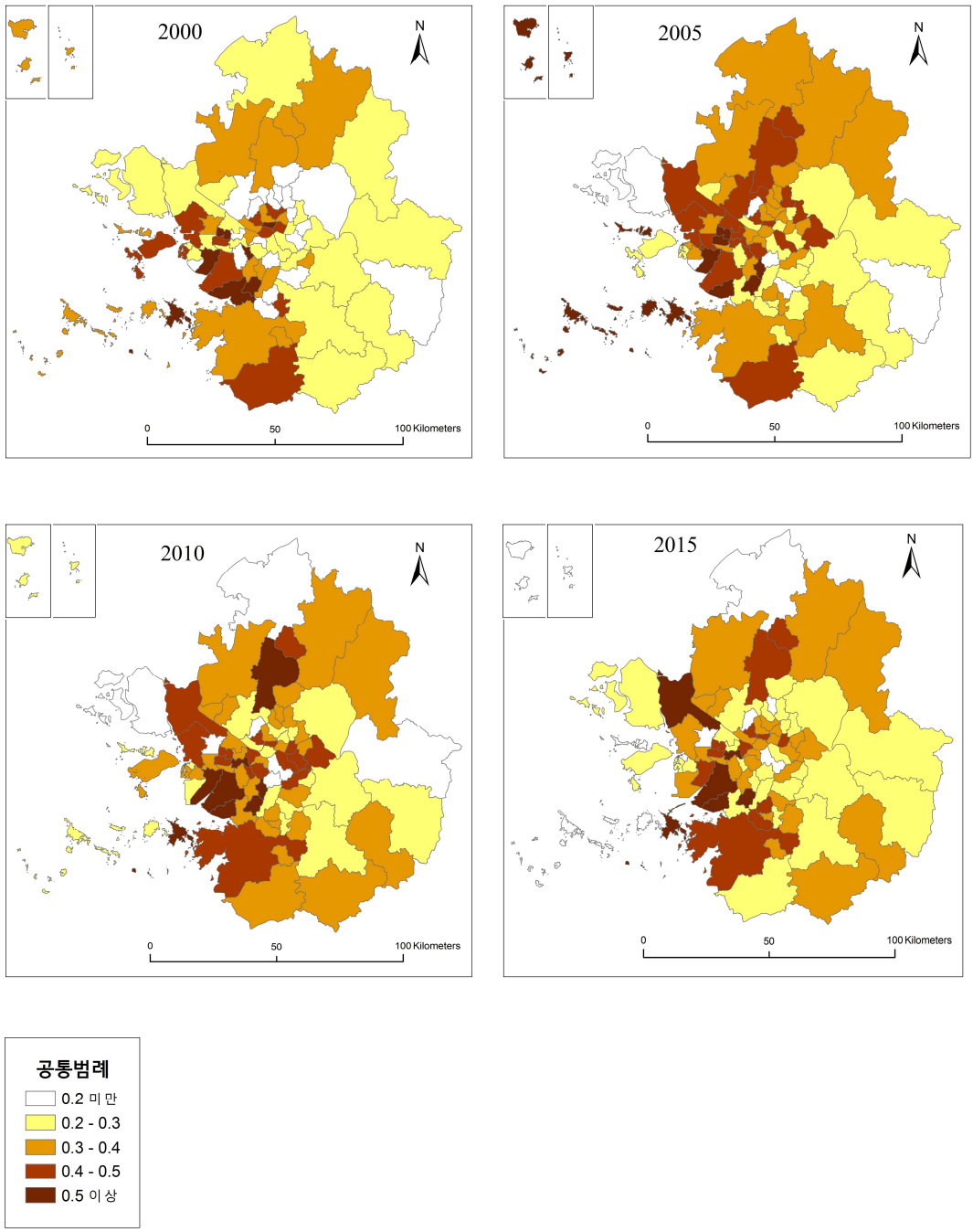


그림 29. 수도권 시·군·구의 상이지수(2000-2015)

2000년 이후 5년 단위로 산출한 상이지수가 0.5 이상으로 높은 시·군·구는 다음의 <표 28>과 같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와 군포시는 외국인 이주자들이 유입되던 초기부터 현재까지 높은 상이성을 보여 온 지역이고, 경기도 부천시와 안양시 등이 2000년대 초반에 높은 상이성을 나타낸 반면, 점차 시흥시, 김포시 일대로 외국인의 거주지 분포가 확장되고 이동해온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표 28. 높은 상이성을 나타내는 시·군·구의 변화(2000-2015)

2000	2005	2010	2015
경기 안산시	인천 남동구	경기 군포시	경기 시흥시
인천 남동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경기 김포시
서울 금천구	경기 군포시	경기 시흥시	경기 군포시
경기 부천시 오정구	인천 옹진군	인천 남동구	서울 구로구
서울 중구	경기 부천시 오정구	서울 구로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경기 군포시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기 양주시	
	경기 부천시 원미구	경기 안양시 동안구	

두 번째로 외국인 이주자들이 서로 간에 노출된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고립지수가 있는데, 최소값 0에서 최대값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즉, 1에 가까울수록 외국인 이주자들이 서로에게만 노출되는 정도가 크고 따라서 외국인들이 내국인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정도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립지수를 산출한 아래 <표 29>를 살펴보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기도 시흥시, 서울시 구로구와 영등포구, 경기도 김포시 등의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노출되는 정도가 낮고 동질집단 구성원간의 교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경기 과천시, 서울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인천 옹진군 등은 외국인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내국인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고립지수가 낮은 지역들이다.

표 29. 수도권 외의 고립지수 상·하위 15개 시·군·구(2015)

순위	상위 15개 시·군·구	고립지수	하위 15개 시·군·구	고립지수
1	경기 안산시 단원구	0.3071	경기 과천시	0.0059
2	경기 시흥시	0.2483	서울 도봉구	0.0067
3	서울 구로구	0.2095	서울 노원구	0.0097
4	서울 영등포구	0.1974	서울 은평구	0.0101
5	경기 김포시	0.1623	인천 옹진군	0.0101
6	경기 포천시	0.1406	경기 성남시 분당구	0.0103
7	경기 화성시	0.1395	경기 구리시	0.0105
8	서울 중구	0.1238	인천 계양구	0.0107
9	경기 수원시 팔달구	0.1236	경기 의왕시	0.0115
10	서울 금천구	0.1162	경기 용인시 수지구	0.0116
11	서울 광진구	0.1012	경기 안양시 동안구	0.0116
12	경기 양주시	0.0926	서울 서초구	0.0123
13	서울 서대문구	0.0899	경기 남양주시	0.0125
14	경기 성남시 수정구	0.0885	서울 양천구	0.0130
15	서울 용산구	0.0866	경기 의정부시	0.0131

2000년 이후 고립지수 평균은 0.0178(2000), 0.0311(2005), 0.0500(2010), 0.0556(2015)로 각각 변화해왔는데, 고립지수가 0.15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고립성을 나타낸 지역은 다음의 <표 30>과 같다. 앞서 상이성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인 경기도 안산시는 고립성 지표에서도 외국인 유입 초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고립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서울에서는 구로구와 영등포구가 외국인의 고립성 지표가 높은 지역임을 파악할 수 있다.

표 30. 높은 고립성을 나타내는 시·군·구의 변화(2000-2015)

2000	2005	2010	2015
경기 안산시	인천 남동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서울 구로구 경기 시흥시 서울 영등포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경기 시흥시 서울 구로구 서울 영등포구 경기 김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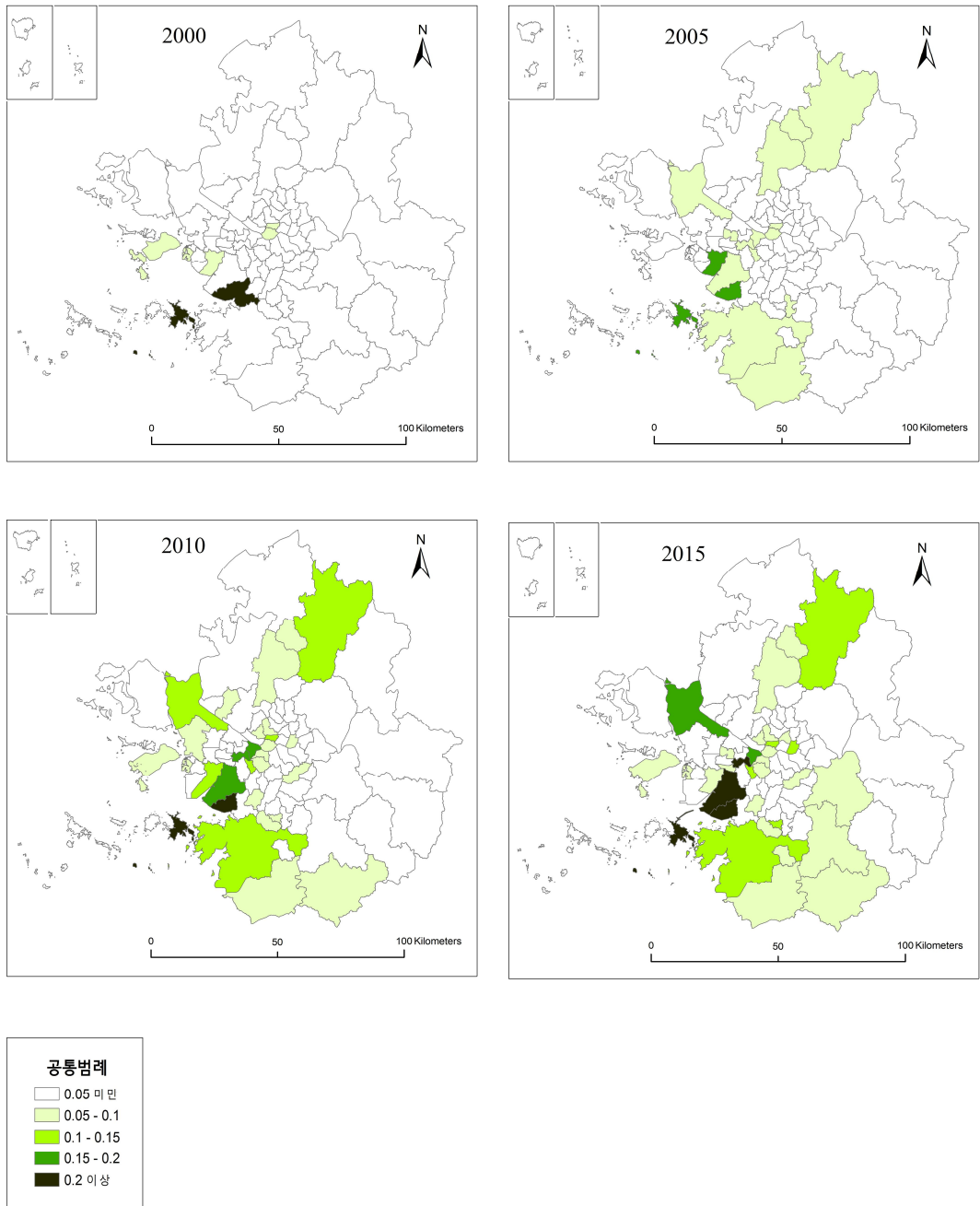


그림 30. 수도권 시·군·구의 고립지수(2000-2015)

고립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안산시 단원구 내에서도 원곡본동과 원곡1동은 외국인 이주자들이 집중거주하고 있어서 외국인 비율이 특히 높은 지역이다. 2015년 원곡본동 인구 56,578명 중에서 41.3%인 23,394명이 외국인 이주자이고, 이웃해서 위치하고 있는 원곡1동의 외국인 비율도 42.4%(5,340명)에 달한다. 이밖에도 선부2동(5,671명, 20.0%)과 초지동(6,809명, 13.0%)의 등록외국인도 비중도 높다. 안산시 단원구 일대는 시화공단과 반월공단 사이에 위치해서 교통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집거지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는데 집거지가 형성된 이후로 정보교환과 네트워크의 장소로 활용되면서 새로운 장소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시켜 점점 더 많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모여들었다.

안산시는 외국인에 대한 행정 인프라가 가장 처음 형성된 지역이기도 한데 2005년부터 시차원에서 외국인 지원사업을 시행하였고, 2008년에는 한국 최초의 외국인 전용 주민센터도 설치한 바 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와 더불어 높은 고립지수를 나타낸 서울시 구로구와 영등포구는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구로공단으로 불리던 수출산업공단 공장 노동자들이 밀집해서 거주하던 지역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첨단산업의 입주가 늘어나자 이 지역은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되고, 구로공단에서 일하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도 좀 더 지대가 저렴한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더 이상 공장 노동자들의 주거지역으로 기능하지 않고 있는 오늘날에는 외국인 전용 상업지역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업이 밀집해있는 지역이다. 미국 10개 대도시 통계지역(MSA)의 고립지수와 비교해보면, 흑인의 고립지수 평균은 0.383인데, 뉴욕의 경우 0.513, 시카고는 0.648, 디트로이트는 0.7 정도로 인구집단이 규모가 큰 대도시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고립상태를 보여준다¹⁰¹).

세 번째, 외국인 이주자들의 공간적 집중성을 알아보기 위해 델타지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의 <표 31>과 같다.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특정 지역에 집중해서 거주하는 곳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군포시, 시흥시, 서울 영등포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인천 중구, 서울시 구로구, 경기 광명시 등으로 이 지역의 델타지수가 높게 나타난다. 수도권 시·군·구의 면적은 가장 넓은 경기 양평군(877.8 km²)부터 가장 좁은 인천 동구(7.2 km²)에 이르기까지 면적의 범위가 매우 넓은데, 지역이 넓은 시·군·구에서는 공간적 집중성이 약하게 나타나고, 면적이 50 km² 이하의 시·군·구에서 외국인이 보다 집중해서 거주함을 파악할 수 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는 이 지역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되어 중·대규모 개발이 제한된 것이 특징이다. 인근 대도시권을 소비지로 한 시설 재배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국인지원센터도 위치해 있는데, 따라서 주거용도가 비교적 제한된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집중거주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31. 수도권의 델타지수 상·하위 15개 시·군·구(2015)

순위	상위 15개 시·군·구	델타지수	하위 15개 시·군·구	델타지수
1	경기 성남시 수정구	0.7621	경기 이천시	0.2166
2	경기 군포시	0.7031	서울 용산구	0.2255
3	경기 시흥시	0.6493	서울 중구	0.2437
4	경기 안산시 단원구	0.6465	서울 성동구	0.2500
5	경기 안양시 만안구	0.6284	인천 동구	0.2524
6	서울 영등포구	0.6274	서울 양천구	0.2534
7	인천 중구	0.6159	경기 용인시 처인구	0.2649
8	경기 광명시	0.6154	인천 옹진군	0.2660
9	서울 구로구	0.6073	경기 화성시	0.2823
10	인천 연수구	0.5976	경기 김포시	0.2843
11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0.5587	서울 중랑구	0.2898
12	경기 연천군	0.5468	경기 여주시	0.3003

101) US2010 Project, Spatial Structures in the Social Sciences, Brown University, <http://www.s4.brown.edu/us2010>

13	서울 광진구	0.5435	인천 남구	0.3013
14	서울 종로구	0.5425	경기 양주시	0.3106
15	서울 강동구	0.5386	서울 금천구	0.3107

2000년 이후 델타지수의 평균은 0.4126(2000), 0.4268(2005), 0.4249(2010), 0.4146(2015)로 각각 변화해왔다. 이 중에서 델타지수가 0.6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집중성을 나타내는 시·군·구를 다음의 <표 32>에 나타냈다. 외국인 유입 초기에는 경기도와 인천시의 시·군·구에서만 높은 외국인의 집중성을 나타내다가, 2010년 이후로는 서울의 관악구, 영등포구, 구로구 등의 지역에 높은 외국인의 집중성이 관찰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시 내에서 면적이 비교적 넓은 구에 해당되는데 외국인 이주자들의 집중과 밀집으로 인해 높은 집중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 높은 집중성을 나타내는 시·군·구의 변화(2000-2015)

2000	2005	2010	2015
인천 중구	경기 군포시	경기 군포시	경기 성남시 수정구
경기 성남시 수정구	경기 성남시 수정구	경기 성남시 수정구	경기 군포시
경기 연천군	경기 용진군	인천 중구	경기 시흥시
경기 안산시	인천 중구	서울시 관악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경기 군포시	경기 연천군	경기 안양시 만안구	경기 안양시 만안구
경기 시흥시	경기 안산시 단원구	경기 시흥시	서울 영등포구
		경기 광명시	인천 중구
			경기 광명시
			서울 구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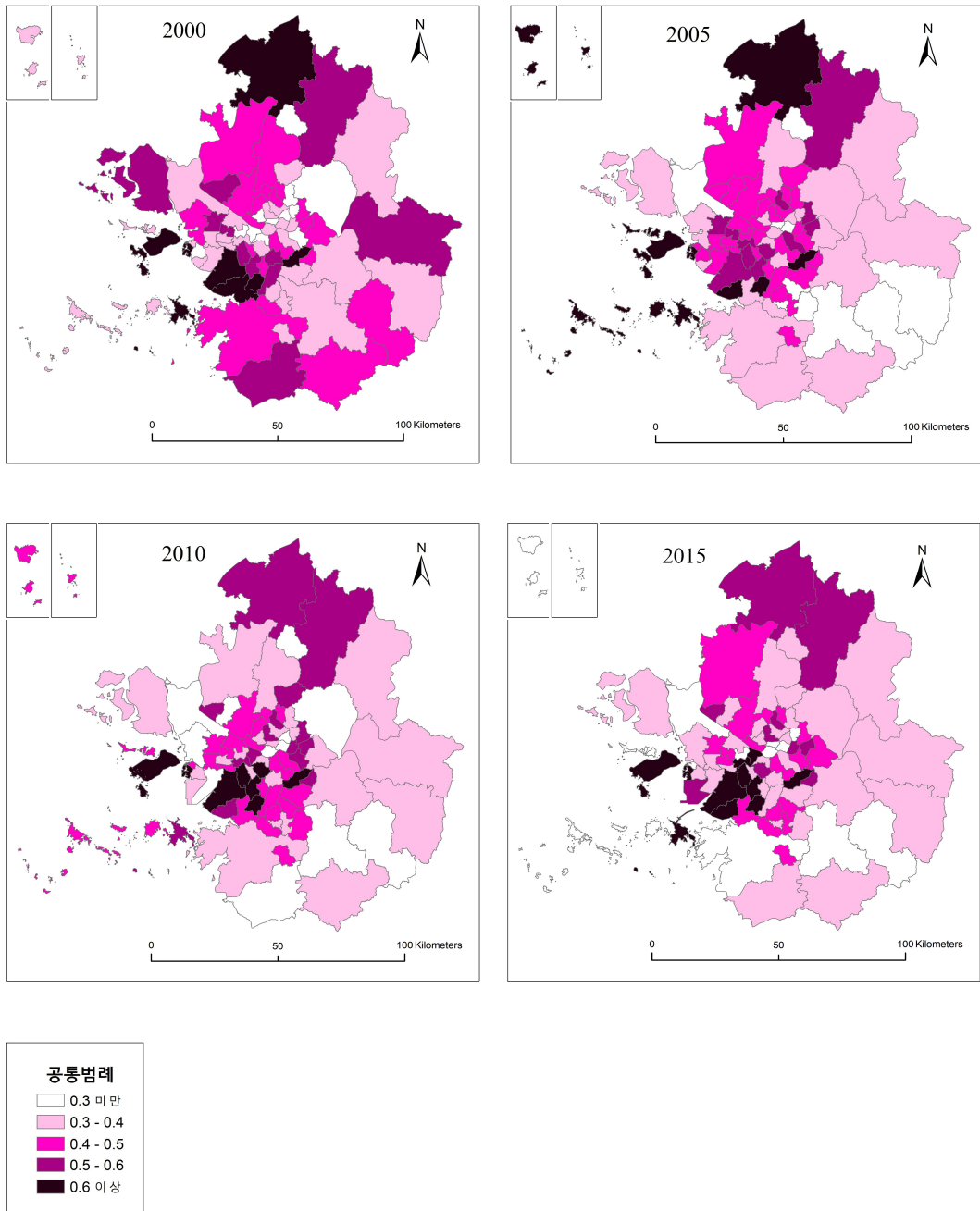


그림 31. 수도권 시·군·구의 델타지수(2000-2015)

네 번째, 중심성 지표 측정은 수도권외의 중심화 비율지수 대신 서울시만을 대상으로 한 중심화 비율지수를 산출하였고, 도심부의 범위는 서울시의 전통적인 중심지역인 종로구와 중구로 정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서울의 경우 도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비율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중구와 종로구에 거주하는 전문직 이주자들의 집중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 수도권 외국인과의 중심화비율지수(2015)

	외국인 중심화비율지수	내국인 중심화비율지수
서울	6.34	2.80

이어서, 서울시의 중구와 종로구를 도심부로 정의하고 외국인의 출신국적과 출신대륙에 따라 중심화비율지수를 산출한 결과는 아래 <표 34> 및 <표 35>와 같다.

표 34. 서울시 외국인의 국적별 중심화비율지수(상·하위 15개국, 2015)

(단위: 명)

순위	상위 15개국	중심화 지수	외국인수	하위 15개국	중심화 지수	외국인수
1	오만	66.67	8	나이지리아	1.22	8
2	네팔	37.85	405	아일랜드	1.70	4
3	이스라엘	34.69	34	방글라데시	2.48	15
4	우즈베키스탄	30.47	586	이집트	2.88	12
5	러시아	18.44	260	캄보디아	3.15	32
6	네덜란드	17.71	48	터키	3.62	13
7	브라질	16.73	43	미얀마	4.36	23
8	카자흐스탄	16.45	90	이라크	4.62	3
9	오스트레일리아	15.93	112	캐나다	4.75	85
10	오스트리아	14.52	18	말레이시아	5.04	51
11	키르기스스탄	14.06	35	일본	5.20	436
12	싱가포르	13.56	56	중국	5.27	10,469

13	이탈리아	13.43	54	뉴질랜드	5.28	14
14	벨기에	13.13	21	남아프리카 공화국	5.29	18
15	핀란드	11.21	12	필리핀	5.30	195

오만, 이스라엘, 네덜란드, 브라질 등은 외국인 수가 적기 때문에 중심화지수가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 밖에도 네팔,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은 도심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은, 중심화지수가 높은 국가들에 해당된다. 한편, 서울에 거주하는 한국계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인은 2015년 기준 198,773명으로 전체 외국인들의 국적별 분류로 볼 때 72.3%를 차지할 정도로 다수이지만 이들의 중심화지수는 높지 않다. 중국인들은 도심보다는 서울의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동대문구, 광진구 등에 밀집거주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어서 아래 <표 35>와 같이 출신대륙별로 중심화비율지수를 살펴보면,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및 CIS 출신의 외국인들이 도심부에 집중해서 거주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5. 서울시 외국인의 출신대륙별 중심화비율지수(2015)

순위	출신대륙	중심화지수	외국인 수
1	중앙아시아	26.15	711
2	러시아	18.44	260
3	남아시아	15.18	758
4	오세아니아	13.02	126
5	남미	10.75	103
6	중동	9.82	108
7	유럽	9.17	667
8	동남아시아	6.36	1,115
9	북미	6.00	661
10	동아시아	5.58	12,374
11	아프리카	3.71	67

마지막으로 외국인 이주자들의 거주지 분리에 있어서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수도권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모란지수를 1995

년부터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까지 매 5년 단위로 산출한 결과는 다음의 <표 36>과 같다.

표 36. 수도권 지역의 글로벌 모란지수의 변화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5
Moran's I	-0.0113	0.0340	0.0338	0.396	0.0443
Z Score	0.3129	2.5916	2.5941	3.0097	3.2682
p-value	0.7544	0.0096	0.0095	0.0026	0.0011

주: 음영된 부분은 p-value가 0.05 이하로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면서 z-score가 1.96 이상인 지역임.

대상지역인 수도권에 있어서, 인접한 시·군·구에 유사한 수준의 외국인 이주자들이 거주할 경우 모란지수는 높은 정(+)적인 공간상관을 갖는 반면, 인접한 시·군·구들이 서로 상이한 수치를 보이게 되면 높은 부(-)적 공간상관을 보이게 된다. 글로벌 지수의 클러스터 모형을 살펴보면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은 모두 클러스터화 된 모형결과를 보여주는데, 즉 0보다 큰 정(+)의 계수가 산출되어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존재하고 외국인들이 공간상에서 군집 거주하여 인접한 지역에서 비슷한 관측치를 갖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반면, 임의의 형태를 보이는 1995년 모형결과는 부(-)의 값을 나타내어 이 시기의 외국인 거주는 클러스터도, 분산도 아닌 형태로 외국인 수가 많은 곳과 적은 곳이 혼합되어 임의적으로 분포되어 있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외국인 이주자들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입국하기 시작한 시기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으로, 이 시기 이전까지는 외국인 밀집거주지를 가지적으로 형성하지 않았고, 2000년 이후 본격적인 밀집거주지를 형성해왔다. 이는 2003년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정책 시행으로 비전문직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과 관계가 있다.

2000년 이후로 글로벌 모란지수는 대체로 상승하면서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점점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2005년에 예외적으로 약간의 감소 경향을 보인 것은 2005년을 전후로 1-2년간의 외국인 거주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2003년 8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4년 본격 시행된 이후로 여러 차례 개정되거나 미등록 체류자를 합법화하는 등의 정책 변화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의 거주가 비교적 큰 폭의 변동을 보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공간적 자기상관성의 지역적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매 5년 단위로, 수도권 7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로컬 모란지수를 산출하여 나타낸 결과는 아래 <표 37>과 같다. 수도권 시·군·구별 로컬 모란지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00년 이후로 외국인 이주자의 공간적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에는 고용허가제로 이주 정책이 변화하는 국내 상황으로 인해 공간적 상관성이 다소 약화된 것이 확인되지만, 2010년 이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와 서울시 영등포구, 구로구, 동작구 등을 중심으로 정(+)의 공간적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7. 수도권 시·군·구별 로컬 모란지수의 변화

행정구역	1995	2000	2005	2010	2015
서울 종로구	0.0011	0.0954	0.0201	0.0154	-0.0002
서울 중구	0.0129	0.2231	0.0251	0.0173	-0.0029
서울 용산구	-0.0046	0.4427	0.2284	0.1228	0.0671
서울 성동구	-0.0039	-0.0203	0.0337	0.0037	-0.0042
서울 광진구	-0.0005	-0.0083	0.0117	0.0026	-0.0445
서울 동대문구	-0.0004	-0.0120	0.0132	0.0100	-0.0271
서울 중랑구	0.0024	-0.0161	0.0016	-0.0003	0.0281
서울 성북구	0.0004	0.0441	0.0066	0.0061	-0.0052
서울 강북구	-0.0028	-0.0521	-0.0060	0.0043	0.0405
서울 도봉구	-0.0012	-0.0080	0.0154	0.0317	0.0766
서울 노원구	0.0005	0.0029	0.0139	0.0252	0.0631

서울 은평구	-0.0050	-0.0644	-0.0379	-0.0341	-0.0154
서울 서대문구	0.0095	0.3694	0.1159	0.0398	0.0214
서울 마포구	0.0052	0.1426	0.0736	0.0409	0.0406
서울 양천구	0.0010	-0.0291	-0.0759	-0.1256	-0.1566
서울 강서구	0.0017	-0.0090	-0.0083	-0.0245	-0.0260
서울 구로구	0.0038	-0.0109	0.2144	0.4907	0.3068
서울 금천구	0.0002	0.0149	0.1348	0.3751	0.2313
서울 영등포구	0.0005	0.1061	0.3570	0.5983	0.3271
서울 동작구	-0.0030	-0.0596	0.0187	0.1647	0.0898
서울 관악구	0.0020	-0.0284	0.1314	0.3037	0.1683
서울 서초구	0.0016	0.1720	0.0304	-0.0286	-0.0150
서울 강남구	-0.0041	0.2067	0.0500	-0.0055	-0.0031
서울 송파구	-0.0006	0.0309	0.0024	0.0007	0.0079
서울 강동구	0.0020	-0.0077	0.0022	0.0029	0.0305
인천 중구	-0.0097	-0.0235	-0.0337	-0.0484	-0.0572
인천 동구	0.0072	-0.1562	-0.1296	-0.1067	-0.1102
인천 남구	-0.0039	0.0314	-0.0034	-0.0097	-0.0171
인천 연수구	0.0215	-0.1663	-0.1593	-0.0986	-0.0541
인천 남동구	0.0022	0.1448	0.1294	0.0845	0.0726
인천 부평구	-0.0003	-0.0181	0.0050	0.0025	0.0122
인천 계양구	0.0071	-0.0602	-0.0617	-0.0648	-0.0576
인천 서구	0.0026	0.0379	0.0116	0.0149	0.0080
인천 강화군	-0.0167	-0.1683	-0.1326	-0.1006	-0.0694
인천 옹진군	0.1231	1.1588	1.3487	1.0567	0.9448
경기 수원시 장안구	0.0197	-0.0057	0.0475	-0.0001	-0.0106
경기 수원시 권선구	0.0267	-0.0270	0.0116	-0.0142	0.0025
경기 수원시 팔달구	0.0171	0.0004	0.0396	-0.0182	-0.0061
경기 수원시 영통구	N/A	N/A	0.0361	-0.0018	-0.0074
경기 성남시 수정구	0.0039	-0.0770	-0.0062	-0.0057	-0.0173
경기 성남시 중원구	0.0063	-0.0114	-0.0011	-0.0013	0.0166
경기 성남시 분당구	0.0048	-0.0019	-0.0153	0.0086	0.0180
경기 의정부시	-0.0147	-0.0055	0.0002	0.0242	0.0518
경기 안양시 만안구	0.0128	-0.0313	-0.0346	-0.0470	-0.0439
경기 안양시 동안구	0.0110	-0.0010	-0.0048	-0.0535	-0.0393
경기 부천시 원미구	0.0098	0.0105	0.0006	0.0108	0.0159
경기 부천시 소사구	0.0128	-0.1213	-0.1475	-0.1094	-0.0602
경기 부천시 오정구	0.0092	-0.0290	-0.0524	-0.1070	-0.0875
경기 광명시	0.0098	-0.0797	-0.1349	-0.1473	-0.0966
경기 평택시	0.0123	0.0609	0.1192	0.1129	0.2289
경기 동두천시	-0.8961	0.0057	-0.0114	-0.0395	0.0756
경기 안산시 상록구	N/A	N/A	-0.0399	-0.0304	0.0162

경기 안산시 단원구	-0.0458	0.2594	0.2930	0.2900	0.4656
경기 고양시 덕양구	N/A	-0.0543	-0.0118	-0.0186	0.002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0.0032	-0.0114	-0.0326	-0.0117	0.0049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N/A	N/A	-0.0554	-0.0279	-0.0149
경기 과천시	0.0045	-0.1139	-0.1034	-0.1086	-0.0584
경기 구리시	0.0039	0.0014	0.0037	0.0071	0.0590
경기 남양주시	-0.0069	0.0076	-0.0063	0.0135	0.0283
경기 오산시	0.0312	-0.0670	-0.0349	-0.0426	-0.0111
경기 시흥시	0.0086	0.2049	0.1960	0.1849	0.3079
경기 군포시	0.0133	-0.0164	0.0022	-0.0155	-0.0160
경기 의왕시	0.0190	-0.0049	0.0333	-0.0124	-0.0125
경기 하남시	0.0041	-0.0301	-0.0051	0.0016	0.0406
경기 용인시 처인구	0.0146	-0.0090	-0.0070	-0.0001	0.0004
경기 용인시 기흥구	N/A	N/A	0.0240	0.0023	-0.0104
경기 용인시 수지구	N/A	N/A	0.0393	0.0110	0.0086
경기 파주시	-0.0293	0.0026	-0.0102	-0.0040	-0.0059
경기 이천시	0.0283	0.0151	0.0200	-0.0007	0.0004
경기 안성시	0.0333	-0.0347	-0.0227	-0.0123	0.0074
경기 김포시	-0.0018	0.0234	-0.0272	0.0028	-0.0249
경기 화성시	0.0157	0.1138	0.0752	0.2104	0.3524
경기 광주시	0.0092	0.0009	-0.0377	-0.0120	-0.0180
경기 양주시	-0.0342	-0.0099	-0.0450	0.0207	0.0194
경기 포천시	-0.0993	-0.0092	-0.0624	-0.0011	-0.0667
경기 여주군	0.0378	0.0857	0.1508	0.0851	0.0917
경기 연천군	-0.1588	-0.0400	-0.0300	0.0304	0.1221
경기 가평군	-0.0498	0.0675	0.0356	0.0685	0.1437
경기 양평군	-0.0057	0.1089	0.1010	0.0760	0.1124

주: 1. 행정구역의 승격, 분구 등으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시·군·구는 N/A로 표시함.

2. 음영된 부분은 p-value가 0.05 이하로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면서 z-score가 1.96 이상인 지역임.
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는 2003년 11월에 팔달구에서 분구됨.
4. 안산시 단원구와 상록구는 2002년 11월 설치됨.
5. 고양시 덕양구와 일산구는 1996년 3월 설치되었고, 2005년 5월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로 분구됨.
6. 용인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는 2005년 10월 설치됨.
7. 김포군은 1998년 4월 김포시로 승격됨.
8. 안성군은 1998년 4월 안성시로 승격됨.
9. 양주군은 2003년 10월 양주시로 승격됨.

10. 이천군은 1996년 3월 이천시로 승격됨.
11. 파주군은 1996년 3월 파주시로 승격됨.
12. 포천군은 2003년 10월 포천시로 승격됨.
13. 화성군은 2001년 3월 화성시로 승격됨.

1995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단위의 로컬 모란지수에서 군집성을 나타내는 시·군·구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8>과 같다. 1995년도에는 경기도 동두천시가 유일하게 외국인 클러스터(HL)를 형성하였는데, 이것은 연천군, 포천군, 양주군 등지에 주둔해 있던 주한미군부대로 인해 미군들이 이용하는 상가, 유흥시설 등이 이 지역에 주로 입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서울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영어지도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단기체류자가 군집되지 않은 형태로 소수 거주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2000년대 이후로 서울에서 외국인의 거주비율의 점차 높아지기 시작해서, 영등포구와 구로구는 2000년대 초반 이후로 외국인 이주자의 거주지로 발달해왔고, 이후 금천구와 관악구에 외국인 이주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경기도의 경우 외국인 클러스터(HH)를 나타내는 지역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집중 거주지로 널리 알려진 지역으로, 안산시와 시흥시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외국인 이주자 클러스터로 지속적으로 발달해왔고 이밖에도 화성시와 평택시가 2010년 무렵부터 밀집거주지를 형성하고 있다. 지도에서 보듯이 외국인 거주지 클러스터는 서울에서 남쪽 방향으로 점점 더 확대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38. 로컬 모란지수에서 군집성을 나타내는 시·군·구

	1995(HL)	2000(HH)	2005(HH)	2010(HH)	2015(HH)
1	동두천시	용산구	영등포구	영등포구	안산시 단원구
2		서대문구	안산시 단원구	구로구	화성시
3		안산시	용산구	금천구	영등포구
4		중구	구로구	관악구	시흥시

5		강남구	시흥시	안산시 단원구	구로구
6		시흥시		화성시	금천구
7		서초구		시흥시	평택시
8					관악구

로컬 공간연관성 지표(LISA) 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HL(high-low) 유형과 HH(high-high)유형의 핫스팟(hot spot)을 지도로 표현하면 다음의 <그림 32>와 같다. 1995년에는 HL가 동두천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2000년 이후로는 서울을 중심으로 동남부 방향의 경기도 지역으로 핫스팟이 확대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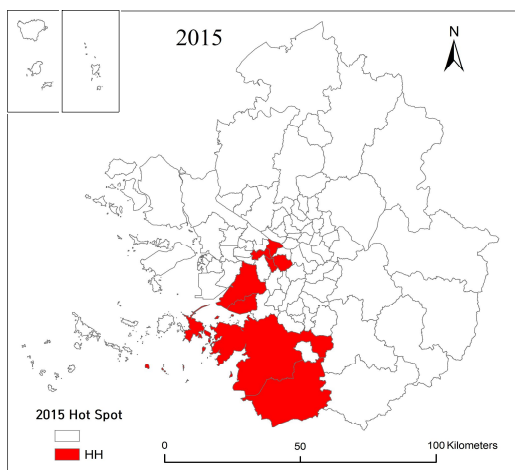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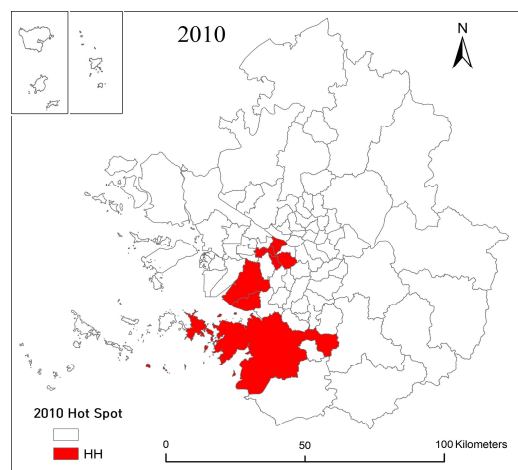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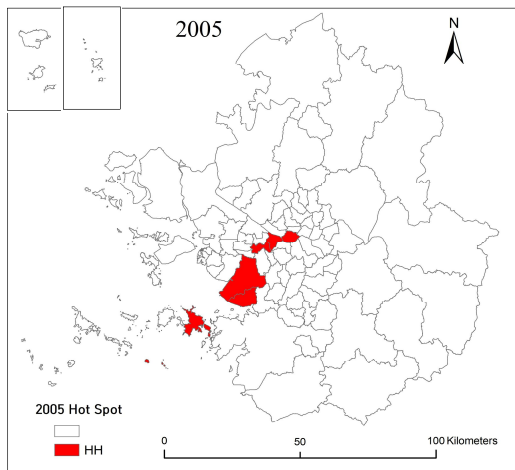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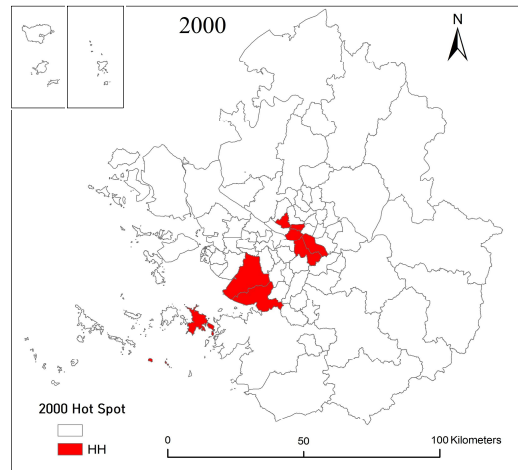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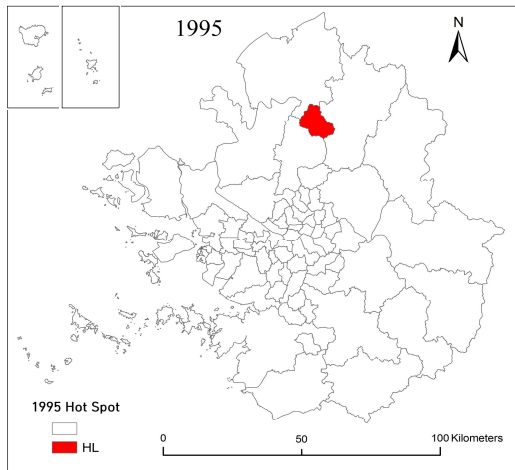


그림 32. 수도권 시·군·구의 로컬 Moran지수(1995-2015)

지금까지 분석한 5개 거주지 분리 지표상에서 소수집단이 다양한 형태의 분리를 동시에 경험하는 것을 메시와 덴톤은 ‘초격리’라고 표현한 바 있다¹⁰²⁾. 소수집단이 공간적으로 불균등하고, 고립되고, 집중되고, 중심화되고, 군집되어서 거주지 분리의 5개 지표 중에서 4개 이상 분리된 수준이 높은 상태를 의미하는데, 한국 수도권 지역은 북미 대도시들에서 중심업무지역 주변에 낙후되고 쇠퇴한 지역에 소수집단이 집중하는 것과 같은 양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서울만을 대상으로 중심화비율지수를 측정하였다. 따라서 중심성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지표를 대상으로 각각 상위 10위 시·군·구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거주지 분리 수준이 높은 초격리 지역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9>와 같다. 이 표에서 빈도는 중심성을 제외한 4가지 거주지 분리 지표에서 상위 10위에 포함된 횟수를 의미한다.

초격리 수준의 거주지 분리를 나타내는 다음의 시·군·구 중에서도 특히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시흥시, 서울 구로구, 영등포구 등 4개 지역은 앞서 공간적 분포에서 살펴본 외국인 수와 비율에 있어서도 상위 10위내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이들 지역은 외국인의 수가 집중되어 있고 비중도 높으며 거주지 분리 또한 상당히 이루어진 대표적인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판단된다.

표 39. 초격리 수준의 거주지 분리를 나타내는 시·군·구(2015)

빈도	시·군·구
4	경기 안산시 단원구
4	경기 시흥시
4	서울 구로구
4	서울 영등포구
3	경기 화성시
2	경기 군포시
2	경기 김포시
2	서울 금천구

102) Massey, D. S., Denton, N. A., 1993, op. cit.

지금까지 관련 연구들에서는 공간적 분석 단위에서 외국인 수나 외국인 비율이라는 인구지표로 외국인 이주자들의 커뮤니티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단편적인 지표로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공간적 거주 유형을 효과적으로 살펴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분석결과를 비교해보면 외국인 수 및 비율과 외국인 거주지 분리의 수준이 반드시 비슷한 유형을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외국인 수나 외국인 비율과 같은 단편적인 지표보다는 공간적 맥락을 활용한 거주지 분리 지표를 측정하고 활용하는 것은 외국인 이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위의 <표 39>의 경기 안산시 단원구, 경기 시흥시, 서울 구로구, 서울 영등포구 등 4개 지역은 외국인 수가 많고 외국인 비율이 높으며 거주지 분리 지표도 높게 측정되는 지역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예측 가능한 반면 각 지역에 기회도 될 수 있는 만큼 이 지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성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지금까지 본 논문은 수도권 외국인 이주자들의 공간적 분포와 거주지 분리에 있어서 이주자들의 공간 형성에 영향을 주는 단위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고 실제 공간상에서 거주지 분리가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지난 20년간 외국인 이주자가 급속히 증가하였는데 그중에서도 비전문직 이주자의 비중이 크고 이로 인한 사회적·공간적 변화를 크게 경험하였다. 이주자들은 노동 기회를 따라 이주하거나 이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도시지역으로 집중한 결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를 포함하는 한국 수도권에는 전체 등록외국인의 61.4%가 거주하고 있다. 이에 수도권을 지역적 범위로 설정하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시계열로, 체류유형별로, 국적별로, 행정단위별로 이주자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첫째, 수도권에는 2015년 기준 702,291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수도권 전체 인구의 2.7%에 해당되어 전국 외국인의 주민등록인구 대비 비율인 2.2%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국적에 있어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인의 비중이 가장 많은데, 1999년 수도권 전체 외국인 가운데 24.8%를 차지했던 중국인 인구는 2015년에 이르러 61.1%로 증가하였다.

국적별 분류 상 인구규모가 상위 10위권에 속하는 국가들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시아 인근 국가이다. 중국 다음으로는 베트남(6.3%), 필리핀(3.2%), 캄보디아(2.5%)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저숙련

노동직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로서 중국인은 유학생의 비중이 크고, 베트남인은 결혼이주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성별에 있어서 남성이 많고 경기도 화성, 안산, 시흥, 인천 및 김포를 잇는 남서부 공업벨트에 집중거주지를 형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체류자격별 외국인 이주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비전문직 이주자가 349,401명으로 수도권 전체 외국인의 49.8%를 차지하고 이 밖에도 결혼이주자, 유학생, 전문직 이주자 등 크게 4가지 형태의 체류유형이 수도권 전체 등록외국인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시·군·구별 등록외국인 수로 보면,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서울 영등포구, 경기 화성시, 서울 구로구, 경기 시흥시 등에 외국인 거주지가 집중되어 있으며, 외국인의 비율은 이와 다소 차이가 나는데, 이들 시·군·구 이외에도 경기 포천시와 서울 금천구에서 높은 외국인 거주비율을 나타낸다. 읍·면·동 행정단위에서는 집중지역이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되는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본동, 시흥시 정왕본동과 정왕1동,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구로구 구로2동 등은 해당 동의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35-42% 정도로 매우 높다. 이들 지역은 과거 중소기업이 발달했던 곳으로 주변에 저렴한 주택이 밀집된 특성이 있고, 초기 이주자들의 유입 이후 취업, 주거, 생활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공간으로 발전되어 왔다.

둘째, 외국인 이주자들의 거주지분포에 영향을 미치고 상관성을 갖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행정단위별 외국인 수와 외국인 비율 두 가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시·군·구 회귀분석과 읍·면·동 회귀분석을 독립변수를 달리 선정하여 각각 실행하였다. 우선 시·군·구 회귀분석 결과, 외국인 수와 외국인 비율을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을 때 저차서비스업, 제조·건설업은 정(+)의 상관관계를, 도·소매업은 부(-)의 상관관계를 동일하게 나타냈다. 외국인 비율이 종속변수인 경우에는

교육서비스업이 추가적으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수도권 시·군·구 단위의 거주지역에서 저차서비스업과 제조·건설업이 모여 있는 지역에 외국인 수가 많고 외국인 비율도 높은 반면, 도·소매업은 집중된 지역에는 외국인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서비스업이 많은 지역도 외국인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수도권 거주 외국인들은 저차서비스업과 제조·건설업에 집중적으로 종사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다음으로 읍·면·동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2005년 외국인 비율, 저차서비스업, 외국인 지원기관 수는 종속변수인 외국인 수와 외국인 비율 공통적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반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공통적으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산업이 외국인의 거주입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밖에도 제조·건설업은 외국인 수를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수도권의 제조·건설업에는 외국인이 다수 종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고, 종속변수를 외국인의 비율로 하였을 때, 아파트 비율, 교육서비스업, 다세대주택 및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 비율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수도권 외국인은 주택 형태에 있어 아파트,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낮고 교육서비스업 종사자 비율도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외국인 이주자들의 거주지 분리현상을 메시와 덴톤의 5개 분리 지표를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균일성, 노출성, 집중성, 중심성, 군집성을 수도권 1,131개 읍·면·동의 인구 및 면적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하여 79개 시·군·구의 각 지수를 비교하여 나타내고 시계열로 비교하였다. 균일성 지표는 상이지수로 산출하였는데, 단위지역 내 소수집단의 상이성이 높은 지역은 경기 시흥시, 김포시, 군포시, 안산시 단원구 및 서울 구로구 등이다.

노출성은 소수집단의 고립지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시흥시, 김포시, 서울 구로구, 영등포구 등의 지역에서는 소수집단이

다수집단과 접촉이 적고 보다 고립되어 거주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소수집단이 차지하는 지역의 지리적 규모를 통해 집중성을 파악할 수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델타지수를 보면 경기 성남시 수정구,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단원구, 안양시 만안구, 광명시,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인천 중구 등에서 높은 수준의 외국인 거주지 집중을 보여준다.

중심성은 소수집단이 도시의 중심부에 얼마나 근접하여 거주하고 있는지를 중심화비율지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한국 도시의 형태 및 구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만을 대상으로 한 국적별 외국인의 중심화비율지수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의 중심화비율지수가 6.34로 내국인의 중심화비율지수 2.80보다 높게 나타났고, 국적별로는 네팔,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 출신 외국인의 도심부 집중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상이지수가 가진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군집성 지표는 공간적 자기상관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글로벌 모란지수는 1995년 이후로 점점 더 강한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나타내었고, 로컬 공간연관성 지표(LISA)에서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성시, 시흥시, 평택시,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가 클러스터된 지역(HH)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거주지 분리 지표를 비교 정리하면 중심성을 제외한 4가지 지표 중, 4가지 모두 높은 수준의 거주지 분리를 나타내는 지역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 경기 시흥시, 서울 구로구, 서울 영등포구 등은 초격리 상태의 지역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외국인 이주자 인구는 행정단위의 인구변동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향후 그 증가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거주지 분포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인종, 민족보다는 국적이 집중거주지를 형성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5개 거주지 분리 지표의 시계열 자료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집중거주지는 더 심화되고 분리되어 온 것으로 나타나는데, 외국

인 집단의 양적인 증가는 물론이고 국적의 다양성도 점점 더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서로 다른 국적의 집중거주지가 공간적으로 매우 인접하거나 일부 중첩되는 형태도 나타나고 있어서 출신국가의 지리적 인접성 및 체류유형의 유사성도 외국인 이주자의 거주지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정 국적의 집중거주지로 일단 형성된 공간은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며 오히려 강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외 대도시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게토처럼 부정적인 이슈를 재생산하는 장소로의 몰락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한 예방과 대응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논의 및 제언

본 논문은 수도권을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고 주로 비전문직 이주자의 공간적 분포와 거주지 분리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대도시로의 외국인 이주자 집중현상을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는 지역적 보편성과 일반성의 한계가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이주자의 집중거주지를 보다 면밀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향후 전국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여 각 지역별 내국인과의 공간적 분리 정도, 공간적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등 공간적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단위와 영향요인을 보다 심화시키는 구체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진 외국인의 공간분포 혹은 집중거주지에 대한 연구는 주로 거시적인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외국인의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가진 한계에 기인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관리하는 외국인의 국적별, 체류자격별 거주현황은 시·군·구 단위까지만 제공되고 있는 반면, 각 시·도와 국가통계포털의 인구통계는 읍·면·동 단위의 자료를 집계해왔으나, 외국인의 국적, 체류자격, 연령, 성별 등의 세부항목으로는 집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이주자 개인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언어, 교육 정도, 종교, 가족, 직업유형, 실제 거주지와 등록 거주지의 일치 여부 등 보다 실제적인 정보도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이민국들은 이민 1세대인 해외출생인구와 그들의 자녀인 이민 2세대를 구분해서 파악하고 있으나, 한국은 이와 같이 세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읍·면·동 단위의 지역변인이 이주자 유형의 세분화된 항목별로 구축된다면, 미시적인 분석을 통해 전국 지자체별로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도시의 성장을 예측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거주지 분리 현상과 거주지 분리가 갖는 기능에 대한 연구는 북미와 유럽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온 주제이다. 한국은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거주지 분리 패턴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하지만, 최근 공간적 분화와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상관성을 인식하고 공간적 분리와 집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인 외국인 공간분포의 패턴만을 보여주거나 너무 큰 공간단위를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주거지분리의 구체적 양상을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었기에, 본 논문에서는 거주지 분리 패턴을 수도권 읍·면·동 단위로 분석하여 시·군·구별 분리지표를 산출하였다. 이에 앞에 외국인의 거주지 분포와 상관관계를 갖는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분석함으로써, 거주지 분리에 대한 환경적 요인 분석과 그 결과적인 현상으로서의 거주지 분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일부만 적용되었던 메시와 텐톤의 거주지 분리 지표를 수도권 시·군·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5가지 지표 모두 적용하여 종합적이고 실증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수도권외 거주지 분리 수준은 미국 대도시들의 분리지표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짧은 이주의 역사 동안 거주지 분리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어왔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공간적 분리가 사회적·경제적 분리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거주지 분리가 높은 시·군·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판단된다. 또한 국적과 체류자격 등 외국인 이주자의 유형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분리 수준이 높은 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이해와 관심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다문화사회의 진전과 함께 외국인의 이주가 가속화되고 정주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주자들의 공간적 집중과 분리에 대한 정성적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 이주자를 동일집단으로 간주하여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거주지 분리를 탐색하였으나, 현행 통계자료가 제공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국적별 통계를 이용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주요 외국인 이주자들의 국적별 거주지 분리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사회의 진전과 외국인 이주자들의 정주화 현상이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단일 국적별 외국인 이주자들의 이주와 정착에 관한 미시적이고 정성적인 연구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공간을 이해하고 향후 도시의 변화를 조망하는 데 있어 필요한 연구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민조, 2003, “서울시 외국인 거주에 관한 공간 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강휘원, 2006, “한국 다문화사회 형성 요인과 통합 정책,” 국가정책연구, 20(2), 5-34.
- 고상두, 2012, “이주자 사회통합모델의 비교분석: 네덜란드, 독일, 한국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46(2), 241-324.
- 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허가제, <https://www.eps.go.kr/eo/EmployPerSystem.eo>
- 금혜성, 임지혜, 2010, “독일, 영국, 한국의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과정 국제 비교: 외국인의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와 정책적 배경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3(2), 33-70.
- 김경민, 2012, “외국인 밀집지역의 입지특성과 주민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광익 외, 2007, 도시권 확장, 통계청.
- 김기돈,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10년, 왜 만신창이가 됐나」, 프레시안, 2014. 8. 17.
- 김성수, 박치완, 2008, “영국의 다문화성향과 다문화주의,” EU연구, 23, 65-88.
- 김용찬, 2006, “국제이주분석과 이주체계접근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10(3), 81-106.
- 김윤경, 2014, “외국인 밀집지역의 공간적 분포 특성과 영향요인 분석,”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이선, 민무숙, 김경미, 주유선, 이정원, 2011,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지선, 2006, “외국인공동체의 현황과 활동,” 민족연구, 28, 20-29.
- 김태호, 여홍구, 2012, “서울시 도심공간의 토지이용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를 대상으로,” 국토지리학회지, 46(2), 213-225.
- 김호연, 2011, “미국의 동화주의적 이민자 정책과 다문화주의,” 인문과학연구, 28, 247-268.
- 김홍매, 2011, “한국과 일본의 국제노동력 유입정책 비교,” 디아스포라연구, 5(2), 89-115.
- 김환학, 오정은, 최서리, 한태희, 이승복, 박가영, 신예진, 2012, “주요국가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및 이민법,” IOM 이민정책 연구총서 2.
- 김희철, 안건혁, 2011, “이주회로별 수도권 외국인 거주지역 공간분포와 영향 요인,” 국토계획, 46(5), 233-248.
- 노용진, 이규용, 2012,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 실태 조사분석 및 개선방안,” 지식경제부 수탁연구과제.
- 류주현, 2009, “수도권 외국인 노동자의 직주거리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2(1), 77-90.
- _____, 2012, “결혼이주여성의 거주 분포와 민족적 배경에 관한 소고: 베트남·필리핀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8(1), 71-85.
- 명보준, 2014, “외국인 밀집지역 및 주변지역의 사회적 분절에 관한 연구: 안산시 원곡동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도시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
- 문경희, 2013, “이주노동자의 사회공간적 특성과 권리에 대한 연구,” 21세기 정치학회보, 23(3), 197-224.
- 민성희, 안용진, 박정호, 2015, “인종별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의 공간분포 특성,” 국토연구, 87, 115-130.
- 민태은, 2014, “미국인들의 이민자에 대한 위기감: 인종과 경제조건,” 한국정

- 지학회보, 48(5), 25-42.
- 박배균, 정건화, 2004, “세계화와 “잊어버림”의 정치: 안산시 원곡동의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4), 800-823.
- 박배균, 2010, “외국인 국내 적응의 지역적 차이에 대한 연구: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3(1), 89-110.
- 박병섭, 2009, “다문화주의에 관한 철학적 연구: 이주노동자,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와 철학, 18, 291-356.
- 박세훈, 이영아, 김은란, 정소양, 2009,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I):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 박세훈, 2010, “한국의 외국인 밀집지역: 역사적 형성과정과 사회공간적 변화,” 도시행정학보, 23(1), 69-100.
- 박세훈, 정소양, 2010,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분포 특성과 정책함의,” 국토연구, 64, 59-76.
- 박윤환, 2010, “수도권 지역 외국인들의 거주지 분리에 대한 연구,” 행정논총, 48(4), 429-453.
- _____, 2011, “빈곤층과 외국인 주민 거주지분리에 대한 연구: 서울시 사례 연구,” 서울도시연구, 12(4), 103-122.
- 박재묵, 2006, “환경정의 개념의 한계와 대안적 개념화,” 환경사회학연구 ECO, 10(2), 75-114.
- 방준호, 「외국인 1만 명 넘게 사는 시·군·구 모두 49곳」, 한겨레, 2014. 7. 8.
- 서민철, 2014, “서울의 도심 및 부심 설정과 특화 기능 탐색,” 대한지리학회지, 49(2), 275-298.
- 서울특별시 서울역사편찬원, 서울600년사, <http://seoul600.seoul.go.kr>

- 설동훈, 2007, “국제노동력이동과 외국인노동자의 시민권에 대한 연구: 한국, 독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7(2), 369-526.
- 손승호, 2008, “서울시 외국인 이주자의 분포 변화와 주거지 분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1(1), 19-30.
- 손영호, 1996, “미국 이민정책에 관한 연구, 1882-1924: 이민규제의 배경과 논쟁을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4, 165-202.
- 신기동, 김희연, 봉인식, 김예성, 박천용, 오경석, 김희정, 2006, “외국인근로자 정주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경기개발연구원 정책연구 2006-11.
- 신인철, 2007, “외국인의 국적별 거주지 분리: 경기도 및 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회, 2007년 후기학술대회논문집, 37-62.
- 신주백, 2007, “용산과 일본군 용산기지의 변화(1884-1945),” 서울학연구, 29, 189-218.
- 신지원, 2007, “영국의 이주노동자 정책,” 국제노동브리프, 5(8), 24-34.
- _____, 2013, “국제이주와 개발의 연계성 담론에 대한 재고찰,” 국제지역연구, 22(4), 1-34.
- _____, 2013, “국제이주-개발에 있어 디아스포라의 역할에 대한 소고,” 이민정책연구원 워킹페이퍼 시리즈, 2013-03.
- _____, 2014, “국제이주와 동남아시아지역연구의 초국가적 공간에 대한 고찰,” 현대사회과학연구, 18, 77-89.
- 안영진, 최병두, 2008,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 현황과 특성: 이론적 논의와 실태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1(3), 476-491.
- 오영인, 2010, “미국 이민연구와 적극적 사회주체로서의 이주자들,” 사림, 36, 353-374.
- 은대원, 2010, “영국의 이민정책과 사회통합,” EU연구, 26, 239-267.
- 원종서, 2013, “서울시 거주 한국계 중국인의 주거지역 선택에 관한 연구,”

- 경희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웨이 한빈, 2012, “다문화 사회형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 논문.
- 윤인진, 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징: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2), 72-103.
- 윤진희, 2014, “중국국적 외국인 공간 분포의 변화양상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석사학위 논문.
- 윤현위, 「지도로 보는 인천」, 인천인닷컴, 2013. 5. 8.
- 이규용, 박성재, 2008, “외국인력 고용구조와 영향,” 노동리뷰, 27-38.
- 이상일, 2007, “거주지 분화에 대한 공간통계학적 접근(I): 공간 분리성 측도의 개발,” 대한지리학회지, 42(4), 616-641.
- _____, 2008, “거주지 분화에 대한 공간통계학적 접근(II): 국지적 공간 분리성 측도를 이용한 탐색적 공간데이터 분석,” 대한지리학회지, 43(1), 134-153.
- 이석준, 2014, “조선족 밀집지의 형성과 성장에 관한 연구: 서울시 가리봉동과 대림2동, 자양4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소영, 2013, “외국인 밀집지역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영민, 이은하, 이화용, 2014, “서울시 중국인 이주자 집단의 거주지 특성과 장소화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7(2), 15-31.
- 이용균, 2013, “이주자의 주변화와 거주공간의 분리: 주변화된 이주자에 대한 서발턴 관점의 적용 가능성 탐색,”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3), 87-100.
- _____, 2014, “서구의 이주자 정책에 대한 비판적 접근과 시사점,” 한국지역

- 지리학회지, 20(1), 112-127.
- 이용균, 이현욱, 2012, “이주자 공간의 지도화와 공간분포의 특성: 국적과 체류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지도학회지, 12(2), 59-74.
- 이용재, 2012, “다문화사회의 개념에 대한 고찰: 갈등의 양상과 해소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인간, 1(1), 35-61.
- 이정아, 2013, “도시지역의 외국인 거주지 분포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정원, 2007, “한국 이주노동자 현황과 정책, 그리고 대안, 정세와 노동,” 29, 22-36.
- 이정환, 이성용, 2007,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 특성과 연구동향,” 한국인구학, 30(2), 147-168.
- 이진영, 2011, “수도권에서의 외국인 거주지 분포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창원, 2015, “이주민 분류방식 및 용어사용의 부차별 차이와 문제점,” IOM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15-13.
- 이현욱, 2015, “한국 고용허가제 정책과 이주노동자의 공간분포 특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8(3), 57-74.
- 이화용, 2014, “중국국적 이주자 밀집지역의 엔클레이브화와 계도화에 대한 연구: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2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과교육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희연, 김원진, 2007, “저개발 국가로부터 여성 결혼 이주의 성장과 정주패턴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15-33.
- 이희연, 심재현, 2011, GIS 지리정보학, 법문사.
- 이희연, 노승철, 2013, 고급통계분석론, 문우사.
- 임석희, 송주연, 2010, “우리나라의 외국인 전문직 이주자 현황과 지리적 분

- 포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3), 275-294.
- 임현철, 박윤환, 2014, “외국인 주민의 거주지 분리에 대한 공간적 패턴: 탐색적 공간자료 분석의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임형백, 2009, “한국과 서구의 다문화 사회의 차이와 정책 비교,” 다문화사회연구, 2(1), 161-192.
- _____, 2012, “미국 이민정책 연구,” 한국정책연구, 12(2), 273-389.
- 정수열, 2008, “인종·민족별 거주지 분화 이론에 대한 고찰과 평가: 미국 시카고 아시아인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3(4), 511-525.
- 장영진, 2006,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업 지역의 성장과 민족 네트워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5), 523-539.
- 전형권, 2008, “국제이주에 대한 이론적 재검토: 디아스포라 현상의 통합모형 접근,” 한국동북아논총, 49, 259-284.
- 정연주, 2001, “외국인 노동자 취업의 공간적 전개 과정,” 한국도시지리학회지, 4(1), 27-42.
- 정지은, 하성규, 전명진, 2011, “외국인 거주자의 주거입지 선택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46(6), 117-129.
- 정현주, 2010, “대학로 ‘리틀마닐라’ 읽기: 초국가적 공간의 성격 규명을 위한 탐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3), 295-314.
- 정희라, 2006, “영국의 자유방임식 다문화주의: 영국적 전통과 이민자 통합,” 이화사학연구, 35, 1-27.
- 조현미, 2006,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에스닉 커뮤니티 형성: 대구시 달서구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5), 540-556.
- 최병두, 2009, “한국 이주노동자의 일터와 일상생활의 공간적 특성,”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4), 319-343.

- _____, 2009,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3), 369-392.
- _____, 2010, “외국인 이주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지리적 지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3(1), 39-63.
- 최병두, 이경자, 2010, “외국인 이주자의 거시적 이주 배경에 관한 인지,”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3(1), 64-88.
- 최병두, 임석희, 안영진, 박배균, 2011, 지구·지방화와 다문화 공간, 푸른길.
- 최은영, 2003, “거주지 분리 연구의 비공간적 전통을 넘어: 공간지수를 중심으로,” 지리교육논집, 47, 23-35.
- 최은진, 김의준, 2011, “출신국적에 따른 서울시 외국인 이주자의 거주지 분리,” 도시행정학보, 24(4), 85-107.
- 최재인, 2009, “미국 다문화주의의 역사적 배경,” Homo Migrans, 1, 75-96.
- 최재현, 강민조, 2003, “외국인 거주지 분석을 통한 서울시 국제적 부문의 형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6(1), 17-30.
- 최협, 1995, “미국의 민족문제,” 지역연구, 4(3), 31-61.
- 하성규, 마강래, 안아림, 2011, “서울시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적 분리패턴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12(3), 91-105.
- 홍기원, 백영경, 노명우, 2006,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문화적 지원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정책과제 2006-19.
- 황보연, 「외국인 없으면 음성 공장 문 닫을 판, 이민자가 인구 쇼크 완화할까」, 한겨레, 2016.11. 28
- 황혜성, 2006, “미국의 다문화주의: 민권운동과 1965년 이민개혁법의 조우, 그리고 예견치 못했던 결과,” 이화사학연구, 35, 83-106.
- e나라지표,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http://www.index.go.kr>

2. 국외문헌

- Anselin L., Bera, A. K., 1998, *Spatial Dependence in Linear Regression Models with an Introduction to Spatial Econometrics in Handbook of Applied Economic Statistics*, Marcel Dekker Inc., New York.
- Aslan Z., Clara H. M., 2010, Location choices of migrant nest-leavers: Spatial assimilation or continued segregation?,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15, 109-210.
- Booth, C., 1889, *Life and Labour of the People in London*, Vol. I, Lulu Press, London.
- Brown, L. A., Sharma, M., 2013, Metropolitan context and racial/ethnic intermixing in residential spaces: U. S.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1990-2001, *Urban Geography*, 31(1), 1-28.
- Burgess, E. W., 1925, *The Growth of the City: An Introduction to a Research Projec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Burton, J., Nandi, A., Platt, L., 2008, Who are the UK's minority ethnic groups? Issues of identification and measurement in a longitudinal study, Institute for Social & Economic Research No. 2008-26.
- Castle, S., 2010, Understanding global migration: A social transformation perspective,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6(10), 1565-1586.
- Clark, W. A. V., 1991, Residential preferences and neighborhood racial segregation: A test of the schelling segregation model,

- Demography*, 28(1), 1-19.
- Clark, W. A. V., 1992, Residential preferences and residential choices in a multiethnic context. *Demography*, 29(3), 451-466.
- David H. K., Steven R. H., James O. W., 2014, *Urban Geography*, John Wiley & Sons, Inc., New Jersey. (김학훈, 이상윤, 김감영, 정희선 역, 2016, 도시 지리학, 시그마프레스)
- DeFilippis J., Faust, B., 2014, Immigr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in New York city, *Urban Geography*, 35(8), 1196-1214.
- Duncan, O. D., Duncan, B., 1955, A methodological analysis of segregation index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0(2), 210-217.
- Farley, K., 2010, Patterns and trends in ethnic residential segregation in England, 1991-2001: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vestigation, Durham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ology, Ph. D. Thesis.
- Farley, R., Schuman, H., Bianchi, S., Colasanto, D., Hatchett, S., 1978, Chocolate city, vanilla suburbs: Will the trend toward racially separate communities continue?, *Social Science Research*, 7, 319-344.
- Farley, R., Steeh, C. G., Krysan, M., Reeves, K., Jackson, T., 1994, Stereotypes and segregation: Neighbourhoods in Detroit area,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3), 750-778.
- Fortuijin J. D., Musterd, S., Ostendorf, W., 1998, International migration and ethnic segregation: Impacts on urban areas, *Urban Studies*, 35(3), 367-370.

- Frey, W. H., 1995, Immigration and internal migration 'flight' from U. S. metropolitan areas: Toward a new demographic Balkanisation, *Urban Studies*, 32(4/5), 733-757.
- Frey, H. W., 2015, *Census Shows Modest Declines in Black-White Segregation*, Brookings, Washington D. C.
- Gibson, C., Jung, K., 2005, Historical census statistics on population totals by race, 1790 to 1990, and by Hispanic origin, 1970 to 1990, for large cities and other urban places in the United States, U. S. Census Bureau Working Paper No. 76.
- Gilliland J., Olson, S., 2013, residential segregation in the industrializing city: A closer look, *Urban Geography*, 31(1), 29-58.
- Glaeser, E., 2011, *Triumph of the City*, Penguin, London. (이진원 역, 2011, 도시의 승리, 해냄)
- Gober, P. 2013, Immigration and north American cities, *Urban Geography*, 21(1), 83-90.
- Goss, J., Lindquist, B., 1995, Conceptualizing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9(2), 317-351.
- Greene, R., 1991, Poverty concentration measurement and the urban underclass, *Economic Geography*, 67(3), 240-252.
- Greene, P. R., Pick, B. J., 2006, *Exploring the Urban Community: A GIS Approach*, Pearson Education, Inc., London. (신정엽, 이건축, 김감영, 전용완, 이상일, 조대현, 최은영, 김현미, 홍일영 역, 2011, 도시의 탐색, 시그마프레스)
- Hamnett, C., 2003, *Unequal City: London in the Global Arena*, Routledge, London.

- Holloway, S. R., Wright R., Ellis, M., 2011, The racially fragmented city? Neighborhood racial segregation and diversity jointly considered, *The Professional Geographer*, 64(1), 63-82.
- Iceland, J., 2014, Residential segregation: A transatlantic analysis, Transatlantic Council on Migration.
- Jennissen, R. P., 2004, Macro-economic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migration in Europe, University of Groningen, Department of Spatial Sciences, Ph. D. Thesis.
- Kaplan, H. D., Douzet, F., 2013, Research in ethnic segregation III: Segregation outcomes, *Urban Geography*, 32(4), 589-605.
- Kempen, R., Ozuekren, A. S., 1998, Ethnic segregation in cities: New forms and explanations in a dynamic world, *Urban Studies*, 35(10), 1631-1656.
- Knoz, P., Pinch, S., 2010, *Urban Social Geography*, Pearson Education, Inc., London. (박경환, 류연택, 정현주, 이용균 역, 2012, 도시사회지리학의 이해, 시그마프레스)
- Koslowski, R., 2005, *International Migration and the Globalization Domestic Politics*, Routledge, London.
- Logan J. R. and Zhang W. 2004, Identifying ethnic neighborhoods with census data - Group concentration and spatial clustering, *Spatially Integrated Social Science*, 11-126.
- Lukinbeal, C., Price, P. L., Buell, C., 2012, Rethinking “diversity” through analyzing residential segregation among Hispanics in Phoenix, Miami, and Chicago, *The Professional Geographer*, 64(1), 109-124.

- Lyons, T., 2006, Conflict-generated diasporas and peacebuilding: A conceptual overview and Ethiopian case study, Resource paper for University of Peace Expert Forum on Capacity Building for Peace and Development: Roles of Diasporas, Toronto.
- Massey, D. S., Mullan B. P., 1984, Process of Hispanic and Black spatial assimil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9(4), 836-873.
- Massey, D. S., Denton, N. A., 1988, The dimensions of residential segregation, *Social Forces*, 67(2), 281-315.
- Massey, D. S., Eggers, M. L., 1990, The ecology of inequality: Minorities and the concentration of poverty, 1970-1980,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5), 1153-1188.
- Massey, D. S., Arango, J., Hugo, G., Kouaouci A., Pellegrino A., Taylor, J. E., 1993,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 review and appraisal, *Population and Development and Development Review*, 19, 431-466.
- Massey, D. S., Denton, N. A., 1993, *American Apartheid: Segregation and the Making of the Underclass*,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 Massey, D. S., 2001, Residential segregation and neighborhood conditions in U. S. metropolitan area, *America Becoming: Racial Trends and Their Consequences*, Volume I, National Academy Press, Washington D. C., 391-434.
- Morrill, R. L., 1991, On the measure of geographic segregation, *Geography Research Forum*, 11, 25-36.
- Musterd, S., 2005, Social and ethnic segregation in Europe: Levels,

- causes, and effects, *Journal of Urban Affairs*, 27, 331-348.
- Musterd, S., de Vos, S., 2007, Residential dynamics in ethnic concentrations, *Housing Studies*, 22(3), 333-353.
- Newbold, K. B., 1999, Spatial distribution and redistribution of immigrants in the metropolitan United States, 1980 and 1990, *Economic Geography*, 75(3), 254-271.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Indices of Deprivation 2010,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english-indices-of-deprivation-2010>
- Park R. E., McKenzie, R. D., Burgess, E., 1925, *The City: Suggestions for the Study of Human Nature in the Urban Environmen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Parrenas, S. R., 2001, *Servants of Globalization: Women, Migration, and Domestic Work*, Stanford University Press, Redwood City, CA. (문현아 역, 2009, 세계화의 하인들: 여성, 이주, 가사노동, 여이연)
- Ravenstein, E. G., 1885, The laws of migration, *Journal of the Statistical Society of London*, 48(2), 167-235.
- Reibel, M., Regelson, M., 2013, Neighborhood racial and ethnic change: The time dimension in segregation, *Urban Geography*, 32(3), 360-382.
- Samers, M., 2010, *Migration*, Routledge, London. (이영민, 박경환, 이용균, 이현욱, 이종희 역, 2013, 이주, 푸른길)
- Sassen, S., 1988, *The Mobility of Labor and Capital: A Study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Labor Flow*,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Schiller N. G., 2013, A comparative relative perspectiv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migrants and cities, *Urban Geography*, 33(6), 879-903.
- Shain, Y., Barth, A., 2003, Diaspora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57(3), 449-479.
- Sheffer, G., 1986, A new field of study: Modern diasporas in international politics, *Modern Diasporas in International Politics*, Croom Helm, London.
- Simpson, L., 2004, Statistics of racial segregation: Measures, evidence and policy, *Urban Studies*, 41(3), 661-681.
- South, S. J., Crowder, K. D., 1997, Escaping distressed neighborhoods: Individual, community, and metropolitan influenc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2(4), 1040-1084.
- Spivak, A. L., Bass, L. E., John, C., 2011, Reconsidering race, class, and residential segregation in American cities, *Urban Geography*, 32(4), 531-567.
- Tammaru, T. et al., 2015, A multi-factor approach to understanding socio-economic segregation in Europe capital cities, *Socio-economic Segregation in European Capital Cities: East meets West*, 1-29, Routledge, London.
- Troper, H., 1999, Multiculturalism, *Encyclopedia of Canada's Peoples*, 997-1006,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 US2010 Project, Spatial structures in the social sciences, Brown University, <http://www.s4.brown.edu/us2010>

- Vertovec, S., 2005, The political importance of diasporas, *Migration Information Source*, MPI, Washington, D. C.
- Vicino, J. Thomas, Hanlon, Bernadette, 2011, A typology of urban immigrant neighborhoods, *Urban Geography*, 32(3), 383-405.
- Walker, K. E., 2014, Immigration, local policy, and national identity in the suburban United States, *Urban Geography*, 35(4), 508-529.
- White, M. J. 1983, The measurement of spatial segreg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8(5), 1008-1018.
- White, P., 1998, The settlement patterns of developed world migrants in London, *Urban Studies*, 35, 1725-1744.
- Winders, J., Schein, R., 2013, Race and diversity: What have we learned?, *The Professional Geographer*, 66(2), 221-229.
- Wong, D. W. S., 1993, Comparing traditional and spatial segregation measures: A spatial scale perspective, *Urban Geography*, 25(1), 66-82.
- Wright, R., Ellis, M., Holloway, S. R., Wong, S., 2013, Patterns of racial diversity and segregation in the United States: 1990-2010, *The Professional Geographer*, 66(2), 173-182.

ABSTRACT

Spatial Distribution of Foreign Immigrants and Their Residential Segregation in Seoul Metropolitan Area

Kim, Hyejin
Department of Geography
Graduate School
Sungshin University

The international migration of people lies at the core of the ongoing process of globalization. People migrate to improve their economic prospects, study abroad, marry with a different nationality or avoid persecution in their country of origin. A large population of migrants are driven by labor opportunities and they often settle in ethnic enclaves which provide information, support, networks, and even funding for self-employment, especially for new arrivals.

They used to be considered as transient workers by getting a job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but eventually returning to their country of origin. However, as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grows, they tend to build the social relations among families, relatives, ethnic groups or national origins by spreading beyond the boundaries of states or national societies. The emergence of a global economy has contributed both to

the creation of potential emigrants abroad and to the formation of economic, cultural, and ideological links between industrialized and developing countries that later serve as bridges for the international migration.

Korea has remained a homogeneous society with absolute majority of the population of Korean ethnicity, however, data from Census show that the foreign immigrants in Korea have been rapidly growing since the late 1990s. In particular, immigrant workers from China, Southeast Asia and Central Asia rapidly increased, as labor shortage has been a critical problem in Korean industries along with diverse socio-economic changes such as fast economic growth, structural changes in industry sector, improved education levels, higher incomes, as well as low birth rate.

Korea's multi-cultural society appears to be an urban/metropolitan phenomenon, while the foreign population converged o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cluding Seoul Spacial City, Gyeonggi-do Province and Incheon Metropolitan City. According to the 2015 Survey of Registered Foreigners by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among 1,143,087 registered foreigners in Korea, more than half(61.4%, 702,291 people) of foreigners live in Seoul metropolitan area.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foreign immigrants living in 79 cities and counties as well as 1,131 towns in Seoul metropolitan area.

First, I examined the spatial distribution of foreign immigrants residing in Seoul metropolitan area from a multi-perspectives such as their purpose of stay, countries of origin and residential areas. Seco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lated with their socio-economic features was conducted based on their spatial distribution. Finally, residential

segregation of foreign immigrants was measured according to Massey & Denton's 5 segregation indices. Residential segregation is the geographical concentration of a minority group on the basis of its ethnicity, religion, or some other unifying characteristic. It may have both positive as well as negative impacts on social processes.

Upon analysis, the number of registered foreigners as of the end of 2015 comprises 2.7% of total population of Seoul metropolitan area. Among them, the most numerous was from China including *Joseonjok*, and Han Chinese taking around 61.1% out of total registered foreigners. Vietnamese, Filipinos, and Cambodians are followed by Chinese as holding 6.3%, 3.2% and 2.5% respectively, and the vast majority of foreigners are male blue-collar laborers residing in Hwaseong-si, Ansan-si, Siheung-si, Gimpo-si and Incheon-si of the southwestern industrial belt. For their purpose of stay, the most numerous was those who came to Korea for employment at 349,401, comprising 49.8% of the total registered foreigners. In addition to unskilled workers, marriage immigrants, study abroad, and specialty employment comprises 88% of the total registered foreigners. By administrative district, ethnic enclaves are formed at Danwon-gu, Ansan-si, Gyeonggi-do; Yeongdeungpo-gu, Seoul; Hwaseong-si, Gyeonggi-do; Guro-gu, Seoul; and Siheung-si, Gyeonggi-do.

Secondly,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lated with spatial distribution of registered foreigners and their socio-economic features, the service industry and the manufacturing & construction industry showed positive correlation at the city, county, and borough administrative unit, while the wholesale and retail sales showed negative

correlation. At town and dong administrative unit, foreigners' ratio in 2005, service industry, and foreigner support agency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hile professional, science, and technology service industry showed negative correlation.

Finally, Massey & Denton's 5 segregation indices which are evenness, exposure, concentration, centralization, and clustering can be one of methodological evaluation of various measures to compute residential segregation. The most widely used measure of residential evenness is the index of dissimilarity. This index varies between 0 and 1.0, and Siheung-si, Gimpo-si, Gunpo-si, Danwon-gu of Ansan-si, Gyeonggi-do and Guro-gu, Seoul showed maximized segregation indices.

Residential exposure can be measured by isolation index, which computes the extent to which minority members are exposed only to one another, rather than to majority members. Danwon-gu of Ansan-si, Siheung-si, Gimpo-si, Gyeonggi-do, and Guro-gu, Yeongdeungpo-gu, Seoul showed high isolation indices.

Third, spatial concentration can be computed by Delta index, which measures the proportion of X members residing in areal units with above average density of X members. Sujeong-gu of Seongnam-si, Gunpo-si, Siheung-si, Danwon-gu of Ansan-si, Manan-gu of Anyang-si, Gwangmyeong-si, Gyeonggi-do and Yeongdeungpo-gu, Guro-gu, Seoul and Jung-gu, Incheon showed high delta indices.

A fourth dimension of segregation, centralization, is the degree to which a group is spatially located near the center of an urban area. I focused on Seoul Special City only by defining Jung-gu and Jongno-gu as a central business district, and proportion of registered foreigners

living within the bounds of central city is higher as 6.34 than majority Koreans's proportion at 2.8. By nationality, Nepalese, Uzbekistanis, Russians showed higher degree of centralization indices.

The last dimension of residential segregation is the degree of spatial clustering exhibited by a minority group, which can be measure by Gloabl Moran's I Index and 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LISA). Since 1995, Global Moran's I Index showed more strong spatial autocorrelation, and Danwon-gu of Ansan-si, Hwaseong-si, Siheung-si, Gyeonggi-do and Yeongdeungpo-gu, Guro-gu, Geumcheon-gu, Seoul are identified as clustered area with HH(high-high) clustering at LISA Index.

To sum up, based on 4 dimensions of residential segregation other than centralization index, Danwon-gu of Ansan-si and Siheung-si, Hwaseong-si, Gyeonggi-do, and Guro-gu, Yeongdeungpo-gu, Seoul are deemed as hyper-segregated areas in Seoul metropolitan areas by showing higher level of measures in evenness, exposure, concentration and clustering.

As a result, foreign residents have been influential to demographic, social and economic changes in Korea and the ethnic and national composition of South Korea is expected to become more diverse in the future. Korea's multi-cultural society appears to be an urban/metropolitan phenomenon, and the country of origin and purpose of stay of foreign residents are main factors to determine ethnic enclaves. Foreign residents live in more isolated settings now than they did in 2000s, continuing a trend seen since 1990s, and therefore more in-depth qualitative study and policy suggestion are required.